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31호 2011년 4월 13일 수요일 (음력 3월 11일 · 불기 2555년 · 주간)

공을 체득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욕심을 풀어놓고 집착을 줄이면 삶이 수월해집니다.

-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높은 목표 낮은 현실

조계종 수익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잘못돼

조계종이 수익사업으로 출시한 생수와 상조가 당초 기대보다 판매율이 낮아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은 승려 노후복지와 사회적 불교 가치 실현 등 종단 사업 진행을 위한 필요기금 마련을 위해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0년 12월부터는 석수&퓨리스와 제휴해 생수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이하 감)'를 시판중이다.

종단 차원의 상조서비스는 2010년 대형상조회사들의 비리가 속출하면서 상조에 가입했던 불자들이 피해를 입자 필요성이 대두돼 비롯됐다. 생수 판매는 새로운 수익 사업을 구상하던 중 업체로부터 업무 협약을 제안 받았다.

종단은 당초 전국 2000여 사찰의 스님과 신도를 대상으로 상조서비스와 생수를 시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각 사찰에서 50명씩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10만명 이상은 모집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재무부 관계자는 "올해 '감'의 판매 목표액을 3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목표에 따라 종단은 교구본사와 말사 신도들의 관심과 판매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최대한 홍보를 집중해 판매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시 6개월이 된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해 종단은 가입자 현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생수 판매는 공양물로 사용되면서 상조 가입보다는 나은 편이다. 석수&퓨리스 따르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500㎖의 경우 12월 2만 9440개, 1월에는 4만8560개, 2월에는 8만2960개가 판매됐다.

석수&퓨리스 관계자는 "일본 지진 피해를 위해 생수를 지원하면서 이미지가 상승되는 등 아직 초반이지만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단과 업체의 기대와 달리 정작 개별 사찰과 신도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각 사찰에서는 상조서비스를 문의하는 신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감'의 경우는 교구본사 중에도 판매하지 않는 사찰들도 있다. 생수가 아이템 특성상 산중사찰보다는 주로 도심사찰에서 판매가 많이 이뤄지는데, 도심불자들의 경우 각자 선호하는 생수브랜드가 달라 '감'을 단순한 공양물로만 본다는 분석도 있다.

영천 은해사 종무소 관계자는 "산이 가까워서 다들 약수를 먹기 때문에 '감'에 대한 수요가 낮다. 상조에 대한 문의도 적다"고 말했다.

도심사찰인 봉은사 관계자는 "공양물로 생수를 올리던 불자들 숫자만큼 '감'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조사해 제휴·판매했으면 각 사찰 수익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상품·서비스와 차별성이 없는 점은 상조서비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 신도들은 Btn 불국토 상조와 종단이 출시한 상조서비스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무부 장영욱 팀장은 "사부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몫이다. 종단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박기범·노덕현 기자

신도·사찰 반응 미온적
종도간 공감대 우선돼야



"차 한 잔 드세요" 종립학교인 서울 은석초등학교(교장 김한기)는 4월 6일 교내 연화법당에서 다례수업을 실시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다례수업은 2009년부터 매년 3월과 4월에 걸쳐 실시해 왔다. 서울 청량사 혜등 스님의 지도하에 주인과 손님으로 마주 앉은 1학년 학생들이 차를 나누며 다례를 익히고 있다. 박재완 기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데…"

군종교구장 자 광 스님,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 동참 호소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불사는 우리의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장래를 이끌어갈 장정들에게 부처님의 씨앗을 심는 숭고한 포교활동은 중단돼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4월 6일 군종교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산육군훈련소 법당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동참을 호소했다.

자광 스님은 "2012년 5월말 완공될 3500여 명 수용 규모의 군법당이 불사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당 신축 불사금 모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105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작불사이다. 2009년 불사추진 선포 이후 2010년 5월 신축불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약 정액 포함 55여 억 원을 모금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해진 경제난 등으로 불자들의 후원 손길이 뜸해진 상태이다. 공사 진행은 군종교구가 3월 24일 GS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다.

자광 스님은 "군대는 젊은 청년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 적은 시간,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날로 고령화·여성화되는 한국불교의 문제를 군포교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종교구는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10만명 후원 동참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처님오신날 등 주요행사를 중심으로 각 사찰 신도들의 ARS동참 운동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후원계좌 477401-01-179603(예금주: 군종특별교구), ARS: 060-700-0108 이나은 기자

봉축등 4월 26일 저녁 7시 서울광장서 정치인 없이 점등

불기 2555(201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4월 26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봉축조형물 점등으로 시작된다. 점등식은 외부인사 초청 없이 불교계 인사로만 진행된다.

올해 서울광장에 밝혀지는 '석가탑燈'은 높이 18m로 국보 제21호인 불국사삼층석탑(석가탑)을 원형으로 한지로 제작됐다.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석가탑등 점등을 계기로 불교문화재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로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모바일로 즐기는 봉축 연등축제 어플 출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 '2011 연등회 연등축제'를 4월 1일 선보였다.

이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연등축제의 역사와 특징, 축제 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전 연등축제 사진을 비롯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연등축제까지 남은 일수 또한 표기된다.

연등축제 어플리케이션은 전국 사찰에 게시되는 연등축제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다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사 고

내 마음 속에서 발견한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주제: 부처님오신날 관련 이야기나 수행을 하면서 만난 부처님
응모기간: 4월 1~30일
분량: A4용지 2매 내외
접수방법: 이메일 hyunbul@gmail.com
*응모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함께 기재

응모작 중 봉축 특집호에 게재된 분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02)2004-8252

정치인 초청금지 개별 신행은 허용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4월 1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봉축행사 실천지침을 전국 교구본·말사에 하달했다.

조계종은 실무지침에서 "종교행사에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행사에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는다 △정부관계자와 정치인 개인의 신행활동은 허용하나, 별도의 의전(축사, 자리배정 등)은 하지 않는다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등달아주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세부지침을 명시했다.

조동섭 기자

831호 CONTENTS

▶5 특집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5 법향을 찾아서
정토회 이사장 법륜 스님



▶11 현장속으로
미황사 템플스테이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元老스님들께 올립니다 : 서암 종정 퇴임인사

不德한 사람을 宗正으로 推戴시켜 宗團과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들여 무어라 謝罪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千六百餘年 悠久한 佛祖의 遺德이 一時에 沈沒되는 듯 實로 그 罪業이 莫重함은 汗出添背로 소이다. 오늘 그 重罪를 切感하고 모든 所任을 元老大德앞에 正式으로 되돌여 들이오며 從容히 宗團 밖으로 물러나 血淚의 懺悔로 殘日을 보내겠습니다. 本人에게는 何等傳達이 없이 他處에서 不信任決議를 하였는지는 끌리지 않는 疑惑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라옵건덴 元老大德스님들께옵서는 賢明하옵신 衆智를 모아 앞으로의 曹溪宗團이 바른 軌道에 進入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伏望하옵니다. 물러 날 機會를 얻지 못 하와 오늘까지 늦어졌사오며 오늘 비로소 처음 元老會議席上에서 正히 退任人事를 올리나이다.

위의 글은 서암 종정께서 94년 불법사태(佛法沙汰)의 와중에서 종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며 남기신 자필 退任人事이다. 위 퇴임인사 관련하여 호법애종하는 마음에서 서암, 월하 두 분 종정예하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과 종헌규정에 반한 궐석심판에 의해 많은 원로·중진 승려들을 희생시키는데 주된 책임이 있는 송월주사와 김월서사의 폐불기석(廢佛棄釋)의 비법(율)행을 공개하기로 했다.

1. 금년 말, 차기 종정 추대를 앞두고 일부 원로의원들은 원로회의 장악을 통한 종권에의 도전(총무원장과 종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열반한 원로의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 그리고 또 다른 원로의원은 사임권고를 받고 원로회의(4·15) 불참의사를 밝힌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런가하면 94년 4월 10일자 칠보사 원로회의에서 송월주사의 서암 종정 불신임안이 채택되고, 법정에서는 "부처님 교법에 따라 교시를 내린 종통의 승계자인 종정을 불신임할 수가 있다"는 망어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서암 종정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이 송월주사에서 비롯되고, 그가 법정에서 비법의 종정 불신임이 정당하다고 확인 해준 샘이다.

2. 송월주사는 앞서 언급한 서암 종정뿐만 아니라 개혁종단의 초대 종정 통도사 윤월하 방장까지 종헌상의 종단 분쟁 해결의 기본법인 멸쟁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칠멸쟁법)에 반한 불법집회(승려대회)에서 불신임케 한 당사자이다. 불설(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佛法僧 三寶에 대한 不敬(罪)이자 불조 이래 전승해 오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성스러운 법통(종통)을 불신(부정)하는 반종행위다. 이는 현행 승려법 제46조 <멸빈사유> 1호 해당하는 중죄이다. 또한 송월주사는 이설조 전 불국사 주지의 공개 항변 등에 비추어 분명 사미승으로서 비구를 자처하는 등 망어(妄語)를 하고, 불법승 삼보를 비방(誹謗)하는 자로서 율장에 의하면 멸빈(滅擯)처분의 대상이다.

3. 송월주사의 원로회의 진출과 함께 원로회의 의장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진 김월서사의 종권 및 사찰 소유와 관련한 전력이다. 김월서사는 앞서 언급한 멸쟁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칠멸쟁법)을 비롯한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한 불법집회(94년 4월 10일 승려대회)를 통한 종권찬탈, 이른바 쿠데타 종권의 초심·재심 호계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호계원장으로서 계율의 제재법과 종단 최상위 징계 규범이기도 한 멸쟁법을 위반해가며 여법한 종정 교시를 받들었던 원로·중진 승려들을 멸빈시킨 장본인이다. 문제는 김월서사를 중심으로 일부 원로까지 원로회의 장악에 합세하고 있어 심히 종단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4. 김월서사는 박비룡 노사께서 창건한 제주 천왕사를 노사의 뜻에 반하여 사유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호계원장으로서 화동사찰 봉국사 연고권을 갖고 주거하던 현근스님은 비법으로 멸빈시키고, 현근스님 상좌 선관 봉국사 주지는 사표를 강제로 받아 자신이 주지로 취임하였다. 이는 출가사문으로서는 물론 속세 사람으로서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김월서사는 2006년 재심위원장으로서 1998년 종단사태와 와중에 멸빈된 승려들을 사면할 당시 자신이 주지인 봉국사 연고권을 가진 현근스님만을 독단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러나 2010년 4월 법규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그가 사면 복권되었지 않았는가. 이는 그가 얼마나 사적 이익을 위한 감정에 사로잡혀 불공정한 판단을 했는가를 말해 준다.

5. 김월서사께서는 '부당하게 얻은 명리를 버리는 것이 성불의 길이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상기하시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접수한 봉국사를 떠나시고, 천왕사를 비룡노사의 유지에 따라 비룡노사의 본사인 오대산과 비룡문도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불제자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끝으로 사면을 위해 노력해 주신 원로회의 의장 종산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회의 의원스님들과 종회의원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 4. 5. 아라마 원 두 합장 (당시 서암 종정 사서실장 겸 원로회의 사무처장)

정부와의 해법 고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간담회서 속내 밝혀

조계종이 최근 정부·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을 금한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제한적인 접촉을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정부·여당과의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조계종이 대정부 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교계 기자들을 만나 "절집 일이 업무상 관을 통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 고심 중이다. 내부적으로도 부처님오신날 전에 정부·여당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정부·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 제한은 내부적인 의지결속을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종단 내 민족문화수호와 자성·쇄신 의지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사들로 인해 결사의 본뜻이 왜곡될 수 있어 분위기 단속상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결의대회는 민족문화에 대한 중요성, 종교편향 문제, 자성과 쇄신 5대결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5대결사는 임기내 계속될 것이며, 사회적·국민적 운동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결의대회 참석 차 전국 교구본사를 돌다보니 분위기상 마지못해 따라하는 본사, 적극적으로 봉행하는 본사 등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면서도 "종단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참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 결속 다지려 정부 접촉 금지했다

자성과 쇄신 위한 5대결사 끝까지 한다

총무원장 스님은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했던 범불교도대회가 1회성 행사로 정치권 배타의 성격이 강했다면,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는 모든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 인과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며 범불교도대회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현수막 철거, 정부·여당관계자의 신행 목적의 사찰 방문을 허용한 일련의 유화조치에 대해 "문화재 등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인식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본말사주지회의 등에서 총무원의 정부·여당인사와의 접촉불가 방침에 거센 반발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국사 주지 스님은 직접 만나 이야기도 했다. 반발이 아니라 건의였다"며 종단 내부적으로도 화합과 리더십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청불회 법회 참석도 문제될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승 스님은 "전쟁 중에 사신도 왕래했다"며 "108일 기도회향한 마당에 포교까지 등한시 할 수 없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야할 출가자가 청와대라고 못갈 이유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조동섭 기자

기획실장 정만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기획실장 정만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임 기획실장스님은 종단의 부장을 두루 역임해 종단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업무파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총무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7년 관음사에서 학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호법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前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건강을 이유로 1일 급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 불교 온정에 감사"

일한불교교류協, 자 승 스님 예방

일한불교교류협의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 불교가 일본 지진피해에 보여준 성의에 감사를 표했다.

이 날 예방에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니시오카 료코 이사장 스님과 노자와 류코 사무총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니시오카 료코 이사장 스님은 "한국의 온정에 감사드린다. 한국 불교가 보여 준 모습에 일본에서도 많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뉴스를 통해 피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답했다.

니시오카 료코 이사장은 5월로 예정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일본측의 상황을 감안해 협의회를 가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자승 스님은 또 지진 발생 49일이 되는 4월 28일에 피해 지역 인근 사찰에서 한국 전통 불교방식의 천도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박기범 기자



"4대강 복원을 위해 40배를 올립니다" 불교를 비롯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 종단 연대회의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생명·평화 기도회'를 열었다. 종단 연대회의는 평화 기도회에서 "4대강 복원운동을 펼치고, 4·27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4대강 토건사업을 지지하는 반환경, 반생명, 반평화 인물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날 불교계에서 참석한 스님과 신도들은 4대강 살리기를 염원하며 40배를 올렸다. 박기범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은 〈잡아함〉 불방일경에서 "나는 언제나 모든 중생의 좋은 벗이 되어 그들의 근심, 슬픔, 번민, 고통을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뇌를 벗어나게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중생에게 닥친 현실은 괴롭고 수행자들마저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납의중경에 보면 마하카샤파가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다른 수행자들이 보고 업신여겼다. 그러나 부처님은 당신 자리의 반을 내주며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기쁘게 하는 마음, 평등하게 보는 마음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칭찬하셨다. 이 시대에 자리의 전부를 내줄 수행자는 없는가.

수행결사를 하고, 생명결사를 하고, 나눔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사에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평등하게 보는 마음"이 안보인다.

그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잡아함〉 회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반열반(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마땅히 나를 돌아보게 하라. 혹 내 몸이나 입이나 마음에 꾸짖을 만한 일은 없는가."

종단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수행자들은 부처님처럼 자신에게 꾸짖을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또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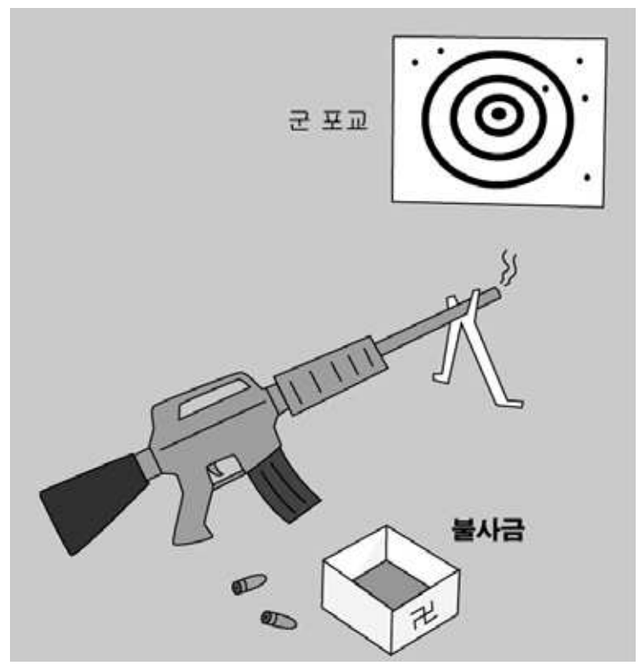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종족 출신입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어떤 종족인가를 묻지 말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고 물어라."

〈잡아함〉 손타리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지금 수행자들은 내가 총무원장이네, 종회의원이네, 본사주지이네 하고 출신만 강조하지 과연 중생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들,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스스로 악하고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으로는 잡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인가.

소위 5대 결사가 세상과 상관없이 소수 불교인들만의 초연한 신선놀음이 안되어야 조계종단이 강조하는 불교중흥이 실현되는 것이다.

박구원 만평



검찰, 자승 스님 재수사

이례적 조치… '조계종 길들이기' 의혹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발표됐다.

서울고검은 4월 6일 멸빈된 성호 스님(정한영)이 총무원장 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법이 직접 공소하지 않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때문에 검찰의 조치를 두고 민족문화수호운동 등으로 정부와 냉각 관계인 '조계종 길들이기' 내지 "본격적인 불교계 탄압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수사를 종결짓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이다. 승적의혹 등과 관련해 재수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총무원장스님 소환 등이 언급됐으나, 검찰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동섭 기자

"국가 이미지에 중요"

MB, 불교 문화 발언

"사찰 등 전통문화 가치 발굴과 확산하는 일은 한국의 이미지 신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8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불교문화 유산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유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불교문화의 보존 문제가 종교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불가사의 氣

세계최초! 최장거리! 청정기 방출(放出) 누구나 확인 할수 있다.

水脈 100% 차단



住持 : 령산 김 해봉

氣 氣
氣 특허등록
氣 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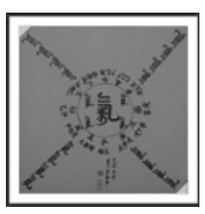
특허등록 제 40-0824632호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저작권등록)
제1호 제 C-2008-002154호
제2호 제 C-2008-002155호
제3호 제 C-2009-002114 호


[카드 기부]


[자동차 기부]


[제1호]


[제2호]


[제3호]

※ 카드氣 방출거리 3M 10cm
(차량, 소지카드) 황금 & 야광

※ 청기를 방출하며 방출거리는 7M 10cm (액자)

◈ 신비(神秘)의 氣 (不可思議氣) 방출(放出) 氣符는 모든 재액(災厄)을 소멸부(消滅符)

○ 氣 는 인체의 근본이다.
○ 氣穴이 강장(强壯)하면 처자궁(妻子宮)이 좋다.
○ 氣穴이 부족(不足)하면 병(病)이 저절로 생긴다.
○ 氣 가 왕성(旺盛)하면 학업(學業) 및 사업(事業)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 번개 = 전기 . 氣 = 전기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이다.
○ 수맥이 흐르면 흉(凶)가과 된다.
○ 수맥이 흐르는 곳에 오래 기거 하게 되면 오대성인 병을 본인도 모르게 온다.
○ 氣 가 왕성(旺盛)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 氣穴이 부족(不足)하면 처자궁(妻子宮)이 나쁘다.
○ 氣穴이 왕성(旺盛)하면 병(病)이 저절로 치유된다.

◎ 지구상(地球上) 모든 생명체(生命體)는 기(氣)로서 이루어진 것
본五氣는혼(魂)신(神)의(意)백(魄)정(精)이있다.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고도 신비스러운 강력한 청정기(淸淨氣)를 방출(放出)하며 약(弱)하고 나쁜운기를 제거하고 강력한 좋은운기로 바뀌면서 가정(家庭)에 나쁜 탁기(濁氣)를 제거,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는 탁기(濁氣)를 제거하며 기(氣)를 받으면 만사형통(萬事亨通)모든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

▣ 기부 사용처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스님기거방, 택시회사 운전자. 기업체,
사업인, 관공서, 가정 기부 사용, 각 종교, 사회단체, 크게 성공을 원하는 업체,
좋은 운기를 크게 받아 화목, 건강, 만복을 얻으리라.

주 문 문 의 처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양정 2동 135-4
직통 : 051)852-1810, FAX)867-5773 / 핸드폰 011-598-5470

다음카페 : 천운사

참여 없는 수익사업 '안개 속'

법인설립·인증제 등 새로운 방안 모색해야… 6월경 공청회 예정


조계종이 판매중인 생수 '감'

종단이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아온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화에 무게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사업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면 법인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로 신도 등 불교계 내부 판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종단 내부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다양한 사업 확대가 유리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단은 조계종 출판사를 별도의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이웃 종교에서도 법인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 설립은 종단의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돼 왔다. 종단도 법인화에 대한 공감대가 종단 내외부에 폭 넓게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6월 경 종단 수익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부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종단 수익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예정이다. 종단은 설문조사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수익사업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법인 설립의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종단은 또 '인증제' 도입도 고민 중이다. 인증제는 종단이 인증한 업체의 물품 및 서비스를 각 사찰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불교무설연구소도 2010년 발간한 '조계종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사례연구와 사업모델 제언'의 보고서에서 "인증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인화·인증제, 본말사 참여 관건

하지만 법인화와 인증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두 가지 모두 본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종단은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본말사들의 협력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조계종은 2004년 보험판매사 KBLP와 협약을 맺고 '자비의 보험금 나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종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웃 종교에서도 법인 통한 수익사업 활발
법인 설립 성공위한 불교계 특성 연구 중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전국 2000여개 사찰 중 70개 사찰에서 90명의 스님이 동참해 350건의 계약이 성사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종단이 구상 중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출연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 전문 CEO와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도 자본력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결국 본말사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고, 출연금을 납부한 본말사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산하기구 편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인 설립 후에는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수익 사업 창출만큼 기존에 시행 중인 불교계 수익사업을 법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출판, 생협, 문화사업 분야에서 수익 사업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돼도 이들을 법인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계종 출판사는 이미 별도의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고, 불교문화사업단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법인 설립 후 공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인증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단에서 각 종 업체와 물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본말사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해도 각 사찰에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단이 인증제를 도입해도 사찰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각 개별 사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해 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찰의 이익과 편리성을 이유로 기존 업체들을 선호한다.

사찰에 양초를 납품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사찰의 다양한 요구와 주문사항을 만족시키려고 다양한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사장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우리가 거래하는 사찰의 신도로 등록돼 있고, 사찰의 주요 행사 때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밝혔다.

종단 사업에 대한 각 사찰들의 외면은 수익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이해 부족과 저조한 참여로 이어진다. 종단이 상조상품을 출시하고, '물장사'라는 비난까지 받으며 생수 판매에 적극적이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신도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톨릭, 법인 설립 후 매출 170배 증가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에 (주)평화드림을 2004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종단 수익사업을 시작, 3년 만에 매출액이 170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종도 (주)평화드림의 성공을 주시하고 있다.

평화드림은 구매, 레저, 장례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다시 각 분야에서는 의료, 여행, 출판, 가구, 건설, 푸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달 · 구매 전문 아웃소싱 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평화드림은 학교법인 산하기관과 교회기관에서 필요한 자재와 집기, 비품 등을 통합 구매해 보급하고 있다.

평화드림은 당초부터 가톨릭 종단 산하의 기관들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가톨릭계 내부에서 충족시켜 외부로 유출되는 재원을 회향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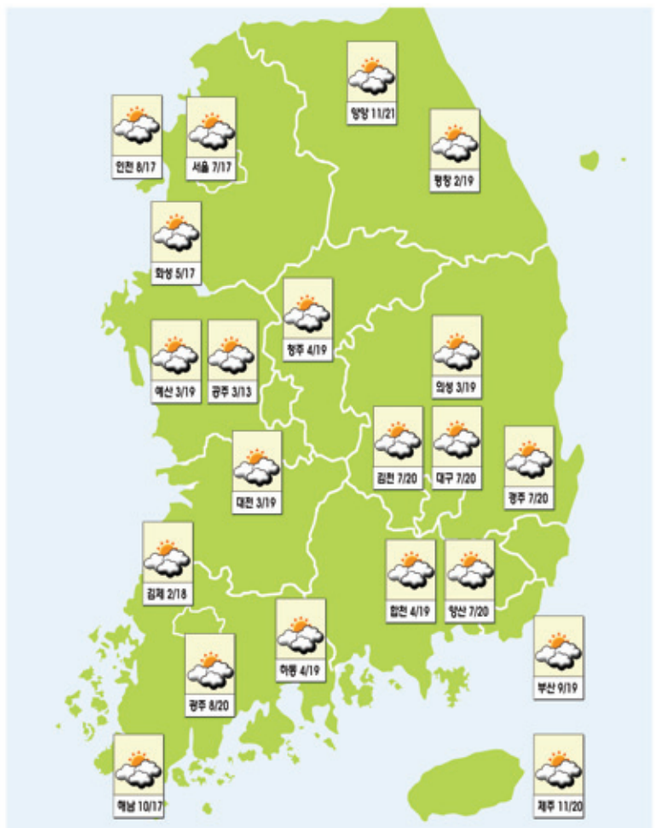
종단의 한 관계자는 " 수익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드림을 롤모델로 법인 설립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천주교와 조계종의 종단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불교계 수익사업을 추진할 법인 설립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천주교가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진 반면 조계종은 25개 교구본사의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불교무설연구소는 "조계종은 총무원장이 동국대 이사장을 겸하지는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 법인 설립 후 종단 내부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따라서 종단 내부에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편성하거나 급식, 식자재 유통 등 한 분과만을 따로 떼어내 운영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이주의날씨 4월 셋째 주 (4월 13~19일)

구름 많이 끼지만 포근한 날씨 이어져…한 때 비소식



맑음 흐림 흐린 후 차차맑아짐 구름조금 구름많음 비 흐리고 비 비또는 눈 눈

주요 7개지역 날씨

지 역	15일(금요일)	16일(토요일)	17일(일요일)	18일(월요일)	19일(화요일)
서 울	구름조금 8/18	구름조금 7/20	구름많음 7/21	흐리고비 8/12	구름조금 7/20
부 산	구름조금 9/21	구름조금 9/21	구름많음 9/21	흐리고비 12/16	구름조금 9/19
대 구	구름조금 9/23	구름조금 8/22	구름많음 8/22	흐리고비 11/15	구름조금 8/21
대 전	구름조금 6/22	구름조금 6/21	구름많음 6/22	흐리고비 8/12	구름조금 6/21
광 주	구름조금 9/22	구름조금 7/21	구름많음 7/22	흐리고비 10/14	구름조금 7/21
강 릉	구름조금 13/23	구름조금 8/21	구름많음 8/22	흐리고비 9/13	구름조금 8/19
제 주	구름조금 11/21	구름조금 10/18	구름많음 10/18	흐리고비 13/16	구름조금 10/18

25개 교구사별 해뜸/해짐

지 역	13일(수요일)
조계사	06:01/19:05
용주사	06:02/19:06
신흥사	05:54/18:59
월정사	05:56/18:59
법주사	06:11/18:56
마곡사	06:01/19:02
수덕사	06:04/19:05
직지사	05:58/18:59
동화사	06:06/18:51
은해사	05:57/18:57
고운사	05:56/18:57
불국사	05:54/18:54
해인사	05:59/18:58
쌍계사	05:59/18:58
통도사	05:59/18:58
범어사	05:56/18:54
금산사	06:04/19:04
선운사	06:04/19:03
백양사	05:59/18:58
화엄사	06:02/19:00
송광사	06:02/19:00
대흥사	06:06/19:03
관음사	06:07/19:03
봉선사	05:56/18:54

25개 교구사별 날씨(℃)

지 역	14일(목요일)
조계사	구름조금 8/17
용주사	구름조금 6/18
신흥사	구름조금 12/22
월정사	구름조금 4/20
법주사	구름조금 6/21
마곡사	구름조금 5/21
수덕사	구름조금 5/21
직지사	구름조금 8/22
동화사	구름조금 8/22
은해사	구름조금 8/22
고운사	구름조금 4/21
불국사	구름조금 6/21
해인사	구름조금 4/20
쌍계사	구름조금 4/20
통도사	구름조금 6/21
범어사	구름조금 8/20
금산사	구름조금 3/19
선운사	구름조금 3/19
백양사	구름조금 8/21
화엄사	구름조금 8/21
송광사	구름조금 8/21
대흥사	구름조금 9/18
관음사	구름조금 11/20
봉선사	구름조금 3/18

25개 교구사별 강수량(%)

지 역	13일(수요일)
조계사	10
용주사	10
신흥사	10
월정사	10
법주사	10
마곡사	10
수덕사	10
직지사	10
동화사	10
은해사	10
고운사	10
불국사	10
해인사	10
쌍계사	10
통도사	10
범어사	10
금산사	10
선운사	10
백양사	10
화엄사	10
송광사	10
대흥사	10
관음사	10
봉선사	10

자료제공=케이웨더 www.kweather.co.kr (02)360-2200

가야산 골프장 건설 '사업 불허'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종 결정… 환경부 고시 불씨 여전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낳았던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골프장 건설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 불허' 방침을 내렸다.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 31일 (주)백운이 제출한 사업 허가 신청을 주민 반대와 환경 보전을 고려해 '불허'했다.

공단측이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업체측의 골프장 사업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이번 '사업 불허'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부 고시에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시설계획이 존치돼 언제든지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다며 고시 삭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기범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뷰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없이 솟아납니다.
이 무궁무진한 자비의 에너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본문 중

보경스님의 유쾌한 법화경 읽기

보경스님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법화경 구절 구절을 짚어주며 친절하게 강설한다.
스님의 종교를 넘나든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화는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한다.

보경스님의 경전강의 컨닝페이퍼

보경스님은 각 품마다 품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법화경 경전읽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스님은 손수 강의를 준비해 직접 강의를 하며 쌓은 자신만의 '법화경 강의 노하우'를 그대로 세상에 공개했다.



보경 강설 ● 884쪽 ● 25,000원
신국판 양장 ● 2011년 4월 11일 발행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7년간 불교를 연구한 끝에
역편한 일아스님의 빠알리 경전 결정판!



일아 역편 / 신국판 / 양장제본 / 752쪽 / 값 28,000원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펴내" 〈한국일보〉
"붓다의 가르침 『빠알리 경전』 번역한 일아스님" 〈중앙일보〉
"초기불교 책 펴낸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겨레〉
"수녀 출신 비구니가 본 '붓다의 가르침'" 〈서울신문〉
"수녀 그만 두고 출가, 美서 17년째 불교 연구" 〈경향신문〉

민족사

일 주 문



생명나눔실천본부, KBS 나눔더하기대축제 참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4월 14~17일 'KBS 나눔더하기 대축제'에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모집 및 홍보캠페인을 펼친다.



만공 스님 탄생 140주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4월 9일 만공 스님 탄생 140주년 기념 다례재를 봉행했다.



법왕사 관음보살 점안식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17일 천수천안관음보살 점안식을 복지관 3층 만불보전에서 봉행한다. (053)766-3747



신임 법규위원장 무상 스님
무상 스님은 4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71차 법규위원회 회의에서 신임 법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청도 유등제 개막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광 스님은 4월 15~19일 청도 청도천 파랑새다리에서 제5회 청도유등제를 개최한다. (054)372-3876



월인사 창립 10주년 수계법회
대구 월인사 주지 혜관 스님은 4월 14일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을 모시고 창립 창립 10주년 기념 수계법회 및 영가천도재 대법회를 봉행한다. (053)767-3971



계호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기부금 전달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4월 7일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를 통해 모은 330여 만원 및 저금통 43개를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인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 현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이 4월 7일 임명됐다.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보각사에서 세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범어사에서 소천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영주장애인복지관장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봉화 청량사 주지와 12~15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 신도종책위원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간화선 연구 박차 가하겠다"

초대 종학연구소장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 호 스님



"조계종 종지, 종통, 교단성립과 형성, 소의경전, 수행문화 및 수행법, 역대 선사 등에 대한 검토와 경전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이 선(禪)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인 만큼 선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동국대 초대 종학연구소장에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종학연구소는 불교문화연구원, 역경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함께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이 통합 관리하는 연구소(원)중에 한 곳으로 5월 26일 개소한다.

초대 소장인 종호 스님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국선 담론'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종학연구소는 동국대학교 계산원에 위치하며, 현재 연구원을 채용 중에 있다. 종학연구소는 동국대의 건학 주체인 조계종의 선사상을 중심으로 간화선 국제학술회의 등 학술 연구를 진행한다.

"조계종은 조사선의 실천정신과 선사상을 신라에 최초로 전한 선승 도의 국사가 종조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삼고, 구법전승(求法傳承)으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조사선풍(祖師禪風)으로 전승 돼왔다. 하지만 조계종도들이 모두 선 수행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의 수행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종조인 도의 국사는 물론 조계종을 다시 연 중천조(中闡祖)인 보조 지눌 국사와 정통 선맥을 계승한 중흥조(中興祖)인 고려 말 태고 보우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조계종조 도의 국사를 기리는 의미, 정체성, 역사적 위상 정립, 정체성 정립을 통한 선풍 진작, 수행 문화의 저변 확보에 대한 연구 등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하겠다."

종학연구소에서는 선과 불교학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도 진행된다.

종호 스님은 "선과 교학에 대한 연구는 물론 한국 선학(禪學)과 선사상 이론과 수행적인 측면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호 스님은 첫 사업으로 한국 선사상의 이론과 교단사와 선사상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담은 내용을 3권에 걸쳐 집성할 계획이다. 한국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분적인 연구만 그친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한국선을 연구하고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 계획이다.

종호 스님은 "종학연구소는 당분간은 선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다지고 연구소로서 규격과 내실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종단의 종책적인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검토 및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리학·인지과학·뇌과학·교육학 등 학제(學際)간 연구는 물론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회의도 종학연구소에서 진행된다. 종호 스님은 "올해 국제학술회의는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주제로 국내 불교학자 6명, 해외 불교학자 9명이 준비 중에 있으며 작년과는 다른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조계종이지만 염불, 절수행, 간경 등 다양한 수행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삼장에 기반을 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뒷받침이 이뤄질 때 종단은 물론 조계종의 신뢰는 물론 정체성도 확실해질 수 있다. 주장이나 의견들이 무의미한 소용돌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상언 기자

종 호 스님은…

1971. 해인사 출가
1972. 사미계 수지 (계사 : 고암 스님)
1974. 해인승가대학(해인강원) 대교과 졸업
1986. 동국대 선학과 졸업
1988. 비구계 수지 (계사 : 자운 스님)
1994.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
1999. 동국대 선학과 전임강사
2003. 미국 Stony Brook University 방문교수
동국대 선학과 부교수·기숙사 관장·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 한국불교학회·불교학연구회 이사
2006~2008 동국대 정각원장 등 역임

"지역갈등·빈부격차 해결에 주력"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상 덕 스님 인터뷰

"13년간 난관도 많았지만 부처님의 가호와 좋은 인연의 스님들과 후원자, 봉사자 여러분이 있어 오늘의 복지 역사 탑을 쌓아 올 수 있었습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은 개관 13주년을 맞아 "열악한 복지 환경 속에 터를 잡은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동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옥수동 지역이 가장 많으며, 노인과 보육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상덕 스님은 "현재는 재개발로 인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이 이뤄지도록 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역문제해결을 복지관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덕 스님은 "성동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실시해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내 청소년 비행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 자원을 연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관은 현재 운영 중인 장애·비장애아동 통합시설인 부설 좋은 벗방과후교실을 통해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장애양육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관은 2010년 7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에 나선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이후 13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덕 스님은 "주민들은 문화 편의 시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성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각 계층에 맞는 다양한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과 가족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복지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관, 인간중심의 행복을 지향하는 전문 복지전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을 기념한 행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5일 옥수역 광장에서 옥수문화축제를 개최했다. (02)2282-1100 이나은 기자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선출한다

공동대표 도 법, 원 택, 현 응, 세 영 스님 중 호선

수경 스님이 대표에서 물러난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환경연대가 공동대표 선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불교환경연대는 4월 13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회관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대표 4인 중 상임대표를 호선할 예정이다. 공동대표로는 사전에 집행위원회에서 도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원택(백련암 감원), 현응(조계종 교육원장), 세영(신륵사 주지) 스님 등 4인이 추천됐다. 불교환경연대는 임원 선출 후 2010년 사업보고와 201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인준을 받는다. 박기범 기자

제7회 인천수륙재 봉행

인천 약사사, 1000여 대중 운집

인천시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보존회는 4월 5일 화엄종 총무원 인천 약사사(주지 화응)에서 제7회 인천수륙재를 봉행했다.

천안함 46용사 전사1주기 추모위령제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기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일초 스님을 비롯해 원경 스님, 기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수륙재에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봉 곤지암 우리절 특별천일지장기도 행

우리 모두, 불보살님의 크나크신 가호에 흠뻑 젖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기간 : 2011년 6월 19일 ~ 2014년 3월 16일 (1002일간)
▶기도시간 : 새벽기도 04:00 ~ 07:00
사시기도 09:00 ~ 12:00
저녁기도 16:00 ~ 19:00
▶기도동참 : 백오십만원 이상 (3년간 자동이체 분납 가능)
농협 : 221043-51-030588 이진균

특별천일지장기도에 동참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드립니다
▷ 천도재를 무료로 지내드립니다.(향, 화, 촉 공양은 별도)
▷ 한 가족 중 두 분. 3년간 인등을 밝혀 드립니다.

※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 불전은 일본대지진피해 성금으로 보시합니다


우리절오층석탑(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지장보살님

우 리 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삼푸다라니 염송법회

■ 문의접수 : 동봉 (스님 : 031-763-4674) / 영허 (법사 : 010-5329-8477, 031-763-8477)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번지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리 전화주시면 우리절 ~ 곤지암터미널 구간을 언제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락처 영허법사.

이루고 싶다면 이익 따지지 말고 혼(魂)바쳐라

정토회 법 륜 스님, '2030 청춘멘토링 방황해도 괜찮아' 통해 청년들에 감로법문

정토회, 3월 31일부터 총4회 걸쳐 2030청춘멘토링 실시

청춘(青春). 이십 대에 걸친 인생의 젊은 시절을 이르는 말로, 새싹이 파랗게 돋아다는 봄철을 뜻한다. 4월 7일은 오랜만에 봄비가 내린 날이었다. 그러나 '방사능 비' '황사 비' 등이란 이유로 사람들은 간만에 내리는 봄비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오히려 전국에 내린 봄비는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이 같은 아이러니 한 상황은 봄비뿐만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나타난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멋진 순간을 누려야 할 젊은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학업을 중단하는가 하면,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해 매일 같이 삶을 허덕이며 살아간다. 현대 청년들의 청춘은 마치 달갑지 않은 봄비와 같다.

정토회는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법륜 스님을 멘토로 청춘멘토링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강연은 '2030청춘멘토링 방황해도 괜찮아'란 제목으로 젊은이들의 연애와 결혼, 취업과 성공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강 '연애'편은 3월 31일 이화여대 ECC관에서 열렸으며, 2강 '취업'편은 4월 7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300여 젊은 청년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방송인 김제동이 특별게스트로 참석했다.

멘토링은 현장에서 바로 묻고 답하는 '즉문즉설' 형태로 이뤄졌다. 법륜 스님은 이날 종교를 뛰어넘어 젊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에 대해 진솔하고 명쾌한 답을 들려줬다.



청년들이여, 세상을 군림해라

Q: 현재 7년차 직장인입니다. 갖은 고생 끝에 직장에 취업했는데, 취업을 하고 보니 회사가 너무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인간적인 문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틈만 나면 남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는데,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함께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싫어집니다. 현재는 이 일이 나와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직을 해야 할지 고려중입니다.

A: 사람은 항상 일정한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과 바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뒤엔 반드시 괴로움이 따릅니다. 인생은 본래 고뇌가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거기에 끄달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정선에 이르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서 이미 직장생활을 한지도 7년이 됐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못해서 걱정입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더 나은 상황이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다른 일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것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항상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행도량이라 생각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동료들이 남을 헐뜯는 다면, 가급적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 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며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내 수행도 하면서 월급까지 받는데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Q: 저는 27세 직장인이며 또한 학생입니다.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에서 사진전공을 하다 비전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허나 중소기업이다 보니 연봉도 낮고, 업무는 멀티플레이를 요구해 결국 나의 가치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 석사과정을 밟아야만 할 것 같은데 학비가 너무 부담이 돼 걱정입니다. 또한 학업을 마치면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서 그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 회사 있는데, 현재 스펙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에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고 항상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불안감을 떨치고 어떻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로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따끔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바람에 떠도는 낙엽처럼 이러 저리 방황하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낙엽이 나는 건 바람 덕분 입니다. 자신이 날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곧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법화경〉을 3000번이나 넘게 읽고, 등에 메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글도 모르고 경전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 한 선승이 도를 깨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길로 선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선승에게 절을 하곤 "〈법화경〉의 요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선승은 자신이 글을 모르니 어디 한번 읽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법화경〉을 듣고 난 선승은 요지를 설명해 줬고, 스님은 그 말에 크게 마음을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승이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선승은 그 스님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법화경〉에 군림을 당했다면, 앞으로는 네가 〈법화경〉을 군림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태산 같이 쌓아놓고 살아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물살을 거스르는 것은 힘듭니다. 정말 공부가 하고 싶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면 좀 더 삶을 개척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현재 20대 아닙니까. 단순히 밥벌이 때문에, 인기를 생각해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익을 따지지 말고 혼을 바쳐야 합니다. 세상을 군림할 줄 알아야 합니다.

Q: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하면 중간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갈등이나, 내가 실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너무 힘듭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과거의 생각들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보내다 보니 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가끔 만나고 들어오면 외로움은 사라지지만 그날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A: 이런 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공부를 하다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상이 일어났다 싶으면 운동 같은 것을 통해 재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망상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망상이 떠오르는 게 문제 아니라, 떠오르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수련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망상이 떠오르면 코끝에 집중을 하고 망념을 막아야 합니다. 어차피 떠오른 망상을 어찌할 방도는 없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도 끌려가지 않는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다급한 일이라면 아무리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가 옆에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외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면 그건 진정으로 그 일을 자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를 만났으면 노는 대로 놀고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십시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해라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고, 여러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 1~2% 수준뿐입니다. 결국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경제의 현상유지를 위해 외국 근로자로 인력을 충당하게 됩니다. IT산업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라지만, 그것도 수요를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악조건으로 인해 청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졸업만 시키면 된다는 시스템으로 일관하고, 일자리 창출, 주택문제 등으로 서민들은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입니다.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나라보다 조금은 나은 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스스로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사회도 변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은 불만족스럽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유가 되면 봉사도 하고,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고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발상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인이 어디 취직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해 본다면 좀 더 우리와 이 사회의 미래가 활기차 질 거라 봅니다.

정리=이은정 기자

말로만 들었던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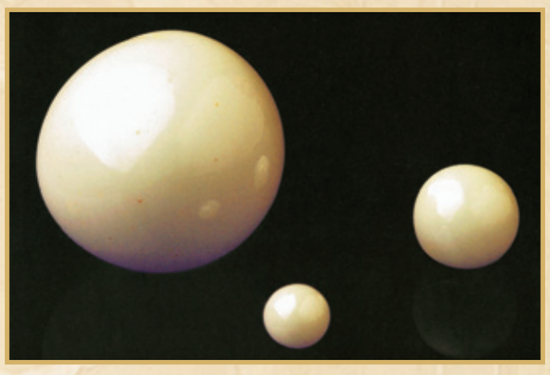
- 국내 최초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

若見如來舍利 卽是見佛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대반야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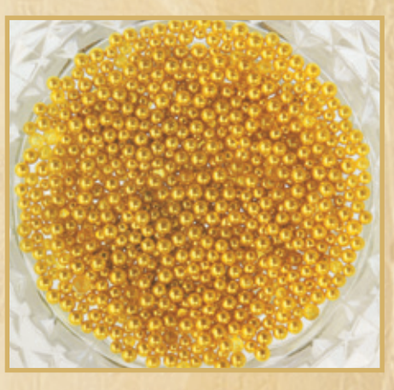
世尊眞身舍利

붓다여! 붓다여! 泥蓮河의 부활이여!





증과된 사리
원래 한 과의 큰 사리에서 작은 두 과의 사리가 증과된 신비스러운 부처님 사리



황금사리
부처님의 혈(血) 사리로써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사리

부처님 사리는 수정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과 함께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등 오색영롱한 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생각하였고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불자님가정에 진신사리집을 모셔놓고 기도 하시게 되면 엄청난 환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부처님의 사리집을 소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진가(眞假)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찰에서 의식시 법당에 모셔놓고 불공을 드리면 무량한 가피(加被)를 보실수 있습니다.

• 크기 : 30cm X 30cm, 166면, 총천연색 칼라 사진집 •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 사리 증명서 첨부
• 정가 : 280,000원 • 출간기념 특별할인가 : 140.000원

發行人 : 財團法人 世界佛教法王廳平和財團, 社團法人 韓國佛教團體總聯合會
구입 문의 : (02)761-0410, (053) 325-0400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18-21-0972-990 예금주 : 김상훈

팔만사천법문을 한 손에

대불청, '우리말 팔만대장경' 개정판 간행… 어투, 표기법 현대화



대불청 정우식 회장은 3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대표 박길수)과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1963년 대불청 성전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개정판을 출간키로 했다.

반세기전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개정 간행된다. 새롭게 간행되는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팔만사천법문을 한 손에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1963년 대한불교청년회성전편찬위원회에서 편역한 〈우리말 팔만대장경〉 간행사업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와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대표 박길수)이 함께한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1963년 대한불교청년회성전편찬위원회에서 편역한 책으로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도제양성, 역경, 포교 3대 사업의 하나로 이뤄진 대작불사다. 종단출범 이후 대불청은 만해 스님의 뜻을 이어 성전편찬위원회를 조직해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당시 성전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상로 前 동국대 총장이, 부위원장에는 한글대장경 대작불사의 시원인 운허 스님이 참여했다. 또 위원으로는 일타 스님, 자운 스님, 탄허 스님, 법정 스님, 청담 스님, 김법린 前 문교부장관 등이 참여했다.

당시에도 〈우리말 팔만대장경〉 편찬작업은 전무후무한 대동참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오래전 절판된 상태로 대불청 회원 중에도 이 책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박길수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소장해 오던 이 책의 내용과 문체 등이 당시 출간한 것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것을 보고 지난 1월 대불청과 함께 개정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가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의 해인만큼 한글대장경 개정판 간행의 의미는 컸다. 개정판은 원문에 누락된 내용을 보충하고 어투와 표기법을 현대화한다. 또 본문이 축역돼 원전 연과성 부족, 정본(正本)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의 해제는 진현종 작가가 맡는다. 개정판은 1400쪽 내외로 7월 경 발행될 예정이다. 원본 편제 및 내용을 최대한 살리고 고유명사 표기, 맞춤법 등을 현대화하게 된다.

대불청 정우식 회장은 "한글로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간행된 것 중 으뜸가는 역경사업이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나오고 난 후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이 완간된 것으로 교두보 역할을 한 의미 깊은 책이다. 책 개정으로 역대 스님들의 뜻을 이어 보다 많은 이들이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저자인 진현종 작가는 "전시용이 아닌 신행과 연구생활에 기본적으로 상비해야 할 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장경 역경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전의 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 역경사업을 공적인 의제로 통합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빗자루질 하나에도 부처님 가르침 담아"

조계사 원심회 자원봉사자 김 오 복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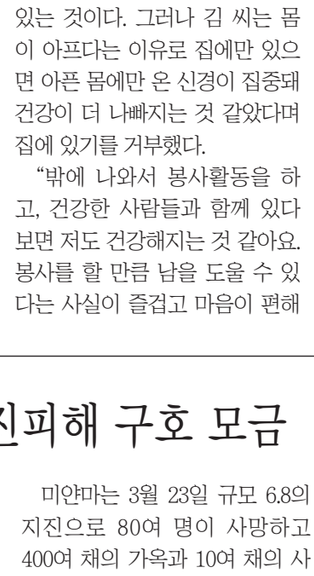
조계사 원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오복 씨(58 · 사진)에게 자원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매일 출근하듯 원심회를 방문해 청소, 한지 연꽃 만들기,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원심회 봉사활동에는 언제나 그가 있다.

"원심회에 와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봉사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소한 일도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만큼 중요한 활동이 어디 있겠어요."

김오복 씨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찾아와서는 빗자루 들고 청소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봉사활동을 하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봉사활동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생각이다.

10년 전 조계사에서 만발식당 설거지와 법당 청소 등을 하면서 봉사를 시작한 김오복 씨는 3년 전부터 원심회와 인연을 맺고 함께하고 있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는 모습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원심회에서도 빛을 발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는 청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수화를



배우고 있다. 늦은 나이에 무엇을 새로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남을 위한 일에 헌신적인 김오복 씨는 사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뇨로 시력이 많이 저하됐고, 퇴행성 관절염, 대상포진 등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으면 아픈 몸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며 집에 있기를 거부했다.

"밖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저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할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즐겁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오복 씨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특별히 경전 공부나 교리 교육을 받지 않았다. 평범한 다른 보살님들처럼 법당을 찾아 불공을 드리고,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년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자 본격적으로 교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는 작년부터는 봉사활동만큼이나 경전 공부에 푹 빠져 있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오복 씨에게 원심회는 2010년 모범 신도상을 수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부탁했다.

원심회는 요즘 한지 연꽃 만들기 등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김오복 씨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원심회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김 씨의 손은 쉴 틈이 없다.

"봉사를 통해 불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부처님의 고행이 중생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봉사활동과 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범 기자

수도권 복지시설 유치 잇따라

성남·광명시 교세 취약지역 포교발판 마련

경기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교세가 취약한 수도권 지역에 불교계 복지시설이 운영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4월 7일 성남시에 위치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자리잡은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 다목적 교육프로그램실, 상담실, 주 · 단기보호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또한 11일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시작한다.

철산복지관은 3월 위탁 법인으로 선정된 시설로 연면적 1465.8㎡(443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전문적 경험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노인의 사회참여, 건강 및 케어체계 구축 등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중심의 자립형 복지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4월 6~17일 서울실버갤러리 '고운님'에서 기념전시회 '서울노인복지센터 역사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세대 및 지역사회에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상을 제시하기 위해,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고 어르신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일상사진 전시, 기념품 및 홍보물 전시, 영상전시 등 센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나은 기자

더프라미스, 지진피해 구호 모금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가 미얀마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펼친다. 모금활동은 더프라미스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미얀마는 3월 23일 규모 6.8의 지진으로 8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채의 가옥과 10여 채의 사원 등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070-7596-9988 조동섭 기자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 결과 발표

올해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4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더프라미스' '사찰생태연구소' '위드아시아' '함께하는세상' '합천평화의집'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심사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절성 △필요성과 기대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박기범 기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양성평등 교육 진행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 상담소는 4월 28~29일 5월 6 · 12 · 13일 오전 10~오후 3시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섹슈얼리티의 이해, 성폭력 · 성매매에 대한 이해, 성인지적 관점 성교육,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4월 26일~6월 21일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진행하며 수강료는 30만원이다. 강좌는 한국 MBSR 연구소(www.mbsrkorea.com) 안희영 소장이 직접 진행한다. (02)732-1367 이상언 기자



바 른 정 법 . 바 른 인 연 Ⅲ

아직도 말을 붙들고, 화두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쯤 세상에 몸을 나투실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 (여섯 도적)을 가시밭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써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 선봉에 성직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쟁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몸속 법당이니, 00신통도량이니, 00영험도량이니, 00쌀바위 도량이니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에서 부터 닦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통 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은 무엇이며, 작은 등은 무엇인지..... 법당이라 함은 '법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법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한답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비가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을 하심이 어떨는지.....** 그 베품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사찰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짓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장회해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써의 삶을 사신 분이지, 앉아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진지 오래고, 말로는 불.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뭣고? (이 무엇인고?)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즈음 어느 개그 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자면 '그럼, 쇠는 누가 키우나?'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철주야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립디까? ..... 아니면, 보입디까? .....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수행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던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밭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납이, 법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통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함은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앉아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써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불 . 법 . 승 . 정 법 . 실 천 도 량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동

“여성은 남성의 옷이요 남성은 여성의 옷”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 주 화 이맘 리더스포럼서 특강



‘수쿠크(Sukuk)’ 법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대통령 하야발언을 하는가 하면, 4월 6일 미국인 목사가 ‘꾸란’을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웃종교의 배타적인 모습을 많이 접하는 요즘이다.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와 더불어 세계인구 1/5가 믿는 세계 3대 종교로 꼽히지만 유독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유대교가 유대인의 종교인 것처럼 이슬람을 마치 아랍인들의 종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아직까지도 이슬람은 우리나라에서 낯설게만 느껴지는 종교이다. 사막과 낙타를 연상하게 히잡을 쓴 여성이 떠오르는 먼 미지의 세계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논란의 한편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슬람이란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4월 5일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예배인도자)를 초청해 이슬람 종교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이슬람은 호전적인 종교가 아니다

서양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슬람종교를 전파했다고 선전해왔다. 오랫동안 이슬람이 호전적인 종교인양 묘사하면서 이슬람의 폭력성을 부각시켜온 것이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호전적 이슬람’,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즘’과 같은 말을 분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쓰면서 이슬람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전성이야말로 이슬람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폭력사태의 근원적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1400년의 이슬람 역사에서 이슬람 공동체는 안팎으로 화해와 용서, 절충과 합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십자군 원정에서처럼 서방과의 충돌과 대립에서 침략행위자는 거의 서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이슬람이 비신도에 대적하는 전쟁을 의무화하고, 단지 비신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적을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무자비한 폭력의 종교로 회자되고 있다.

1187년 십자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한 살라딘(1138~1193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이고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최상의 가치관으로 교리에 담고 있는 평화의 종교이다.

이슬람의 의미는 평화이며, 하나님의 99개 이름 중 하나도 평화이다. 무슬림들의 일상의 인사말 “앗 쌀람 알라이쿰(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도 평화를 나타낸다.

평화는 이슬람의 본질이고, 의미적 상징이며, 목적이다. 11~13세기 십자군전쟁에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무슬림과 유대인에게 저질렀던 대량학살과 포악스러운 약탈행위와는 반대로, 살라딘은 투항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와 화합의 선정을 베풀었다. 이러한 그의 기사도적 관용정신은 서양에서도 널리 알려져 사자왕 리처드에 버금가는 정의와 평화의 영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일부일처제가 보편적 제도로 인식돼

일부다처제와 무슬림 여성의 낮은 지위 또한 이슬람 세계에 대해 갖는 편견과 오해의 주제이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던 미개사회 제도인 일부다처제가 아직 일부 이슬람 국가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슬림사회가 봉건적이고 남녀불평등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들은 과거 무슬림 사회의 일부4처제야말로 진정 여성을 위한 제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많은 현대의 무슬림 법학자들도 이 제도가 차선으로 열려있는 것이지, 무슬림 사회의 보편적 제도는 일부일처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서기 624년 우후드라는 전투에서 무슬림 군대가 참패한 뒤 생겨났다. 전쟁에서 많은 남자들이 죽자 무슬림 공동체에는 갑자기 수많은 과부와 고아가 발생했다.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한 남자가 4명까지 아내를 맞아 들일 수 있는 일부4처제였던 것이다. 이슬람의 일부다처제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출현한 이 제도가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점 때문이다. 또 비록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 제도가 법에 따라 관용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근대 이슬람 개혁운동의 선구자인 무함마드 압두(1847~1905)는 이 제도에 관련된 ‘꾸란’의 구절을 재해석하고 현대 무슬림 사회에서 더 이상 일부다처제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슬람교는 평등의 종교

무슬림들은 인종, 피부색, 언어, 사회적 지위, 빈부의 차이 등으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무슬림 공동체라고 자인한다. 그러나 서방 언론에서는 매우 자주 이슬람 세계가 대표적인 남녀차별 사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남녀가 평등하고 상부상조의 관계임을 ‘꾸란’에서는 “남녀신도들은 서로가 보호자이니라”, “여성은 남성의 옷이고, 남성은 여성의 옷”이라고 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꾸란’은 종교적인 임무와 수행에서도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이혼, 여성의 재산권, 상속권도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남녀의 동등한 지위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기능과 일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별을 강조한다. 예컨대, 남성은 경제적 부양의 의무가 있고, 여성은 자녀교육과 가정의 보호라는 의무가 있다. 남녀의 권리는 동등하나 각기 역할과 일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남녀의 지위가 동등함은 ‘꾸란’에서도 명백히 증명된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오늘날 몇몇 이슬람 국가들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일선의 여성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여성 수상 베쿰 칼레다 지아,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그리고 지난 2001년 7월 대통령에 당선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삶·종교 일치하는 종교임을 이해해야

이슬람과 이슬람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이 단순한 신앙체계만이 아니라 종교와 세속 모두를 포괄하는 신앙과 실천의 체계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삶과 종교가 일치하는 독특한 가치관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 협상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항상 이슬람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교분리의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서구인들이나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이슬람권과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양이나 미국의 언론을 통해 이슬람 세계를 접하고 굴절된 서구의 프리즘으로 그들의 사회를 잘못 들여다보는 사례가 많았다.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의 객관적 시각을 갖고 이슬람 사회의 제도, 관습, 종교, 문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볼 수 있는 문화상대주의라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주 화 이맘은?

이맘은 예배인도자라는 뜻이다. 이주화 이맘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국립이슬람대학교 신학대학을 이슬람신학전공으로 졸업하고, 2008년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랍지역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이슬람교중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한국이슬람교 대표이맘(예배인도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㉗ 인도의 불상

옥화사지 석실은 인도와 닮았다



현장 스님이 〈대반야경〉을 역술했던 옥화사지.

구법승과 사신들에 의해 들여온 인도 불상
저물던 인도불교, 중국과 한국에서 꽃피워

불교의 역동적인 흐름은 구법승들의 여행을 통해 더욱 피어났다. 당나라 시대 중국에서 인도로 구법의 길을 떠났던 현장 스님에 관한 재미난 기록이 있다.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경서, 사리와 함께 마가다국(摩揭陀國) 정각산(正覺山) 용굴(龍窟)의 금불상, 바나라시국(婆羅泥斯國) 녹야원(鹿野苑) 초전법륜상(初轉法輪像) 등을 모사한 불상 7종류를 가져왔다. 당시 인도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불상들의 모사본을 가져 온 것이다. 이는 불교의 흐름이 동아시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안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옥화사지가 있다. 이 사지는 당 고조가 건립했던 인지궁(仁智宮)을 정관 20년(646)에 확장한 후 옥화궁이라 했다. 영휘 2년(651)에 궁을 폐하고 옥화사로 개칭했며, 현경 4년(659) 현장 스님이 이곳에 번경원(飜經院)을 설치하고 〈대반야경〉 600권을 역술했다. 현재 옥화사지의 대부분이 복원된 상태이며, 현장기념관이 건립돼 있다. 원래 옥화사지는 발굴 후 유지(遺址)를 정지해둔 상태로 풍화되기는 했지만 유지를 둘러싸고 있는 석실들도 제법 잘 보존돼 있는 상태이다. 이 곳 석실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마치 인도의 사원에 와 있는 느낌이다.

구법승들 외에 사신들의 왕래도 불교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왕현책(王玄策)은 정관 17년(643년)부터 약 20년 동안 인도를 여러 차례 왕래했다. 그의 왕래는 중국·인도간의 외교적 문제만 뿐 아니라 중국에 인도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의 ‘동도사관화벽(東都寺觀畵壁)’에는 이같은 기록이 있다. “경애사(敬愛寺)의 법당에 보리수나무 아래 소조(진흙으로 만든 상)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상이 있다. 인덕(麟德) 2년(665)에 밖으로 내놓았는데, 왕현책이 서역으로부터 그려온 보살상 모습을 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아 왕현책이 인도로부터 가져온 도상들이 당시 얼마나 유행했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인도(印度)라는 단어도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활발했던 문화 교류의 흔적을 살 필 수 있다. 실제로 수·당시대로 접어들면서 불교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인도에는 불교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중국으로 넘어온 불교는 새로운 종파의 시대를 맞았고, 새로운 인도불상 양식의 수입은 불교문화의 세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밀착형 서비스 OK

3월 한달새 부산 불교계복지관 분원 2곳 개소 이어져



4월 5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짜장면데이'.

'불심도시'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관들이 불교수행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4월 5일 관내 식당에서 '사랑의 자장면데이' 행사를 마련해 지역 800여 어르신에게 특별한 점심공양을 대접했다.

복지관은 평소에도 하루 평균 150명 내외의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공양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1년에 3~5차례는 지역 내 중식(中食)봉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자장면, 삼계탕 등의 특식을 제공한다.

양지현 사회복지사는 "현재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는 많은 불자 사회복지사들이,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기관 및 시설을 설립하고,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무료공양 서비스를 하면서 불교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부산사회복지기관협회 회장)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정신적인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해답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다. 복지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대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소양을 기르는 것이 최상의 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 혜원정사 주지) 산하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 스님)은 1일 달리는 이동복지관 '달려라! 영.노.복(영도구노인복지관)'을 개소했다. 영도구에서는 유난히 가파른 경사와 굽은 길이 많아 복지관 왕래가 어려운 경로당 및 홀로어르신들이 많았다. 이동복지관은 이동복지관 담당자 및 물리치료사, 지역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발빠른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게 됐다.

이동복지관은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지원서비스 (물리치료, 활력증후 등 혈압, 체중, 혈당 체크, 건강체조, 무료건강검진 및 교육) △정서지원서비스(정서상담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위생청결지원서비스(이미용서비스, 고운손 손질, 피부마시지, 세탁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이사장 정여, 범어사 주지) 산하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순화) 분관인 '가마실복지센터'가 3월 31일 개관식을 가졌다. 금정구는 유난히 넓은 탓에 전 지역구가 고르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곡동과 서동, 장전동을 아우르는 분관을 개관한 것. 가마실 복지센터 개관으로 금정구 지역민에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지원 기자

한나래문화재단-신라대, MOU 체결
불교국가 교환학생 장학금 전달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과 신라대(총장 정홍섭)는 4월 6일 신라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업무제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현재 신라대에 중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불교국가의 외국인 교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및 숙소, 생활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증대, 상호 국제네트워크 교류 협력, 학술자료 교류 및 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홍법사 신도와 외국인 장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해 신행활동 정보공유 등을 실시한다.

심산 스님은 "종교적 역할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원 기자

석암장학회 제73회 장학금 전달
불자학생 113명에 총 6억원 지급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 내원정사 주지)는 4월 3일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73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정련 스님은 동국대 재학생 12명에게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대한불교석암장학회는 1971년 故석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자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현재까지 40년간 총 73회 동안 1113명의 장학생에게 5억 37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박지원 기자

팔관회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부산불교聯, '고려팔관회 현대적 재조명'

"팔관회는 사찰단위로 거행하기에 어렵다. 고려팔관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당당한 불교문화로 거행되어야 한다."

고려팔관회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前 신라대 총장 법산 스님은 고려팔관회의 문화재 지정을 주장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팔관회는 불교행사에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통문화로서 고려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을 위해 고려대장경을 주도했던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 뜻을 현대에서 재현하고 부흥시켜 세계를 향한 도약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는 4월 7일 벡스코(Bexco)에서 '고려팔관회의 종합적 고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팔관회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계승·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정각 스님(부산시불교련 상임부회장, 일붕선교종정)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안지원 교수가 '고려팔관회의 교리적 배경'을 △신라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배상현 교수가 '고려팔관회의 역사적 전개와 그 추이'를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최영호 전문연구위원이 '팔관회의 국가사회적 영향'을 주제발표했다.

또 前 신라대 총장 법산 스님(원효정사 주지)을 좌장으로 김광철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 최연주 동의대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엄경흠 신라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현재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불교문화엑스포는 불자들의 서원을 다짐하는 팔관재계 수계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연과 학술강연,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작년부터 팔관회를 부산시 규모의 불교문화축제를 넘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광명사, 종합불교회관 낙성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신행활동 전용관

부산지역에 천태불교가 뿌리내리는데 초석이 된 광명사(주지 화산, 삼광사 주지)가 종합불교회관(사진)이 3년 여 불사를 마치고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광명사는 4월 6일 종합불교회관 앞 특설무대에서 대광명전 삼존불 점안 및 종합불교회관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낙성한 종합불교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107㎡(약 1543평) 규모로, 대규모 법회는 물론 신도 교육관과 템플스테이관, 각종 신행활동 전용관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광명사는 1969년 10월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의 한 가정집에서 천태종의 중창조인 상월대조사와 함께 부산신도회 창립법회를 올렸다. 이후 1973년 동래구 장전동에 광명사라는 이름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1986년에는 부산진구 초읍동 백양산 기슭 3만 5000평에 연면적 2만 937㎡(약 6754평)의 대가람 삼광사를 이룩했다.

주지 화산 스님은 "광명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불교회관의 낙성은 부산지역 천태불교에 새로운 획을 그은 불사가 됐다"며 "법음을 갈망하는 이들의 신심과 열성 속에서 종합불교회관 불사를 원만회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부산 반송동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5시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절 마당이 가득 찬다.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도, 봄빛이 내려앉은 뒷산도 천진불들의 맑은 기운에 어깨를 들썩일 정도다. 아이들은 스님을 보고도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부산 반송동 원오사 지주 정관 스님(사진 왼쪽)에게 성큼 다가가 그날의 학교생활을 종알종알 풀어놓는다. 이는 3년 전 부산 반송동 원오사에 '꿈나무공부방'이 들어서면서 생긴 변화다.

"처음 공부방에 왔을 때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다소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기색이 역력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온 도량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인사하고 수업시간에 씩씩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지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제가 고마워합니다."

현재 '꿈나무공부방'에는 중학교 1학년 4명, 2학년 2명 등 총 6명이 공부하고 있다. 2009년 3월 창립 당시 20여 명이었으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 면접과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총 6명의 학생만 '꿈나무공부방'을 최종 합격 시켰다.

공부방은 지역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든솔학교' 졸업을 앞든 초등학교 6학년생의 거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정관 스님과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조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쓸쓸히 방치되던 어린이들이었다. 6학년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규정상 6학년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든솔학교를 자동 졸업해야 했다.

정관 스님은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이던 한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알아가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기 시작했다"며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전교 5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 되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회를 통해 꾸준히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부방 아이들의 꿈은 지나치게 소박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식당이나 슈퍼마켓 주인이거나 없다. 또래 아이들이 대통령, 연예인, 외교관, 과학자, 사업가 등을 꿈꿀 때, 스스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잘 알기에 꿈나래를 펴기도 전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학업 뿐 아니라 인성을 닦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중에는 현직 학원강사들이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가 중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나 봉사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교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수업 전 아이들은 스스로 법당에 올라가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갖춘다. 도량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운력에도 열심이다. 경내에서 마주치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들께도 '보살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넙죽 합장반배를 하는 모습은 이제 어엿한 천진불의 모습이다. (051) 542-7949

박지원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관욕바라, 신중작법봉청39위, 욕건이,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법고춤, 괘불이운
■ 강 주 : 교무국장 성우스님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불교미술학인모집

◐ 교육지표 :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 교육과정(2년제)

1-1	1-2	2-1 2-2
• 불화기초(Ⅰ) 시왕초 등긋기	• 불화기초(Ⅱ) 보살초 등긋기 사천왕초 등긋기	불화 그리기 불화실습(Ⅰ,Ⅱ)
	• 채색 기법	
		• 불교미술이론 병행

■ 단청기법을 응용한 작품활동도 가능
■ 강 주 : 혜경스님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 공통사항
■ 수시모집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종무원(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식을 줄 모르는 결사의 열기

금산사·송광사 등 결의대회 잇따라… 대구·경북지역은 불국사 끝으로 완료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원행)는 4월 7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역사는 민족의 역사이며 불교문화재에는 민족의 삶이 담겨져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우리 전통문화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최근 이웃 일본의 대지진으로 고통 받는 일본 국민들의 구호와 복구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도 7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결의법회를 가졌다. 법회에는 불교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대회사, 격려사, 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이 침해를 받은 전등사의 보고를 담은 대중연설, 결의문 낭독, 선언문, 발원문, 정근이 이어졌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도 7일 경내 대웅전에서 민족문화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정부의 종교편향과 일부 종교의 어리석은 믿음에 굴하지 말고 불교문화의 정통성을 올곧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날 불국사를 마지막으로 고운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등 5개 교구본사의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화엄사도 3일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조직하고 불교계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적극 동참했다. 주지 종삼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제자들은 왜곡된 민족문화정책을 규탄하고, 민족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구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엄사 민족문화수호위원회에는 명선스님(원로의원)을 증명으로 위원장 종삼스님, 부위원장 영관 스님(천은사 주지), 집행위원장 일문 스님(총무국장), 부집행위원장 성문 스님(용문사 주지)이 임명됐고 집행위원은 각 말사 주지 스님과 신도회장이 맡았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화엄사 대중들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가 대웅전 앞에 마련한 장기기증 서약식에 참여해 생명결사의 의미를 살리는 사후 장기기증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종삼 스님과 영관 스님을 필두로 화엄사 본사와 각 말사 스님들은 향후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5대결사 중 생명결사의 구체적 실천에 동참하기로 했다.


금산사는 4월 7일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2일에는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법만)가 민족전통문화 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결의대회를 대웅전보전 앞에서 개최했다.

전통문화 수호와 자성과 쇄신을 염원하는 범종의 타종과 함께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골적인 종교편향과 전통문화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소외되고 불교가 자본을 탐하는 속된 종교로 내비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이성기 공동대표와 최근 사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 성북동 전등사 서삼석 신도회장이 연설에 나서 현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수행환경 파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월정사도 8일 결의대회를 열고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조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로 다진 우애

화순전대병원 봉사자 이 명 옥, 곽 윤 희, 김 현 자 님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우들에게 정신적으로 편암함을 안겨주는 것을 느껴요. 작은 도움이지만, 기뻐하는 환우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 무렵,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삼총사' 이명옥, 곽윤희, 김현자(사진)님을 자비신행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화순전대병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려운 환우가족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환우들에게는 이들이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다.

삼총사의 활동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자비신행회에서 호스피스교육을 시작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 후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봉사를 함께했고, 화순전대병원이 개원하면서 불교법당이 만들어지자 자연스레 호스피스 봉사도 함께하게 됐다.

"처음 현장에 갔을 때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과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아파할 때는 특히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들의 활동은 환자와의 교감이 우선이다. 그 후 발마사지, 전신마사지, 목욕봉사를 기본으로 한다. 3명은 한 팀이다. 서로의 눈을 보면 척하고 통하니 이심전심이다.

아무리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삼총사라 해도 환우들의 목욕시간은 언제나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환자들은 몸에 의료장비가 많이 부착돼 있어 목욕도중에 발생할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인 삼총사를 만났지만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지닌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가 보이는 듯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1빛고을 관등축제 개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가 '빛과 생명으로 함께하는 문화광주'라는 주제로 4월 20일 광주시청과 광주역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6일~8일까지 3일간 광주공원과 광주천 일대에서 '2011 빛고을관등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6~8일 광주천을 다시 찾은 전통 물고기를 형상화한 등과 전통등 전시가 진행되며 빛고을 관등축제 체험관, 길거리 음악회가 마련된다. 또한 6일에는 연등법회와 연등음악회가 광주공원 앞에서 개최되고, 같은 날 저녁 7시부터는 광주공원에서 충장로, 금남로로 이어지는 전통 등 행진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광주천에서 실시되는 전통 물고기등과 전통등 전시다. 이 전시에서는 광주천의 오염으로 광주시민의 문화공간에서 밀려났던 광주천에 토종 물고기가 다시 올라와 헤엄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전통 등으로 만든 토종물고기 100여 점이 선보인다.

광주천 주변에는 문화체험공간을 만들어, 전통 등 체험 공간, 각 신행단체 체험부스,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봉축기획단장을 맡은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은 "이번 축제는 불교만의 행사가 아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민간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불자여러분과 광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광주 시민들, 지역 문화재 멘토 자청

빛고을문화재지킴이사업단(단장 정인서)은 광주지역의 문화재를 가꾸고 모니터링 하는 사업단 출범식을 4월 5일 광주 남구 양림동 '양림동지킴이센터'에서 가졌다.

문화재청과 광주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빛고을문화재지킴이사업단은 올해 광주지역 132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점검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재 활용 및 교육사업을 병행한다.

또 양림동센터는 남구지역의 주요문화재를 소개하고 어린이와 양림동 주민을 위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안내센터 역할도 수행한다.

정인서 빛고을문화재지킴이사업단장은 "센터는 양림동센터에 이어 문화재교육센터, 모니터링센터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의 고유 문화유산들이 후대에 물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전주로터리클럽, 승합차 기증

금산사 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에 11인승 승합차가 새로 마련됐다. 새전주로터리클럽(회장 박찬호)은 4월 7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편리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2900만원 상당의 11인승 승합차를 기증했다.

박찬호 새전주로터리 클럽 회장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응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애인 권익위한 도예전 열려

한국전승도예가 도천 서광윤 도예전 성료

대구 상인동 문수포교도량 주지 효신스님은 4월 6일 오후 대구동아쇼핑 10층 동아미술관에서 '흙 그리고 불과 함께한 외길 40년'을 주제로 한국전승도예가 도천 서광윤 도예전을 개최했다.

12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해 장애인 권익보호기금 마련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효신 스님은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장애우 권익 보호와 이웃돕기를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승도예가 도천 서광윤 씨(서광윤요 대표)는 1970년 전통요장인 지순택요에 입문한 청자·백자 대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근본불교 설법회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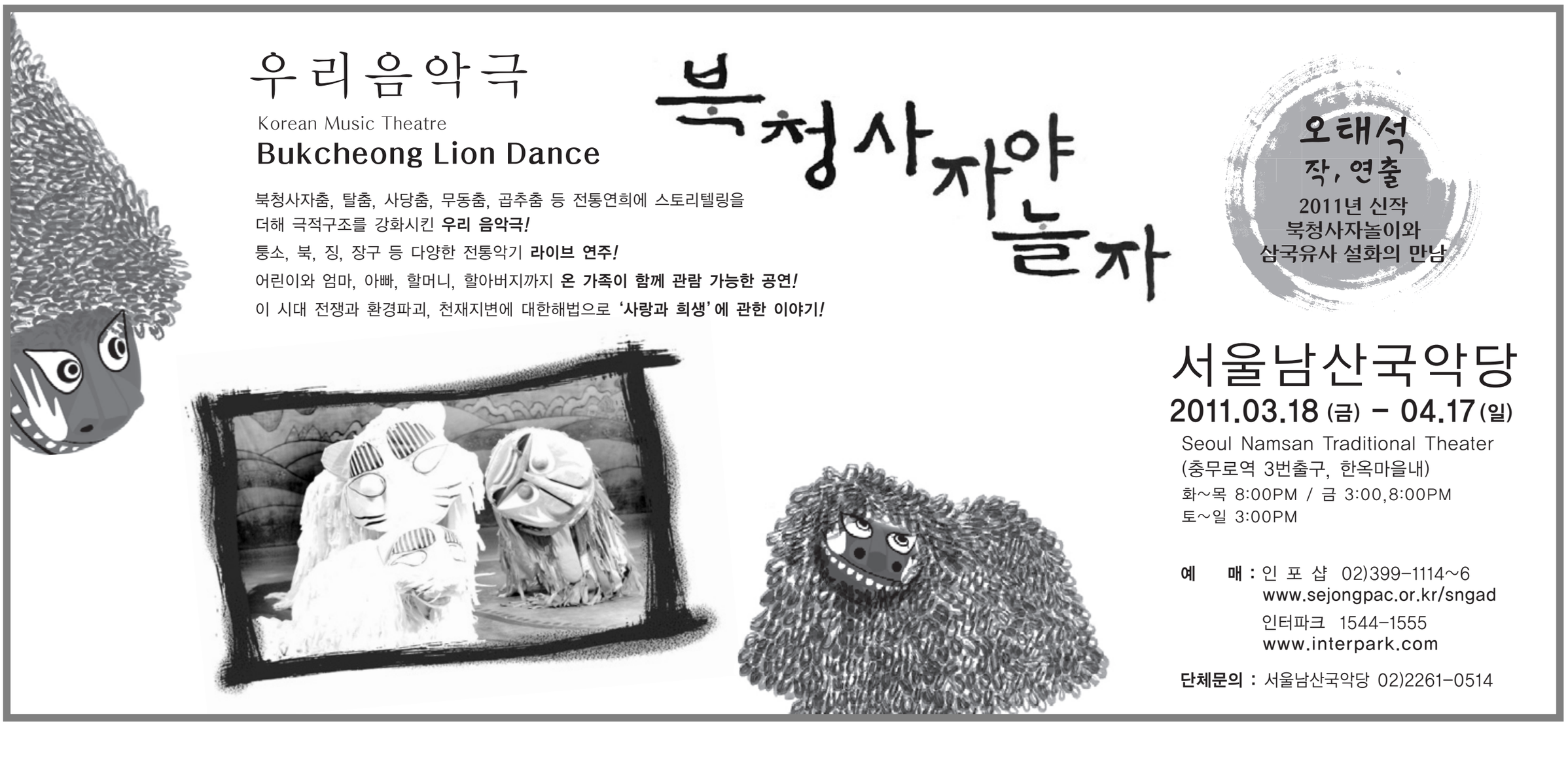
남방불교의 진수를 느끼는 근본불교설법회가 열린다.

한국테라와다불교 원주 해피법당(주지 뿐냐디빠)은 서울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센터와 원주 관설동 해피법당에서 근본불교설법회인 해피법회를 개최한다.

서울 템플스테이센터 3층 보현실에서 5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오후 7~9시, 원주 관설동 해피법당에서 5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열리는 해피법회는 3개 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 무료료 네이버 까페 '해피법당(http://cafe.naver.com/happybupdang)'을 통해서 인터넷 수강도 가능하다. (033)734-4745

노덕현 기자





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②

열등감은 있었으나 의리만큼은 이겼다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친구 김갑헌은 자수 형식으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단다. 그러나 여익구는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고 호쾌하게 웃는다. 지식과 지성 모든 분야에서 김갑헌에게 열등감이 있었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이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평생 우정으로 지내면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당시의 일은 두고두고 회고할 것이다. 우정과 라이벌 사이에서 여익구는 고통과 고뇌를 반복하며 현대사의 엄혹한 시대를 온 몸으로 맞닥뜨린다.

여익구는 민청학련에 연루된 동기로서 친구 김갑헌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미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에서 〈1974년 4월〉(학민사)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 있으며, 2003년 〈유심〉과의 인터뷰에서 여익구는 송호필 시인과의 대담에서 본 내용을 언급했다.

여익구는 1973년 가을 김갑헌과 만났다. 옥스퍼드대 유학이 예정된 김갑헌을 대신해 유신헌법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데모 준비에 가담하게 된다. 동국대 총책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 후 재수하였고, 군입대와 월남 파병에서 돌아와 제대한 후 1년 동안 엔사이클로피디아 외판원 생활도 했던 그였다. 산전수전 겪었다는 표현이 맞아 보인다.

여익구는 유신반대데모를 위한 동국대 총책이 되었다. 처음부터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었다. 여익구는 그것이 순수한 학생운동이었다고 강조한다. 서울대생이나 다른 연락처를 만났을 때는 실명을 쓰지 않고 가명(닉)을 사용했다. 점조직이었다. 이 때 동국대 내부에서 조직을 건설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봉은사 일대의 부지를 팔고, 조계종 총무원이 동국대 혜화관(옛 중앙



가운데가 여익구. 뒤 왼쪽은 故 문익천 목사, 오른쪽은 김근태 前 국회의원.

공무원교육원 건물)에 들어온 것이다. 당시를 회상하며 여익구는 구술한다.

"그 당시에 박경준(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도 뭘 했는데… 그래 민청학련에 소위 동대에 제가 총책을 맡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동대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 하면, 봉은사 땅을 팔고 동대 그 지금 그 역사문화관인가 하는 걸 그 때 샀어요. 근데 봉은사 땅은 정말 너무너무 헐값에 팔았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 동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때야. 고걸 아주 많이 활용을 한 거죠."

비록 같은 내용일지라도 구술이 가지는 생동감은 매우 다르다. 구술사(oral history)는 생존한 사람이 대상이다. 자신의 의지로 개인의 역사를 구술하며, 그것은 또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대변하기도 한다. 자신이 직접 보고 느꼈던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구술함으로써 개인사가 만들어지며, 개인사가 모여 거대한 담론을 이끌어낸다. 담론을 토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나, 또한 그 구술을 시청하는 자의 판단에 의해 이해되고 해석된다.

구전이나 기록에 의거했던 구술 채록 이론과 방법이 최근 미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미디어 발달에 따른 녹음기, 동영상 카메라의 보급으로 구술자의 생생한 기억을 담을 수 있다. 더욱이 카메라 촬영은 목소리와 표정, 몸짓을 저장시키고, 이를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저장고인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란과 사건에 따른 민초들, 혹은 농부나 산골촌로의 삶 등 역사의 뒤안길에 있던 민중들의 목소리를 녹취했다. 그러나 명망가 중심의 구술이 없었다는 역차별의 발상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유명 인사들의 구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화려한 역사의 뒷면에 감춰진 에피소드들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역사 기록과정을 시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적잖은 흥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명망가 중심의 구술은 2009년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정치분야(명지대), 경제외교분야(외대), 군사분야(서울대), 종교분야(동국대 · 한신대)에서 유명 인사들의 구술을 촬영중이다.

불교분야는 여익구뿐만 아니라, 묘엄 스님, 전재성, 최연, 진관 스님 등 통해 현대사를 조망하고자 한다.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2 – 이해하고 내려놓기(下)

진정한 행복은 '팔정도' 수행을 해야 얻어진다

팔정도의 실천은 곧 불교수행이다. 이는 법구경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현하신 일곱 붓다께서 공통으로 설하신 다음의 게송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諸惡莫作(모든 악을 짓지 말고) 衆善奉行(많은 선을 받들어 행하라.)
自淨其意(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是諸佛敎(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한 마음을 계발하여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특히 가장 고질적인 어리석음과 탐욕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것이다.

결국 불교수행은 간단히 말하면 어리석음과 탐욕을 '내려놓기'이다. 이를 '방하착(放下着)'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첫째,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들이 행복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고 깊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깊은 이해를 통해서 즉시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한다.

'이해하기' 없이 '내려놓기'를 한다면 불선한 마음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밖에 나가서 뛰어 놀고 싶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집에 있는 것과 같아서 부모님이 외출을 하자마자 즉시 나가서 놀게 될 것이다.

둘째, '내려놓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알아차림과 지혜, 자비 등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계발하여 어리석음과 탐욕, 성냄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내려놓기'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마음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불교수행은 한마디로 팔정도이고 이를 간단히 말하면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고 내려놓기'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고 열반을 깨닫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불선한 마음으로 생긴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은 고요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팔정도의 실천, 즉 '이해하고 내려놓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②

반평생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선지식

경봉 스님(1892~1982)은 조선이 몰락해가는 막바지 시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족상잔, 군사쿠테타 등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다 가신분이다. 스님은 반평생은 일제 강점기로, 반평생은 해방 후 같은 민족끼리 이념문제로 편이 나뉘던 아픔을 고스란히 체험해야 했다.

1890년대 조선은 강대국들(영국, 러시아, 청, 일본)의 제국주의가 막바지 기성을 부리던 때였다. 1894년 탐관오리의 횡포와 외국세력의 침략으로 조선의 농민들이 힘들어 하던 즈음, 나라를 튼튼케 하고 백성을 편안히 보살핀다는 '보국안민'의 기치로 동학농민운동인 갑오경장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다급해진 정부는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되고, 청과 일본은 조선에 상륙했다. 일본은 청의 군대와 고종 임금을 총칼로 위협해 서울을 손아귀에 넣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까지 세력을 넓히자 3국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제지를 해 요동반도를 돌려준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과 친일개화파를 내쫓고 왕권의 회복을 꾀하려 대신들이 일본에게 나라의 외교권을 넘긴 을사조약이 이뤄진다. 러일전쟁 중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사실을 뒤에 알게 된 정부는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 항의했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기에 철회조치를 하지 못했다. 해방후 독도는 다시 우리 땅으로 되었지만 일본은 틈날 때마다 일본 땅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1910년 일제 통치하로 넘어가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걸리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무단통치하게 된다. 전국적인 대규모 저항인 1919년 3월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 이후 일제는 허울에 지나지 않은 문화통치를 내세웠다. 일제는 만세 시위를 진압하기위해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그대로 국민의 설움으로 일제치하의 세월을 견뎌야 했고, 독립을 향한 노력은 계속 진행형이었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조선 몰락기·일본 강점기·분단과 한국전쟁 등
경봉 스님은 상처입은 백성 어루만져준 산부처

다 1895년 일본에 의한 민비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난다. 명성황후를 암살한 일본은 개화파 정권을 앞세워 사사건건 조선의 국정을 간섭했다. 이런 간섭에 못이겨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이뤄졌는데, 이 때 여러 나라들이 이권을 챙기고 있었다.

자주근대화에 대한 노력은 진행되어 독립문 건립과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로 된 독립신문 발행 등이 있었다.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갖고 국명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였다. 그 후 정부는 개혁을 통해 서울 시내에 전차가 다니고 경인선 철도가 놓여 철도 시대가 열리기도 했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렸고, 러시아와 일본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905년 고종황제를 무시하고 몇몇 한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또다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결국 1950년 6.25 전쟁으로 수많은 이산가족과 사상자가 발생했다. 4 · 19혁명과 5 · 16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탄생되어 새마을 운동과 70년대 눈부신 경제발전과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오늘날 수혜를 받던 국가에서 수혜를 주는 국가로 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역사를 한 몸에 담아야 했던 경봉 스님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불법(佛法)으로 어루만져 준 시대의 살아있는 부처였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7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북한산(삼각산) 적멸보궁 노적사 (전통사찰 201호)

노적사 청년회 재창립 발기 및 회원 모집

청년 불자를 키워야 불교가 발전합니다.
불교의 중흥을 위한 제일 첫 걸음은 인재불사입니다.
젊은 불자들의 소통과 신행을 위해 노적사 청년회를 재 창립 합니다.
많은 청년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라오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약속 드립니다.

노적사 주지 종후 합장

문의 : 주지실 02)353-4924 / 대표 02)353-5016 / 팩스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철판 위 오색 꽃지짐이의 향연

"아이고~ 아가씨, 기름을 더 둘러야 눌러붙지 않아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안내한 곳은 공양간 옆 툇마루. 프라이팬 하나에 6명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알록달록 화전(花煎)을 붙이고 있다. 지글지글 화전 굽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에 빈속이 요동친다.

병풍같이 드리운 달마산 아래 미황사에서 향긋하면서도 쫀득한 화전 맛은 긴 여정의 피로, 도시생활에서 느끼던 피곤함도 순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은 4월 2일 '봄맞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을 만드는 봄맞이 특별 템플스테이였다. 워낙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유난히 외국인이 눈에 띄었다. 외국인참가자 7명을 포함한 30여 명이 함께한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진달래, 동백꽃 등 봄꽃을 따는 일부터 시작됐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육감을 자극했다. 눈으로 색을 보고, 찹쌀 반죽을 손으로 빚으면서 촉감을 느끼고, 기름을 두른 철판 위에 지글지글 굽는 소리까지. 맛있는 냄새를 함께 맡고, 맛을 음미한다. 그리고 화전을 구우며 마음을 나누는 일까지 함께한 이들은 오랜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처럼 즐거워했다.

외국인들은 둥그러야 한다는 화전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한글 '미황사', 자동차, 기린 등 아이디어도 다양했다. 참가자 중 가장 어린 유재혁(9)군도 애벌레, 고양이를 만들면서 화전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화전을 만들고 난 뒤에는 사찰예절 교육, 저녁 공양, 저녁 예불, 다담(茶談)이 이어졌다.

사찰예절 교육시간에 '삼배'의 의미와 방법을 배우고 나서야 언제 절하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서 곁눈질만 하던 이들도 제법 그럴싸하게 절을 하게 됐다. 저녁 예불을 마치자 미황사에는 벌써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정갈하게 놓인 다구 앞에 참가자들은 길게 두 줄로 마주 앉았다. 괘종시계는 겨우 저녁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너무 고요해서 한 밤중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여러분 또한 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는 꽃과 꽃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황사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돼 온 수행의 향기가 대웅전에도 산책길에도 남아있습니다. 수행의 향기가 있는 이곳에서 봄맞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게 됐습니다. 봄맞이의 여흥도 즐기시는 지난날을 뒤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말씀이다.

"꽃을 딴다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해 한 꽃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 전에 나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직한 스님의 말씀이 잔잔한 감동으켰다.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

외국인도 어린이도 한마음으로

자동차, 기린, 애벌레, 고양이

자는 마음 깊은 곳에 잊고 있던 소중한우는 시간이 됐다고 했다. 스님이 직접주신 작은 청매화 한 송이는 사람들의매울 만큼 진한 향기가 났다.

이어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왔다는 한 여성 참가자는 "템플스테이니 미황사가 제일 먼저 나오기에 신청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㉙

법구(法具)의 종류(2) 법고(法鼓)·운판·목어·백추·경(磬)

법종·법고 모두 치면 대환영 뜻



선암사 스님이 저녁예불을 알리는 법고를 두드리고 있다.

선의 세계는 언어문자의 강 저편에 있다. 닿을 듯 그러나 어렵다. 그래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한다.

범종(梵鐘)이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라면, 법고(法鼓)는 축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이다. 운판(雲版)은 날아다니는 짐승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이고, 목어(木魚)는 물속의 어류들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이다.

북을 선종사원에서는 '법고(法鼓)'라고 한다. '법고'라고 부르는 것은 세속의 북과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더불어 사원에서 울리는 북소리는 단순한 북소리가 아니라, '법음(法音)을 전하는 소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법고는 산문과 불전 사이의 우측에 있는 고루(鼓樓)에 걸어 두고 친다. 법고는 대중을 집결시킬 때, 법요식 등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상당법어(上堂法語)와 조참(早參, 아침 법문), 만참(晩參, 저녁 법문) 등 소참(小參, 수시설법)과 보설(普說, 대중 법문), 입실(入室, 독참, 개별적인 지도), 공양 등이 있을 때 친다. 항상 대종(大鐘, 범종)과 함께 치며, 순서는 대종 다음이다.

또 법당(설법장) 내에도 법고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설법 할 때에 쓰는 북(법고)으로서 법당 동북쪽 모서리에 두고, 하나는 차 마실 때 치는 북, 곧 다고(茶鼓)로서 법당 서북쪽 모서리에 둔다.

주지(방장)의 정식 법문인 상당법어가 있을 때는 마치 드럼 치듯 강약(強弱)을 주어가면서 모두 3회를 치는데, 그 방법은 각 회마다 조금씩 다르다. 첫 회는 좀 오래 치고 다음은 조금 짧게 치는데, 주지(방장)가 법당에 당도해 법좌에 오르면 잠시 멈추었다가 두 손에 각각 북채를 쥐고 크게 세 번 연타(連打)한다. 소참 때는 1회만 치고, 보설 때는 그냥 천천히 '쿵' '쿵' 다섯 번 치고, 입실 때도 '쿵' '쿵' 세 번을 친다.

다고(茶鼓)는 총림의 조사(祖師) 기일(忌日)에 다례(茶禮)를 올릴 때, 또는 모든 대중이 차를 마실 때 치는데, 한 차례(1회) 치고 점심 공양을 알리는 재고(齋鼓)는 상당법어 때처럼 3회를 친다. 울력이 있음을 알리는 보청고(普請鼓)는 1회, 목욕을 알리는 욕고(浴鼓)는 4회 친다. 새벽에 치는 북을 통칭해서 '신고(晨鼓)'라 하고, 저녁에 치는 북을 '혼고(昏鼓)'라고 한다. 법고는 범종과 함께 하루의 일과를 알리기 위한 도구이다.

운판(雲板, 雲版)은 선종사원에서 고원(庫院, 주방)이나 재당(齋堂, 주방 겸 식당) 앞에 걸어 놓고 공양 때가 되었음을 알릴 때 치는 도구이다. 청동(靑銅)으로 된 판인데, 구름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운판'이라고 한다. 또 판(板)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여 '대판(大板)'이라고도 한다. 재당에서 불을 지필 때 신호로 3번 친다고 하여 '화판(火板)'이라고도 하며 공양 때 길게 3회 친다고 하여 '장판(長板)'이라도 한다.

고원이나 재당에서 운판 소리가 나면 종과 북을 친다. 또 승당에서는 재당에서 운판 소리가 나면 비로소 좌선을 마친다[放禪]. 주방이나 식당은 청결이 우선이므로 모든 신호는 말보다는 운판으로 한다. 운판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3척(90센티 가량) 쯤 된다.

운판 외에도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방장판은 방장실 앞에 걸어두고 치는 판이고, 수좌료판은 수좌실에서 치는 판이며, 중료(衆寮, 큰 방, 대중방)에는 전판(前板), 외판(外板), 내판(內板), 중소판(中小板) 등 무려 4개나 있다. 목판(木板)도 각 당우마다 있다. 당우의 목판은 주로 당주(堂主)나 빈객이 시자들을 부를 때 친다. 소소한 신호는 모두 목판으로 한다. 우리나라 운판 중 유명한 것은 남해 용문사 운판과 국립박물관 소장 쌍용문 운판 등이다.

운판의 모양도 선종 5가(五家)마다 각각 다르다. 임제종에서 사용하는 운판은 횡장방형(橫長方形, 가로 직사각형)이고, 조동종은 수장방형(竪長方形, 세로 직사각형), 법안종은 정(正)삼각형, 위앙종은 하반원형(下半圓形, 아래 부분 반만 원형), 운문종은 원형이다. 치는 때와 치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목어(木魚) 역시 선종사원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법구 가운데 하나이다. '어고(魚鼓)' '어판(魚板)'이라고도 하며, '방(梆)' '어방(魚梆)'이라고도 하는데, 고원이나 재당에 달아 두고 공양을 알릴 때 치는데 운판 다음에 친다. 모양은 나무를 깎아 물고기처럼 만든 다음 배 부분을 파내어 두 개의 나무막대기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 〈백장청규(百丈淸規)〉 주(註)에 따르면, 물고기가 항상 밤이나 낮이나 눈을 뜨고 있는 것과 같이, 수행자 역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상징한다. 〈무상비요(無上秘要)〉에서는 "목어(木魚)의 맑은 소리는 속세 사람들을 일깨워 깨닫게 한다"라고 했다. 목탁(木鐸)은 고기처럼 생긴 큰 목어를 축소시켜서 둥글게 만든 것이다. 목탁은 주로 불전(대웅전)이나 각 전각에서 기도·염불·독경할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도량석, 공양, 울력이 있을 때 그리고 대중을 집합시킬 때 목탁을 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종(鐘)과 북, 경(磬, 磬子)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목탁을 많이 사용한다.

목탁(木鐸)은 목어(木魚)에서 변형된 법구이다. 그래서 목탁 표면에 물고기를 조각하는데 우리나라 목탁에는 없다. 목탁의 종류는 포단(蒲團, 방석) 위에 놓고 치는 큰 목탁과 직접 들고 치는 작은 목탁이 있다. 또한 큰 목탁에는 매달아 놓고 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중을 모으거나 공양할 때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된다. 포단 위에 놓고 치는 것은 불전(대웅전)에서 염불·예불·염송(念誦)·독경 시에 사용한다. 오른 손으로는 목탁을 치고, 왼손으로는 경전이나 염불문을 넘긴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포단 위에 얹어 놓고 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든 작든 모두 손에 들고 친다.

백추(白椎, 白鎚, 白槌)의 백(白)은 '알리다' '고하다'는 뜻이고 '추(椎)'는 '방망이로 치다'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법구이다. 주로 법회가 곧 시작됨을 알리는데 사용하며, 그 의미는 '조용히 해 달라' '시선을 집중해 달라'는 뜻이다. 사회자가 치기 때문에 사회봉 역할도 한다. 주로 선원총림에서 행사가 있거나 주지의 법어, 새로 주지에 선출·임명돼 진산식(취임식) 후 처음 개당 설법을 할 때 사회자가 이 추(椎)를 친다. 사회자가 추를 친 다음 개식(開式) 멘트를 하며 그를 '백추사(白椎師)'라고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자 곧 백추사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백추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송대 특히 남송시대의 대표적인 선승으로는 묵조선을 제창했던 천동사의 굉지정각(1091~1157)과 간화선을 제창했던 대혜종고(1089~1163)가 있다. 두 선승은 개인적으로는 지기(知己)였지만, 사상적으로는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이즈음 대혜 선사는 금나라에 대한 주전파로 몰려 장구성과 함께 형주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그는 귀양 15년 동안에도 묵조선에 대한 비판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묵조사선(默照邪禪, 묵조선은 삿된 선이다)' '고목사회선(枯木死灰禪, 고목처럼 죽은 선이다)'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묵조선은 올바른 선이 아니라는 것이 대혜 종고의 견해였다. 53세에 시작된 귀양살이는 15년만인 68세에 끝난다. 만년을 거의 귀양지에서 보낸 셈인데, 이 기간 동안 그는 〈정법안장〉 〈대혜서장〉 등 명저를 남긴다.

한편 그는 귀양살이에서 풀려남과 동시에 남송 5산 가운데 제4위인 아육왕사 주지(방장)에 임명된다. 이때 굉지정각은 나이 70세로, 남송 최고의 선승이 되어 천동사 방장으로 있었다. 대혜 선사는 장고(長考) 끝에 그에게 자신의 진산식(취임식)에 백추사(白椎師, 사회자)가 되어 줄 것을 청탁한다. 보통 주지 취임식에서 백추사는 그 지역 고승에게 의뢰하는 것이 상례이기는 했지만, 굉지정각에게 의뢰한 것은 뜻밖이었다. 아육왕사와 천동사는 걸어서 두 세 시간 거리. 굉지 정각은 노구를 이끌고 대혜 종고의 취임식에서 백추를 잡았다. 이날 참석한 불자는 약 만 명, 천동사에선 많은 식량을 아육왕사로 보냈다고 한다.

추(椎)를 추침(椎砧)이라고 한다. 추(椎)는 의사봉처럼 생긴 방망이이고, 침(砧)은 높이 3, 4척(尺, 약 1미터 가량)되는 팔각형의 기둥인데, 그 위를 추(椎)로 친다. 선원에서 주로 설법 등 법요식을 시작할 때 치는 도구로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한다. 추를 치면 대중들은 정숙한 자세로 전면을 주시한다. 인도의 '건추(犍椎)'와 같다고 보면 된다.

경(磬)은 '경자(磬子)'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 일본의 총림에서는 목탁 못지않게 사용한다. 주로 독경, 예불, 염송(念誦)할 때 운율을 맞추기 위해 친다. 소재는 동(銅)으로 그 소리가 범종 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섬세하다. 마치 천상을 연상할 정도이다. 크기와 모양은 우리나라의 작은 물동이와 비슷한데, 헝겊을 싼 방망이로 독경 소리에 맞추어 살살 친다.

경쇠는 경(磬)의 일종인데 경보다는 훨씬 작은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불을 올릴 때, 또는 대중의 일어서고 앉고 절하는 행위를 인도하기 위해 치는 법구이다. 원래 중국의 악기였지만 불교로 수용되면서 의식법구(儀式法具)로 사용되었다. 경쇠를 칠 때는 목탁을 치지 않는다. 놋쇠로 주발처럼 만든 것인데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자루를 달고 노루 뿔 같은 것으로 쳐서 울린다.

총림의 모든 명기(鳴器, 치는 기물)는 기강 담당인 유나가 관장한다. 명기(鳴器)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이고 대중은 그 신호는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임 주지가 취임하기 위해 산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입원(入院)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총림에 있는 모든 명기를 일시에 울린다. 범종, 법고는 물론이고 각종 판(板)과 목어 등도 모두 친다, 대환영의 뜻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법고, 상단법어 때 강약 조절하며 3회

운판 모양, 선종 5가마다 제각각 특색

中·日, 목탁 대신 종·북·경 주로 이용

신임 주지 취임 때 모든 명기 울려 환영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8-10 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봄이 이만큼 왔다고 느끼는 순간 봄날은 간다

❺ 삼척 신흥사(新興寺)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풍경소리조차 없었다. 산사의 풍경소리를 녹음하러 왔던 라디오 PD 은수와 녹음기사 상우는 풍경소리를 녹음할 수 없게 되자 산사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새벽녘, 풍경이 울리기 시작한다. 풍경소리에 눈을 뜬 은수가 문을 열어보니 소리 없이 눈송이가 날리고 대웅전 앞에는 상우가 커다란 마이크를 세워놓고 녹음을 하고 있다. 은수는 댓돌 옆에 앉은 상우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는다. 은수와 상우는 나란히 앉아 눈송이를 따라 날리는 풍경소리를 듣는다. 사랑의 테마가 흐른다. 2001년 개봉됐던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은수(이영애 분)와 상우(유지태 분)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다. 신흥사 대웅전 앞에서.

신흥사는 신라 말 범일 스님이 838년(민애왕 1)에 동해시 지흥동에 지은 지흥사(池興寺)가 시작이다.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던 지흥사는 1674년(현종 15)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광운사(廣雲寺)와 운흥사(雲興寺)로 불리다가 1770년(영조 46)에 절이 모두 불에 탔다. 1821년(순조 21)에 삼척부사 이헌규가 시주하여 중창하고 신흥사가 됐다.

얼마 전 남쪽에 갔을 땐 꽃들이 많이 피어있었으나 신흥사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늙은 죽담장 뒤로 홍매화 그늘이 겨우 부풀어 있을 뿐이다. 바람이 대숲을 건너왔다. 파도처럼 밀려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대숲의 바람소리가 마당으로 밀려왔다 밀려갈 때마다 풍경이 울었다. 풍경소리가 멈추면 산새들이 울었다. 숲은 봄을 품고 있었다.

은수와 상우는 어느 봄날 이별을 한다. 한 사람은 이별을 말하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선다. 대웅전 추녀 끝에서 풍경이 울었다. 은수와 상우가 나란히 풍경소리를 듣던 모습이 떠올랐다. 대숲의 바람소리가 잔잔해지고 풍경소리가 멈추자 숲을 나온 산새 한 마리가 삼성각으로 날아들었다. 삼성각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을까. 산새는 닫힌 문살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산신께 할 말이 있었을까. 나반존자를 만나고 싶었을까. 마당으로 대숲소리가 다시 밀려오고 삼성각의 풍경이 울었다. 문살에 매달렸던 산새는 풍경소리 입에 물고 숲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면 홍매화 그늘도 촘촘해지고, 신흥사에도 완연한 봄이 올 것이다. 사랑을 하고 싶다면 봄이 오고 있는 신흥사에 가 볼 일이다. 대웅전 앞에 앉아 풍경소리를 들어볼 일이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랑이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다. 사랑이 시작됐다면 봄이 완연한 신흥사에 가 볼 일이다. 가는 봄날의 뒷모습을 봐 둘 일이다. 봄이 이만큼 왔다고 느낄 때 봄날은 가듯이, 사랑이 이만큼 왔다고 느낄 때 사랑이 떠나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7



순례행은 정신적 탈출구

호넨의 지은원, 에사이의 건인사, 신란의 본원사, 도겐의 영평사, 니치렌의 구원사, 잇펜의 청정광사 등 종파불교의 사찰들은 중세에까지 독립된 사찰들로 기능했다. 17세기 초반에는 토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에도 막부의 성립과 함께 사찰의 통제책인 본말사 제도의 성립으로 인해 수많은 말사를 거느린 대본산으로서 신도들의 신앙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일본의 성지와 순례는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불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는 애환서린 민중의 신앙을 통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불교가 유입된 후, 고대의 순례는 수도와 가까운 영장 사찰을 중심으로 왕족과 귀족들이 순례에 나섰으며, 중세 이후에는 불교의 토착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순례가 정착된 것이다.

영장사찰의 신앙도 불보살을 참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관음신앙이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주로 혼슈와 큐슈, 시코쿠 일대에 걸쳐있는 관음 영장사찰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순례의 목적은 현세의 이익과 사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일기 시작한 관음신앙은 10세기 무렵 쿄토를 중심으로 킨키(近畿) 지역의 관음사찰을 순례하는 형태로 나타나 사이코쿠(西國), 오슈(奧州), 반도(坂東), 에치고(越後), 츠가루(津輕)의 33관음 영장 순례가 16세기까지 발전해 현재에도 성황 중이다.

성지와 순례로 치료·치유 기능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처럼 홍법 대사에 대한 신앙을 통로로 한 순례로 시코쿠 88개소 영장이 그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시코쿠를 모본으로 하여 치타 신시코쿠(知多新四國), 사사구리 시코쿠(篠栗四國) 88개소 영장 순례 등이 생겨났다. 야마토 북부(大和北部) 88개소 영장순례는 홍법대사가 고야산에서 열반에 들지 않고 여전히 입정상태로 생존하신다는 유신입정설(留身入定說)에 기원하여 민간순례로 확산된 것이다. 또한 사자(死者) 공양을 위한 순례는 물론, 정치 · 경제의 중심지였던 아이치 현이나 쿄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12지나 7복신 등 기복을 위한 민간신앙 순례들도 있다.

7가지 복을 가져다주는 에비수(惠比須), 다이코쿠텐(大黑天), 비샤몬텐(毘沙門天), 벤자이텐(辯才天), 후쿠로쿠쥬(福祿壽), 쥬로진(壽老人), 호테(布袋)의 7복신은 수천 만 명이 참가하는 사찰이나 신사의 정월 초 하츠모우데(初詣で)에서 다양한 부적과 점복으로 미래의 운명을 관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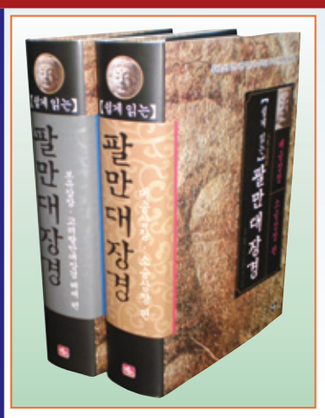
일상의 신앙이자 생활종교인 일본의 순례 문화는 근세 이후에는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며, 특히 전환기에 두각을 나타낸다. 순례부흥이 일어난 에도(江戶) 시대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안정된 종교사회적 정신상황을, 메이지(明治) 유신을 거친 20세기 초에는 종교성의 재정립을, 전후(戰後)에서 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현대인의 정신적 갈등과 종교적 심성의 부활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로 올수록 사회구조의 고착에 의한 폐쇄된 시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정신적 탈출구로써 각광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체를 활용하는 순례행은 그 고단함을 무릅쓰고 인간성의 시원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이자 이성으로 무장된 육체와 정신의 해방은 물론 치료와 치유의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쉽게 건너기엔 너무 크고 깊었던 대하(大河) 팔만대장경!

쉽게 읽는 팔만대장경



2011 최신간/ 유종문 편/ 양장본/ 전2권(1권 : 대승삼장 · 소승삼장 편, 2권 : 보유잡장 · 팔만대장경해제 편)/ 총1,740여쪽/

출간홍보 직판보급가 79,000원 [정가 96,000원(각권 48,000원)]

쉽고 아담한 단장으로 마침내 대중 속에 부활!

방대한 기존 출판본들을 총체적으로 비교 · 분석 · 고찰, 장단점을 살리고 보완해 8만4천 법보에 녹아 있는 무궁의 지혜와 이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면밀히 정제하고 풀어 불멸의 정신 팔만대장경의 경이로움을 흠결 없이 쉽게 섭렵토록 재연해냄으로써 생활 속 성찰과 깨우침을 촉발케한 우리시대에 얻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 역작!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1537개의 경을 전부 수록하였고, 알기 쉽게 내용을 풀어 독자들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법화 스님(적조사 주지)–

각 집안내력을 한눈에!!

한국성씨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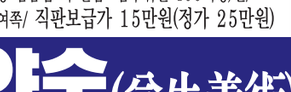
현존하는 총 259성(姓)과 1,000여 본관별 시조 및 유래, 세계(世系), 항렬, 인구분포, 인물, 유적 등에 이르는 혈연 인맥사 전반을 한글체제를 병행하여 개정 · 보완 집대성, 나와 우리 정체성의 혈연적 근거는 물론 장구한 씨줄 날줄상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 민족 성씨대백과 완결판!

한국성씨족보편찬위원회(위원장 염남섭 외 편집 · 감수위원 400여명)편/ 4×6배판/ 전2권/ 총2,400여쪽/ 직판보급가 15만원(정가 25만원)

익생양술(益生養術)

주요 신문 / 방송사 특집보도!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 나왔다 ...고집 센 노인의 50여년 정성과 집념이 동양 약초 대전으로 빛을 보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통 민간요법을 집대성한 '익생양술'이 그것이다. 저자인 권혁세71 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씨는 해방 전후 선친과 이정호 성공회 신부에게서 신기한 약초 처방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평생 전국을 찾아다니며 4만여 가지의 민간요법을 수집하고 이를 빠짐없이 기록했다...(하략)" – 중앙일보 2007.08.28 –



KBS 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2부 (2007. 10. 16)

"익생양술, 2만 가지 민간요법 공개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 일간스포츠 2007. 07.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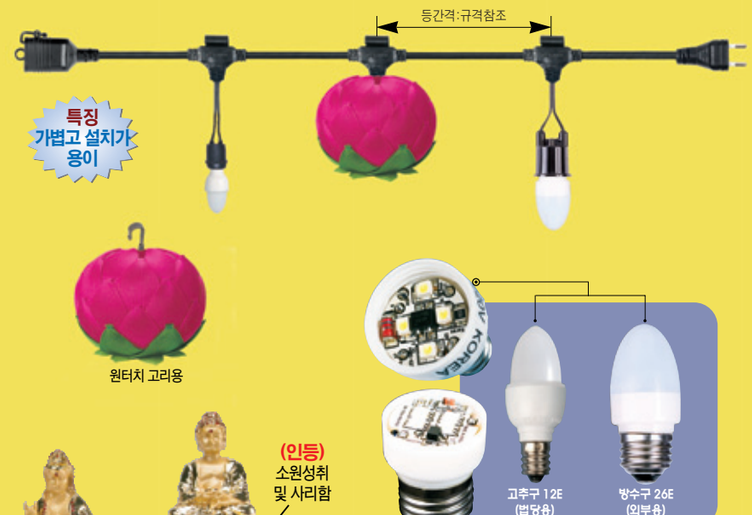
MBC TV 9시 뉴스데스크 (2007. 09. 21)

1,000여종 약용 동식물의 생태 및 약리적 특성, 사용방법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한 엄선된 2만여 가지 전통요법 및 각종 양생법(주침(약술)요법, 탕전요법, 약차요법, 식이요법 등)을 체계적으로 총집대성,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년 지혜와 연구노력의 집약판이자 각종 치료법 및 신약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저(大著). 전4권[1권: 약초 편, 2권(상 · 하): 처방 편, 3권: 조제 편]/ 권혁세 편저/ 5×7배판/ 총3,800쪽/ 나무 케이스자/ 잔여분 할인공급 55만원(정가 100만원)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후 송금하시면 됨. 알라딘, 인터파크에서도 판매 중. 주문 : T.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평상의 이 마음은 언어도단의 마음, 이것이 도(道)


마조 대사가 열반한 보봉사에서는 지금도 재가불자들이 법복을 입고 예불을 한다.

보봉사 ①

산문인 패방 중앙에 마조도량(馬祖道場)이란 금색 글씨가 순례자 일행을 반기는 것 같다. 남악 형산 마경대에서 출발한 순례가 마침내 눈부신 회향의 계단에 오른 느낌이다. 마조 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복엄사 마경대에서 1차 순례를 시작하여 몇 달 만에 다시 중국 땅을 밟은 2차 순례의 대단원에서 마조 대사가 열반했던 보봉사(寶峰寺)에 와 있기 때문이다.

산문 양 벽에는 즉심시불 비심비불(即心是佛, 非心非佛)이란 법어(法語)가 오석에 새겨져 있다. 즉심시불의 공안에 얽힌 낯익은 선화 하나가 떠오른다. 마조 대사의 제자인 대매 법상의 선화다. 대매 스님은 호북성 양양현 사람으로 절강성 명주에서 살았는데, 형주 옥천사로 출가하여 득도했다고 한다. 이후 대매 스님은 수많은 경전을 본 뒤 경론을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으나 스스로 위화감에 깊이 번민하다가 드디어 도를 찾아 만행에 나섰다가 마조 선사를 참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조 대사를 만난 대매의 첫 물음은 이것이었다.

"설령 비심비불이라 해도 나는 즉심시불일 뿐이네."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대매가 당돌하게 다시 물었다.

"그것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빈틈없이 지켜나가야 한다."

경론에 해박한 대매는 주저하지 않고 또 물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또한 그것이다!"

"달마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지."

"그럼 달마에게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부족한 것 아무 것도 없는 그 마음을 간파하게!"

비로소 대매는 크게 깨닫게 된다. 더 물을 게 없어졌다. 대매는 석장을 짚어가며 구름이 걸려 있는 대매산을 올라갔다. 그런 뒤 두 번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뒷날 염관화상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주장자로 쓸 나무를 찾아 대매산을 올랐다가 길을 잃게 되었는데, 마침 그 스님이 풀옷을 입은 산사람을 만났다. 꽁지머리를 한 그 산사람은 너와지붕의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산사람이 말했다.

"나도 마조 스님을 뵌 적이 있소."

이에 길을 잃은 스님이 물었다.

"여기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몇 년이나 됐을까, 사방의 산이 푸르렀다가 노래지고, 다시 푸르렀다가 노래지는 것만을 보았소. 이럭저럭 한 30년은 됐을 거요."

"마조 대사 회상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마음이 곧 부처(即心是佛)!"

길을 잃은 스님이 길을 묻자, 대매는 골짜기의 물을 따라 가라고 가르쳐 주었다. 무사히 돌아온 그 스님이 염관에게 전후 사정을 다 고했다. 그러자 염관이 말했다.

"내 기억으로는 강서에 있을 때 어떤 중이 마조 스님께 불법과 조사의 뜻을 물은 적이 있었지. 그때 마조 스님께서 '자네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30여 년 동안 그 중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 아마도 그 중일 것이야."

그런 뒤 염관은 대중 가운데서 몇 사람을 불러놓고 그를 찾아가 만나게 되면 '마조 스님은 요즘은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윽고 대중 스님들이 대매를 찾아가 염관이 일러준 대로 말했다. 그러자 대매가 말했다.

"설령 비심비불이라 해도 나는 즉심시불일 뿐이네."

이야기를 전해들은 염관이 탄복하여 말했다.

"서산의 매실이 잘 익었군! 너희들은 이제 그리로 가서 마음대로 따먹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연유로 하여 대매를 찾는 대중이 2, 3년도 안 되어 수백 명에 이르렀다는 것이 즉심시불 비심비불에 얽힌 선화다.

대웅보전 앞뜰에 분홍빛 박태기꽃이 환하게 불을 켜고 있다. 내 산방의 박태기꽃은 아직도 꽃눈이 감겨 있는데, 보봉사가 자리한 정안현 보봉향 석문산은 봄꽃들이 만개해 있다. 자목련은 꽃봉오리가 부풀어 있고, 새들의 혓바닥 같은 금목서 은목서 새잎들은 만화방창이다. 어느 자리이건 봄은 우리 마음에도 물기가 돌게 하여 신심의 새싹을 돋게 한다.

모래처럼 꾸미지 말고 도를 따로 구하지 말라

보봉사도 상전(桑田)이 벽해(碧海)로 바뀐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중창불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절의 규모가 놀랄 정도로 달라진 모양이다. 수불 스님이 옛 보봉사를 떠올리며 회상에 잠긴다.

"90년대 초쯤에 보봉사를 처음 들른 것 같습니다. 한 15년 이상 흐른 것 같네요. 참배하러 온 그때가 여름이었을 겁니다. 퇴락한 절 경내에 참배객들이 몇 분 있더군요. 마을 집들이 바로 절 앞에 있었지요. 현재의 대웅보전이나 새로운 요사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허물어진 마조 스님 탑만 하나 남아 있었어요. 참배를 하기 위해 여기를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들리는데, 중국이 지금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이곳 마조 스님 회상도 변화가 많아요. 불학원이 개원되어 많은 스님들이 모이고, 중국 스님 네들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으니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강서 감강 일대가 마조 스님의 주요 무대라고 밝힌다. 뿐만 아니라 회양 선사 회상에서 깨달은 마조 대사가 그곳을 떠나 강서의 남창(옛 홍주)과 그 언저리에서 교화를 폈듯 호남의 석두 희천 제자들도 고안 땅을 거쳐 자연스럽게 남창을 오갔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순례자 일행도 석두와 마조 문하의 양쪽 선승들이 머물던 선풍(禪風)이 깃든 땅에 와 있는 셈이다.

"마조 스님이 열반지로 택한 이곳도 선종사적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 중의 하나지요. 여기 지세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이하지만 한국의 어떤 지형을 닮은 것 같아요. 산 이름이 석문산, 돌 석자 문 문자가 붙은 것을 보면 어디에 석문이 있는 산 같기도 한데 그런 구조물이 보이지 않으니 왜 석문산인가 하는 호기심이 듭니다. 그러나 절 이름으로 보면 보배 보(寶)자에 봉우리 봉(峰)자가 붙어 있습니다. 마조 스님 뒤를 이어 주지를 사신 늑담 스님의 법호도 보봉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절 뒤의 산봉우리를 보봉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법당에 들어 참배를 하고 나온 순례자 일행은 곧바로 대웅보전 뒤편에 자리한 마조 대사의 사리탑으로 향한다. 사리탑 뒤편은 활기가 왕성한 왕대나무 숲이다. 순례자 일행이 마조 대사 사리탑 앞에서 선 채로 참배를 하자마자 왕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온다. 그런가 하면 새들은 새들대로 이국의 낯선 손님들에게 노래를 들려준다. 문득 잡념이 사라진 머릿속으로 시상(詩想)이 청량한 대나무바람처럼 스친다.

대숲을 나는 새는
순례자 위해 무정설법으로 맞이하고
스님은 입이 없는 마조 대사 앞에 서서
두 눈 끔벅하며 법거량하네.

수불 스님이 참배를 마친 순례자 일행을 위해 또 야단법석을 펴신다. 간단한 마조 대사의 행장에 이어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라는 대사의 가풍을 덧붙인다.

"성이 마 씨인 도일 스님께서는 저 사천성 시방현에서 709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그곳의 나한사로 출가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정중종의 입장에서 출발해 788년 79세로 여기 보봉사에서 열반에 드신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열반 터를 미리 정하고 한 1년여 주석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것이지요.

마조 스님은 생김새가 특이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우행호시(牛行虎視), 소처럼 느리게 걷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예리하였고 긴 혀는 코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발바닥에는 윤상(輪相), 바퀴무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지요.

마조 스님이 35살쯤에 처음으로 개당한 곳은 복건성 건양의 불적령(佛跡嶺)이라 해요. 이후 강서성 저 남쪽 감주의 공공산으로 가서 교화를 편 뒤 남창의 개원사에 주석하시다가 이곳으로 오셨지요. 공공산에는 지금도 서당 지장 화상의 탑이 있어요. 마조 스님이 남창 개원사로 가신 것은 지방의 최고관리가 초빙을 했던 때문이지요.

스님은 수많은 도인을 길러냈지요. 일설에는 89명을 깨닫게 했다고도 하는데 그뿐이겠습니까. 139명이라는 설도 있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을 지닌 분이었으니까요.

마조 스님은 늘 '평상심이 도(道)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가시가 박혀 있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안목으로 '평상심이 도다'를 이해하여 소화하려고 한다면 목구멍에 얹히거나 걸려서 당할 수가 있어요. '평상심이 도다'를 잘 소화할 힘만 있다면 공부를 마친 거지요. 소화를 못하니까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심이란 '일상의 마음'이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의 '본래 마음'을 말하는 줄 알고 있는데 수불 스님의 정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마조 스님은 상당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도는 닦아 익힐 필요가 없다. 오직 더러움에 물들지만 않으면 된다. 더러움에 물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고 죽는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별난 짓을 벌이는 것을 바로 더러움에 물든다고 하는 것이다. 단번에 도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평상의 이 마음이 바로 도다!

평상의 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일부러 짐짓 꾸미지 않고, 이러니저러니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것만을 좋아하지도 않고, 단견상견(斷見常見)을 버리며, 평범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하는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

이어서 마조 스님은 도라고 하는 것은 법계(法界)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한다. 강가의 모래가 그다운 구실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법계를 따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금모래 은모래가 제 자리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도 법계의 일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 법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헛걸음질하는 허망한 존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같은 중생이 아닐까 싶다.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
백옥 · 청옥 · 자수정 · 호한석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얼드림(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인터넷 쇼핑몰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9〉



평범한 사람되려 수행하는 것

학인이 물었다.

"백가지 뼈가 다 무너져 흩어져도 한 물건만 오랫동안 영묘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또 바람이 일어났다."

問 百骸俱潰散 一物鎭長靈時如何
師云 今朝又風起

백가지 뼈가 다 닿아 흩어져도 정신 하나만은 영묘(靈妙)하여 분명할 때는 대단한 경지이다. 대개 몸이 아프면 마음도 바로 흐트러지고 만다. 아파서 드러 누워있어 보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정신이 산란해서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이것을 혼침산란(昏沈散亂)이라고 말한다.

참선이나 염불 삼매를 익혀 경계가 깊어져 한 번 삼매에 빠지면 몸도 잊고 주변도 잊는 경계가 오는 수가 있다. 수 시간이 지나도 화두나 불명호(佛名號) 하나에 몰두돼있으므로 모든 것을 잊는다. 몸도 마음도 잊는 몰아의 경지다. 이러할 때의 경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 조주 선사는 "오늘 아침에 또 바람이 일어났다"고 대답했다. 설사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은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고요한 아침에 한낱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기특한 경지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특별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마음을 내면 벌써 멀어지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3승 12분교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달마 조사가 인도에서 온 정신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수고우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잘 돌봐주어라."

학승이 말했다.

"그 뜻이 어떤 것이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도 몰라."

問 三乘十二分教即不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水牯牛生兒也好看取

아상(我相)이 떨어진 곳에 도가 있다
평범한 사람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

云 未審此意如何
師云 我亦不知

달마 스님이 불법의 대의를 깨닫자 중국으로 건너와 부처님의 선법을 전파했다.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불교가 일어났는데 바로 선불교(禪佛教)이다. 선불교는 부처님의 정신을 높이 선양한 불교이다.

따라서 가지를 치고 잎 따는 식의 지엽적인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본질을 가리키면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정신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많고 설명이 많으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리킴의 목적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있어야지 설명까지 해주면 더더욱 깨달을 기회를 놓치고 만다.

선사들은 짧은 말, 무언의 행동, 중간 설명을 잘라먹은 언어로써 가르친다. 달마가 동쪽에서 온 뜻 역시 짧은 언어이고 화두이다. 화두는 비밀언어이고 질문을 품고 있는 명제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날 불법의 대의와 우주와 인생에 대하여도 통달하게 된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은 중국에 부처님의 선사상을 전파하려고 왔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 정신을 그대로 보인다면 어떤 것이 되겠는가? 조주 스님은 "수고우[牛]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잘 돌보아 주라"고 말했다. 엉뚱한 말같이 들리지만 두고두고 이 화두를 들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에 눈이 번뜩 뜨일 때가 있을 것이다.

도는 평범한데 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선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만일 수행자가 자기라는 상[我相]이 다 떨어져 나갔다면 그 자체가 진귀한 보물이고 평범함으로 돌아간 것이고 도에 들어간 것이다.

만일 본 납자에게 수고우가 새끼를 낳았을 때 잘 돌보아 주는 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난 바쁘니까 큰 스님께 가보게."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39 한국선과 선어록 10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정법안장 요체와 수선법 등 담아

백운경한(白雲景閑: 1298~1374)은 전북 고부에서 출생했다. 그 어록에다 이색(李穡)이 붙인 서문에 의하면 고려 조계종 대선사 경한은 호가 백운이다. 백운 자신의 말에 의하면 중국의 하무산 석옥청공(石屋淸珙)의 법을 이었다. 나이 77세에 취암사(鷲嵓寺)에서 입적했다.

백운경한은 10여 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많은 선지식을 참문했다. 특히 중국 임제종의 석옥청공으로부터 법을 이은 후에 서천(西天)에서 온 지공(指空)에게서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를 해결했다. 석옥은 임종하면서 그 전법게(傳法偈)를 제자 법안(法眼)을 통해 고려의 백운에게 전해줄 만큼 백운을 신임했다.

백운경한의 선풍은 이름 그대로 성품이 천진스럽고 전혀 거짓이나 조작이 없고, 형상을 빌어서 이름을 팔지 않았으며, 참으로 속세를 여읜 진경(眞境)에서 노니는 사람이었다. 백운의 법어는 마치 어둠을 부수는 밝은 등불과 같고, 더위를 씻어주는 청량한 바람과 같았다. 백운선의 특징은 임제선을 수용하면서도 무심(無心)과 무념(無念)을 강조해 백운의 선은 무심선(無心禪)이라 불렸다. 백운은 조주의 무자(無字)와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과 만법귀일(萬法歸一)을 강조하면서 화두를 무심(無心)으로 들도록 했다.

백운선의 특징은 무심·무념한 무심선
정법안장 계보 정리와 선사어록 담겨

백운경한은 태고보우의 추천으로 공민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했다. 다시 나옹혜근의 천거로 공민왕의 부름에 응해 신광사(神光寺)에 주석했다. 그 당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터에 불교종단 내부에서도 공부선(工夫選)의 제도처럼 신돈을 중심으로 한 화엄종과 태고를 중심으로 한 선종의 힘겨루기에서 나옹과 백운의 등장으로 선종이 우위를 점령하기도 했다. 〈백운어록〉 이외에 저서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명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2권이 있다.

백운의 무심선풍은 자연과 인생에 대한 달관의 경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선의 본래성으로 돌아가 당시 조사선의 가풍을 이어온 간화선의 진작에 더욱 큰 의미를 부각했다. 백운경한은 중국의 임제계통인 석옥청공(石屋淸珙)과 평산처림(平山處林)의 법을 이었다. 백운은 중국 임제계통의 양기파의 정통을 잇고서 고려에 이전의 구산가풍을 임제종풍으로 통합하려는 점에서 그 사상적인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한편 간화선을 수행의 정통으로 수입해 펼치면서도 중국의 오가의 가풍을 두루 절충해 임제종풍을 중심으로 한 제 종파의 섭수를 꿈꾸어 그것이 마침내는 조계종풍으로 표명됐다. 그 노력은 이후 〈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는 전등사서의 편찬으로 회향됐다.

백운경한은 54세 때 석옥청공으로부터 사법과 더불어 〈불조직지심체요절〉 1권을 받았다. 고려에 돌아온 이후에 백운은 75세 때 그것을 다시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증보하고 2권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초록해 전승한 것이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2권이다. 판본으로는 선광 8년 취암산유판본(국립도서관장본)과 선광 7년 청주목외흥덕주자본(파리도서관소장 영인본) 등이 전한다.

그 내용은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역대 부처와 조사들이 이심전심의 방식으로 대대 상전한 정법안장(正法眼藏)의 계보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곧 과거칠불로부터 인도의 28대 조사와 동토의 6대조사를 비롯해 무려 145명의 법어를 기록하고, 기타 몇 가지 경론에서 발췌한 내용과 선사들의 잡록이 수록돼 있다.

그 구성은 국립도서관장본의 경우 서문이 없이 바로 본분으로 시작돼 불조직지심체요절 권상 및 권하, 백운경한 자신이 붙인 1372년의 발문으로 구성돼 있다. 장서각본에는 맨 앞에 국립도서관장본에는 없는 목은 이색의 1378년의 서문과 성사달 겸선의 1377년의 서문이 붙어 있다.

목은 이색의 서문에는 백운경한의 입적 이후에 그 문도였던 법린과 정혜가 김계생의 시주를 받아서 목판으로 새겨서 간행하면서 목은 이색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으로 보아 목판본에 붙은 서문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또한 성사달 겸선의 서문에는 석찬 선사가 1377년에 성사달 겸선에게 부탁한 것으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하면서 붙인 서문으로 짐작된다.

권상에는 과거칠불의 전법게를 비롯해 서천 28대 조사의 기연어구와 전법게를 비롯해 동토 6대조사 및 조계혜능의 5대조사와 기타 숭산혜안에 이르기까지 그 법어를 기록하고 있다. 권하에는 이호대의의 〈좌선명(坐禪銘)〉으로부터 시작해 몽산에 이르기까지 그 법어를 수록하고, 이어서 낙포원안의 〈부구가(浮漚歌)〉 등의 몇 가지 가송, 몇 가지 경과 론에서 발췌한 수심의 원리, 나아가서 동산양개 사친의 서(書)로부터 송대 천복승고의 법어에 이르기까지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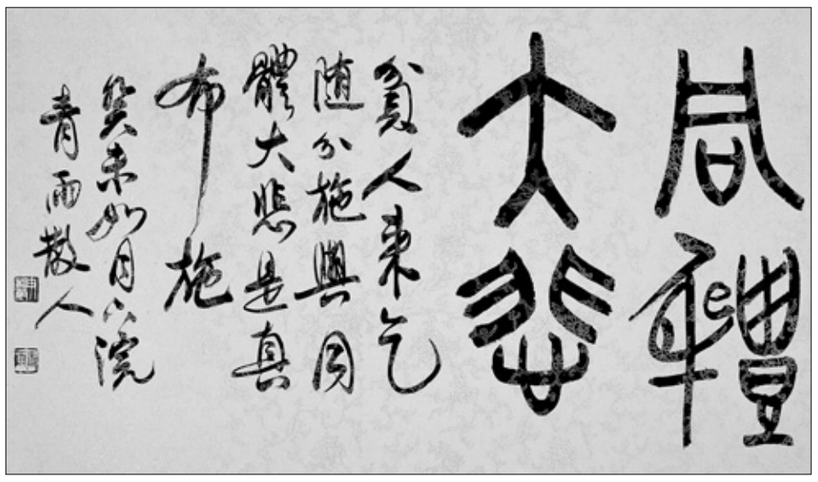
이처럼 〈불조직지심체요절〉에는 전등사서를 비롯한 경전과 논서 및 각종 어록을 통해 전승된 다양한 법어·가송·잡록·찬(贊)과 명(銘) 등으로부터 정법안장의 요체를 보여준 법어와 수선의 방법과 그 마음가짐 등에 대해 수록한 선서(禪書)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몇 안되는 대표적인 전등사서이기도 하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⑦ 선가귀감

한 몸처럼 알고 베풀라



同體大悲 貧人來乞 隨分施與 同體大悲 是眞布施 (동체대비 빈인래걸 수분시여 동체대비 시진보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에 따라 베풀지어다. 그들을 한 몸처럼 알고 베푸는 마음이 부처님 자비이니 이것이 진실한 보시니라.

貧: 가난할 빈
乞: 빌 걸
隨: 따를 수
施: 베풀 시
與: 줄 여

청계보체수빈대동
우미시대분인비체
산여 비시래
인월 시여걸
하 진동
완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참 나를 찾을 때 위기는 극복된다

제 5 차 참선대중화 선회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 이 생에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참 나를 찾으면 자신과 내가 일치합니다.
나와 내가 일치하면 대만족이요 행복입니다.
일치하면 계합이요 계합하면 깨달음에 이릅니다.
참선은 불교가운데 가장 뛰어난 최상의 지혜이기에 최상승입니다.
최상승의 참선은 극히 보편적이며 극히 일상적이기에,

참선의 깨달음은 다반사라 불리울 만큼 일상적인데서
극치라 일컬어지는 구경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말하고 가정의 위기는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위기의 극복은 참 나를 찾을 때 가정도 사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참선의 대중화는 자신을 찾을 때이며 참선의 대중화는 인류의 대전환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 4월 8일(금) ~ 10일(일)

삼매체험 선 수련회 · 단기출가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3월 26일 ~ 3월 30일(5일간) ~ 4월 23일(30일간)
4월 8일 ~ 4월 12일(5일간) ~ 5월 7일(30일간)
5월 13일 ~ 5월 17일(5일간) ~ 6월 11일(30일간)
6월 10일 ~ 6월 14일(5일간) ~ 7월 9일(30일간)
7월 8일 ~ 7월 15일(8일간)
7월 22일 ~ 7월 26일(5일간)
7월 29일 ~ 8월 5일(8일간)
8월 9일 ~ 8월 13일(5일간) ~ 9월 10일(30일간)

활인선원 정진대중 하안거 · 동안거 재가자 모집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 · 예방가능
면역성 노화억제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금주 쾌차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청소년 대학생 일반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안성맞춤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1644-5266 / 070-7519-9929 네이버 카페 ▼ 활인선원

높고 낮음, 앞서고 뒤섬이 이끌고 받쳐주는 세상돼야



봄이라기에는 아직 일러 따사로운 햇볕이 반갑고 그리운 2월 중순 오후. 한신대 음악감상실에서 만난 월곡교회 담임 노일경 목사(55)는 법정 스님이 보내주신 글이라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을 잔잔히 읊는다. 반쯤 감은 그윽한 눈에 스님이 가득했다. "목회란 높고 낮음, 앞서고 뒤섬이 서로가 이어져있음을 일깨워주는 일이거든요. 저는 개신교가 추구하는 성장 동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과연 지금 추구하는 성장이 바람직한가?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공동체들이 자유롭게 행복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보면 어느새 스님이 주신 노자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요." 앞뒤나 높낮이, 음과 소리가 어우렁더우렁 서로 이어주고 받쳐주는, 세상 본디 면목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 목회라는 말씀이다.

법정 스님은 언제 처음 뵈었을까?

"스님은 우리한테는 그냥 좋은 어른이었어요. 젊은 시절, 저희 부부가 아직 결혼하기 전, 5.18을 겪은 지 서너 해쯤 지나 스님이 쓰신 책 〈서있는 사람들〉을 읽고 나서 가뵈었어요. 집사람이 스님을 워낙 따르고 존경해서 집사람을 따라. 스님을 뵈러 가면서 시국은 어수선한데 당신 혼자만 이런 멋진 암자에서 홀로지내는 모습이 현실과 동떨어져 계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물론 불일암에 살기 전에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셨다지만, 그 뒤로 적극 나서지 않아 시큰둥함이 마음 한 켠에 깔려있었지요. 저는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기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아, 이런 사람이구만.' 하고 단정 짓는 버릇이 있는데다가 별로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그런 저를 무장 해제시키셨어요. 편안했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장독 뚜껑에다 짐승 밥을 놓아둔 모습이 인상 깊어

노일경 목사가 불일암에서 받은 첫 인상은 무척 가지런하고 깔끔했다. 암자 뒤에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부엌은 정갈하고 깨끗했으며, 후박나무 옆에 '빠삐용 의자'라고 일컫는 스님이 손수 장작으로 만든 걸상이 놓여 있었다.

"스님은 거기 앉아서 명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티내지 않고 격이 없는 스님 모습이 좋았어요. 우리도 특별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저 자연스럽게 뵈었죠. 종교 얘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어요. 집사람은 그때는 가톨릭이었고 저는 개신교 신학생이었는데…."

노일경 목사는 종교란 자기를 둘러싼 울타리고.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따라 선택하게 된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종교란 살다보니까 주어진 면이 많다고 봐요. 스님도 살다보니까 스님이 되셨을 테고, 저도 그렇죠. 처음 뵌 스님은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시고 약간 냉소 띤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암자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가지런하고 정갈한 모습에 '아, 이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싶었죠. 특히 화단에 장독 뚜껑 엎어서 짐승밥을 까치밥 주듯이 놓아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 뒤로 한 해에 한 두어 번씩 뵈었죠. 삼십 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그 무엇이 긴 세월 동안 스님과 관계를 잇게 했을까?

"좋아했죠. 서로. 아니, 저는 그랬어요. 뵙는 횟수가 늘고 나이가 들면서 깔끔하고 정갈한 스님 성정이 이해도 되고.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스님을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스님은 불교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를 꽤 오래 전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학구열이 대단하시구나.' 하고 느꼈어요. 불교인이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젊어서 원전을 그렇게 풀어낼 정도라면 학구파시잖아요. 〈법구경〉을 번역하셨다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구경하고 복음서하고 비슷하지 않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견주어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스님은 종교에 대해 생각이 자유로우세요. 〈일기일회〉인가요? 스님 법문집. 거기서 '종교란 친절이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인 용서, 친절, 사랑과 스님 말씀이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 스님과 만남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종교 관점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싸울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면 고백 문제이고, 자기 지향 문제로 서로 처지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를 뿐이지요. 모두가 친구가 되는 일이 자비이고, 사랑일 텐데 굳이 엇나갈 일은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스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구요."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다 용서·친절·사랑이 하나로 통한다

어느 해 부부가 불일암에 막 들어서는데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노일경 목사는 "아니, 스님 무슨 공부하셨어요? 독경하셨어요? 아직도 초보운전이세요?"하고 농담을 던졌다.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더 초보운전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국어책을 읽었지."하셨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확인해보니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더군요. 모든 종교 전통을 훑어 올라가보면 소리 내어 낭송을 하잖아요. 그게 말로 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종교 기본훈련임을 알았죠."라며 기억을 되살리는 노일경 목사. 선선한 눈매에 스님을 향한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스님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었다는 말씀은 나그네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들으며 스님이 수계를 받은 하안거 해제 날이 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늘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초심을 되살린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긴 세월 동안 일 년에 한 두 차례 만남은 주로 어디서 했을까? "스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도 뵙고, 시내 나오시면 뵙기도 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두어 번 찾아오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제가 없어서 뵙지 못했어요. 오셔서, 불교에는 도량을 돌면서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을 해주고 가셨다더라고요." 도량석이다. 노일경 목사가 있는 시골 교회 도량석을 하면서 스님은 어떤 축원을 하셨을까?

93년 법정 스님은 노일경 목사 부부에게 선禪 수련회에 동참해보라고 권하셨다. 스님 말씀에 따라 노 목사 부부는 일주일 동안 송광사에서 선 수련을 했다. 이 일이 노일경 목사가 평소 자기 종교에 대해 느꼈던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선 수련이 단순한 수련이 아니구나.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존재 중심을 찾아가는 수양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깊이 있는 수행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새벽기도를 한다든가 십일조를 드린다든가 주일을 성실하게 잘 지키면 마치 교인 본분을 다한 양 여길 뿐. 자기 관리, 내면 문제나 상처를 보듬기 위한 수행과 성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게 늘 아쉬웠어요. 기도원 가서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면에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대한 성찰이 저희들한테 모자라는데 불가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진정 기독교인다우려면 더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자비나 사랑이나 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죠. 교회에도 그런 전통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가톨릭에 '피정'이 있더라고요. 향심기도, 구심기도가 있고요. 유달리 약한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도 하자면 못 할 것도 없죠. 특별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기도와 선도 맞물릴 수 있을 테고요. 일주일동안 발우공양을 체험을 해보면서 먹는 문화, 먹는 태도를 바꿀 대안이구나 싶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불가가 가진 좋은 점들을 많이 느꼈어요."

예수, 부처가 세월을 넘어 만났다면
열반이니 구원이니 논쟁을 벌였을까?

노일경 목사는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있는 서낭당을 보면서 생각한다. 서낭당은 민간무속문화인데 개신교에서는 왜 죄악이라며 깎아내리고 무시할까? "그런 민속은 우상숭배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일 뿐인데. 그 대상이 나무나 돌이 됐던 짐승이 됐던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고마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들만이 정통이고 유일하다고 얘기하며, 종교를 빌미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본주의와 맞물려 탐욕스럽게 돌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개신교 행태가 외려 바벨탑 쌓기고 우상숭배지. 일반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상숭배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설교도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도록 가르쳤는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이방을 배제했던 까닭은 약소민족이 살아남으려고 친 몸부림이에요. 상대를 철저하게 배격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기 종교, 야훼 종교를 살아남게 하려는 몸부림과 우리가 오늘날 다른 종교를 대하는 자세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종교가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언젠가 '예수와 부처가 만났을 때'란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노일경 목사 '두 사람이 만났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봤다고 말씀한다. 두 사람이 오백년 세월을 뛰어넘어 만났다 치면 한 눈에 서로를 알아봤을 거다. 상대가 고수인지를. 서로 진면목을 알아차린 두 사람이 과연 요즘 사람들처럼 자기 떼거리를 몰고 와서 열반이니 구원이니 하면서 논쟁을 벌였겠느냐? 서로 법담을 나누는 좋은 도반으로 지내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를 했단다. "그렇게 보면 불교와 기독교가 싸울 일이 없지요." 법정 스님과 노일경 목사가 스스럼없이 통하는 까닭을 알았다.

"스님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상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받아들이기 쉬운 보통 말로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편안하고 편견 없이 만나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큰 감동이나 감정 없이 스님을 만났고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당신이 하신 말씀과 가장 닮은 사람. 당신 말처럼, 글처럼 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멋진 글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저 어른은 글이 멋있음을 떠나서 글만큼 사는 대단한 양반이다' 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하고, 어찌 보면



월곡교회 노일경 목사는 법정 스님은 "항상 받아들이기 쉬운 보통 말로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편안하고 편견없이 만나줬다"고 회고했다.

그저 세상 이치에 맞게 살다 가신 어른이시죠. 그게 좋았어요. 바쁘든 바쁘지 않든 간에 내키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기 싫잖아요. 글을 잘 쓰는 유명한 분은 곳곳에 많으니까 굳이 법정 스님이 아니어도 되죠. 스님을 뵈면 스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한나절 나누기도 하고, 서너 시간 동안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상이나 인연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고, 소소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젊었을 때 같으면 저도 이야기 가운데서 뭘 끌어내려고 했겠죠. '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쭈었을 텐데, 이젠 그런 이야기가 싫고 좋은 어른 뵈었는데 편안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댈 텐데 우리라도 편안하게 해드리자.' 싶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만히 들었고, 스님도 우리한테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 걱정도 해 주시고, 저희아들도 스님을 할아버지처럼 생각해 가끔 같이 찾아뵙곤 했죠. 서른 해 가까이 스님과 만남이 저희 부부에게는 복되고 좋은 일이었어요." 잔잔하게 털어놓는 노일경 목사 말씀을 들으며 이들 부부에게 살짝 부러움이 일었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꽃 보고 깨달아

강산에 꽃이 피었다. 눈꽃이 놀다 간 자리에 야린 꽃이 피었다. 꽃은 무슨 선업을 지었기에 만인에게 기쁨을 주고 있을까.

기약 없이 이별한 지난 봄을 생각해 보면 더욱 신기하다.

이듬 해 그 절기가 되면 영락없이 그 자리에서 봄의 전령이 되어 우리를 반긴다. 그들의 세계에서 어느 누가 환생을 발원하는 변변한 지노귀새남인들 지냈을 리 만무하다.

꽃은 암술 · 수술 · 꽃잎 · 꽃받침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분류 기준으로 보면 무피화(無被花) · 유피화 · 갖춘꽃 · 안갖춘꽃 · 통꽃 · 갈래꽃 · 풍매화(風媒花) · 충매화(蟲媒花) 등으로 나눈다.

산행길에 꽃의 다양한 색깔이 발길을 잡는다. 왜 진달래꽃은 붉고 개나리꽃은 노란색을 띠고 있을까.

아마 그들은 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 일 것이다. 업이 다르다 하여 이쪽의 업이 상대편 업을 탓한다거나 나무라지는 않는다. 각각 그 모습 그대로가 좋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를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달래꽃 붉고 개나리꽃 노란 것은 업 때문
업 다르다 탓하지 않아… 그대로가 좋을 뿐

봄날 산길을 걷다가 복사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기연이 되어 깨달은 선사가 있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11에 영운지근(靈雲志勤) 선사이다. 그는 복주 장계(長溪) 사람으로 처음에 위산에 있으며 30년 동안 화두를 참구했으나 깨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 날 언틀먼틀한 산길을 걷다 30년의 의심덩어리가 몽땅 타파 되었다. 선사는 그 때의 심경을 시로 썼다.

삼십년래심검객 三十年來尋劍客
삼십년 동안 마음의 검을 찾던 나그네
기회낙엽우추지 幾回落葉又抽枝
몇 차례나 잎이 지고 싹이 돋았던가
자종일견도화후 自從一見桃花後
복사꽃이 피어 있는 것을 한 번 본 뒤에
직지여금갱불의 直至如今更不疑
다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위산영우 스님이 이 게송을 보고, "인연 따라 깨달은 것, 영원히 잊지 말고 간직하여라" 하였다. 그 길로 민천(閔川)으로 돌아가니 현묘함을 찾는 무리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법상에 올라, "여러분, 온갖 길고 짧은 것은 모두 무상으로 돌아가오. 사시의 초목이 잎 지고 꽃 피는 것만 보시오. 인과가 끝날 무렵에 삼악도의 고통이 나타나면 털끝만치도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오직 뿌리와 꼭지인 의식만이 항상 남아 있소."

이 때 한 납자가 물었다. "어찌하여야 생노병사를 벗어나겠습니까."

영운은 대답했다. "청산은 원래 요동이 없는데 백운이 떠서 오락가락 한다."

또 한 납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선사는 "나귀의 일이 끝나기 전에 말의 일이 도래하였다"라고 하였다.

인생사 모두 여사미거마사도래(驢事未去馬事到來)가 아닐까. 하루 일을 보아도 그렇다. 아침에 이 일만은 오늘 중으로 꼭 마치리라고 다짐하지만 하루해를 넘기고 마는 일이 다반사다. 시간에 속고 일에 치이고 상황에 속아 넘어가고 만다. 그러나 여간해서 속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렇다 할 약속이 없었다 해도 그해 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은 찾아온다. 대신불약(大信不約)이라고 했다. 위대한 믿음은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절기 같은 것이다. 그 절기가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인간의 약속은 그렇지 못하다.

영운 선사와 같이 이 봄에 기연을 맞자. 기연은 차별심이 없고 분별을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기연의 주체는 오직 자기 자신이다. 기연이란 시기인연(時機因緣)의 줄인 말이다. 범어로 kāla-āśaya라고 한다. kāla는 '순간' 혹은 '시간'이란 말이고, āśaya는 '쉬다', '멈추다' 혹은 '마음의 정리'라는 뜻도 있다. 이 말의 뜻을 정리해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당면한 문제가 마음에 정리가 된다'는 뜻이고 다른 의미로는 '한 순간에 쉬게 된다'는 말이 된다.

생존경쟁에서 쉰다든가 멈춘다는 말은 대열에서 처지는 것만은 아니다. 쉬고 멈추는 행위는 국면을 전환하는 저력의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이 좋은 절기에 꽃을 보고 청산을 보고 유수를 보자.

동국대 선학과 교수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 5월 12일 〈마감임박〉
미얀마로 떠나는 완전일주 8일
(짜익티오 철야기도 가능)
1,90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 5월 24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모두 포함된 일정
추가요금 없음



■ 지장도량 – 황산 6월 8일
구화산 | 황산 | 항주 5일
1,090,000원
■ 지장도량 – 관음도량 6월 7일
구화산 | 보타산 | 황산 6일
1,14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
하늘열차 티벳 8일 6월 15일 (요금 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사찰이미지 200% UP! 法果 법과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法句經 법구경
미움은 미움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法句經 법구경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호법자(護法者)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은 적더라도
몸으로써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法句經 법구경
허공에는 길이 없고,
외도(外道)에는 수행자가 없습니다
현상계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깨달은 사람에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法句經 법구경
건강은 가장 큰 은혜이고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것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벗이고
열반은 가장 높은 행복입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02)2004-8216
FAX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말세중생 구제하는 침묵의 설법이 들리는가?

금산사 (하)

5여래 6보살상 모신 독특한 구조
미륵불상은 조소불상 중 국내 최대

"어느 쪽이 먼저야?"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모악산 능선 너머에서 쏟아져 내리는 금산사 경내. 이른 시간이라 관광객도 한 명 없는 텅 빈 마당에서 나팔수씨가 대적광전과 미륵전(국보 제62호) 중 어느 곳을 먼저 참배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지혜장은 이미 미륵전으로 향하면서 말했다.

"그래도 금산사의 상징이고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상징인 미륵전이 먼저지."

나팔수씨는 햇살이 발에 밟힌다는 느낌을 받으며 아내의 뒤를 따랐다. 아내 지혜장은 절에 도착하면 이유 없이 안내문을 읽는다. 절의 안내문을 읽어서 그 절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절집기행의 첫 순서인 셈이다. 그리고 안내문 옆의 약도를 보면서 동선(動線)을 구상한다. 경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겹치지 않게 돌아봄으로써 시간을 아끼자는 것이다. 동선을 구상할 때는 중심법당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절의 신앙적 배경이나 전각의 위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어, 층마다 현판이 다르네?"

금산사 미륵전은 3층으로 지어진 목탑형식의 팔작지붕 건물인데 1층에는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에는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에는 미륵전(彌勒殿)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응, 그게 다 미륵부처님을 모셨다는 뜻이래."

진표 율사가 금산사를 중건 한 것은 766년으로 전하는데 당시에는 미륵장육존상만 조성했다. 지금의 미륵전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없어진 자리에 1635년(인조 13) 수문 대사가 재건해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표 율사가 지을 때부터 3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금산사 미륵전은 법주사의 팔상전(국보 제55호, 1626년 중건)과 함께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획기적인 업적이라는 점이다. 신라 때의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은 솜씨가 세월의 강물을 넘어 17세기에도 찬란한 업적을 남긴 것이다. 미륵전의 각 층마다 걸린 편액은 다른 글을 담고 있지만 뜻은 미륵불을 모신 건물임을 보여준다.

대자보전이란, 미륵의 범어인 마이뜨레야(Maitreya)를 한자로 자씨(慈氏)라 번역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용화지회는 미륵불이 하생하여 용화수 아래서 3회의 설법을 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경전의 내용에서 유래된 것이다. 미륵하생신앙의 반영인 셈이다. 미륵전은 글자 그대로 미륵불을 모신 집이란 의미다.

미륵전 안은 썰렁했다. 마루에 방석이 있었지만 3배를 하는 동안 온 몸에 한기를 느낄 정도였다. 통층으로 구성된 미륵전 안에는 높이가 11.82m에 이른다는 본존불과 높이 8.79m의 좌우 협시보살이 모셔져 있다. 중앙의 미륵부처님과 오른쪽의 대묘상(大妙相) 보살님은 그대로 서 계시는데 왼쪽의 법화림(法化林) 보살님은 휘장으로 가려 놓았다.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륵불상은 조소불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등을 켜지 않아 실내는 좀 어두운 편이었다. 부부는 3배를 하고 발이 시려 오는 것을 참으며 법당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지혜장은 밖에서 보는 미륵전의 첫인상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안에서 느끼는 미륵전의 느낌은 일체의 잡념을 허락하지 않는 묵직한 침묵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 침묵이야 말로 말세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는 법력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했다. 나팔수씨가 얼른 나가자는 눈짓을 했고 지혜장도 허리를 굽혀 반배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 사이 어떤 중년의 신사 두 분이 들어와 절을 하고 있는데 절하는 방법이 불자들과는 달랐다.

미륵전의 외부는 빛바랜 벽화가 주는 무상감과 굵은 기둥이 주는 근엄함으로 다가왔다. 역시 미륵전의 외부도 한 바퀴 빙 돌아보고 방등계단(方等戒壇)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근래에 지은 적멸보궁에서 계단 위의 석종형 부도를 향해 3배를 했다.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은 보궁. 그 옆의 마당에서는 미륵전의 지붕과 층간의 벽화들 그리고 마당이 한 눈에 들어왔다. 까치 서너 마리의 합창 소리가 경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맑은 음성공양이었다.

"여기가 계단이면 수계의식을 하는 장소란 의미겠지?"

"그렇지. 이러한 계단이 남아 있는 곳은 금산사와 통도사뿐이야. 석축을 쌓은 것이나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부도를 올려놓은 2단의 기단을 장엄한 조각솜씨가 엄청난 정성을 기울인 것 같다."

부부는 계단의 정면 5층 석탑(보물 제25호) 앞에서 합장을 한 채 3배를 했다. 그리고 계단을 장식한 조각들을 살펴보고 경내의 너른 마당과 모악산 능선을 감상했다. 지혜장이 가방을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다.

"여보님. 조선 초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을 아시나요? 그 유명한 김시습이 여기 방등계단에서 쓴 시가 있어서 적어 왔지요. 한 번 들어 보시길…"

구름 기운 아물아물, 골 안은 널찍한데
엉킨 수풀이 깔린 돌에는 여울소리 들려오네.
중천에 별들은 금찰(金刹)을 밝히는데
밤중에 바람과 우레가 석단(石壇)을 감싸 도는구나.
낡은 짐대(幢)엔 이끼 끼어 글자가 희미한데
마른 나무에 바람 스치니 저녁추위 생기누나.
객실에서 하룻밤 자고 가니
연기 속 먼 종소리에 여운이 한가롭지 않다.

"비운의 천재 김시습의 시라서 그런가? 이런 성역에서조차 비감을 감추지 못하고 슬픔이 묻어나는 시를 지었군."

"여보님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참 구절구절 아픈 시라는 생각을 했거든."

일체가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불교적 사유가 시작된다. 무상을 모르면 집착과 번뇌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시습은 한 시대의 불행을 온 몸으로 지탱하던 지식인의 초상이다. 그의 무상한 삶의 여정이 금산사에도 닿아 이렇게 가슴 아린 시 한편을 남겼던 것이다.

진표 율사 이전의 금산사와 그의 시대가 열어 둔 위대한 신앙이 세월을 따라 흐르고 흐르면서 변화를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다. 공간은 세월이 흐른 자국을 새겨두고 있지만 그 조차도 무상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부부는 대적광전의 웅장한 일곱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렸다. 지혜장은 무상 속을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금산사 대적광전은 우리나라의 법당들에서 볼 수 없는 5여래 6보살상을 모신 독특한 법당이다. 1986년 12월 6일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어 1994년에 복원한 내력이 가슴 아프다. 불단에 모신 5여래는 왼쪽부터 아미타-석가-비로자나-노사나-약사여래이며 그 사이에 모셔진 6보살은 왼쪽부터 대세지-관음-문수-보현-일광-월광보살이다. 1635년 수문 대사가 절을 중창하면서 그 전에 있던 대웅전 대광명전 극락전 약사전 나한전 등의 다섯 전각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은 넓었지만 따뜻한 편이어서 좀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녹을 것 같은데 사시예불과 제사가 이어지는 극락전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부부는 대적광전을 나와 뒤쪽에 있는 나한전과 조사전을 차례로 참배했다. 나한전은 앞쪽에 16나한을 모시고 뒤에 500나한을 모셨는데 중앙에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의 근엄한 표정과 나한님들의 자연스럽고 천진한 인상이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명부전 옆의 대장전(보물 제827호)은 지붕의 한가운데에 복발과 보주가 있어 독특하다. 대장전 안에서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미승이 목이 터져라 염불을 하고 있었다. 부부는 문 밖에서 합장 3배를 했다. 그리고 대장전 앞에 있는 석등(보물 제828호)과 명부전 앞의 노주, 대적광전 앞쪽의 석련대(보물 제23호)와 육각다층석탑(보물 제27호)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앞에 놓인 안내문을 읽으며 석조물들을 감상하는 동안 예불을 마친 스님들이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지혜장은 높은 곳에서 보면 이 또한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행복감이 밀려들었다.

"야, 금산사는 그 자체가 박물관이군."

"그런가요? 오늘 둘러보신 금산사라는 박물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한 가지가 있다면?"

"나야 당연히 미륵전 안의 큰 미륵님이지. 마눌님은?"

"글쎄올시다. 나는 금산사의 역사 속에 나도 언젠가 한 번쯤은 포함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

"와~ 이 사람, 욕심도 많아. 과거에 이 절의 스님이었을 것이란 망상? 얼른 떨쳐내고 밥이나 먹으로 갑시다. 허허허."

"아니 뒤쪽으로 돌아가서 부도밭도 들러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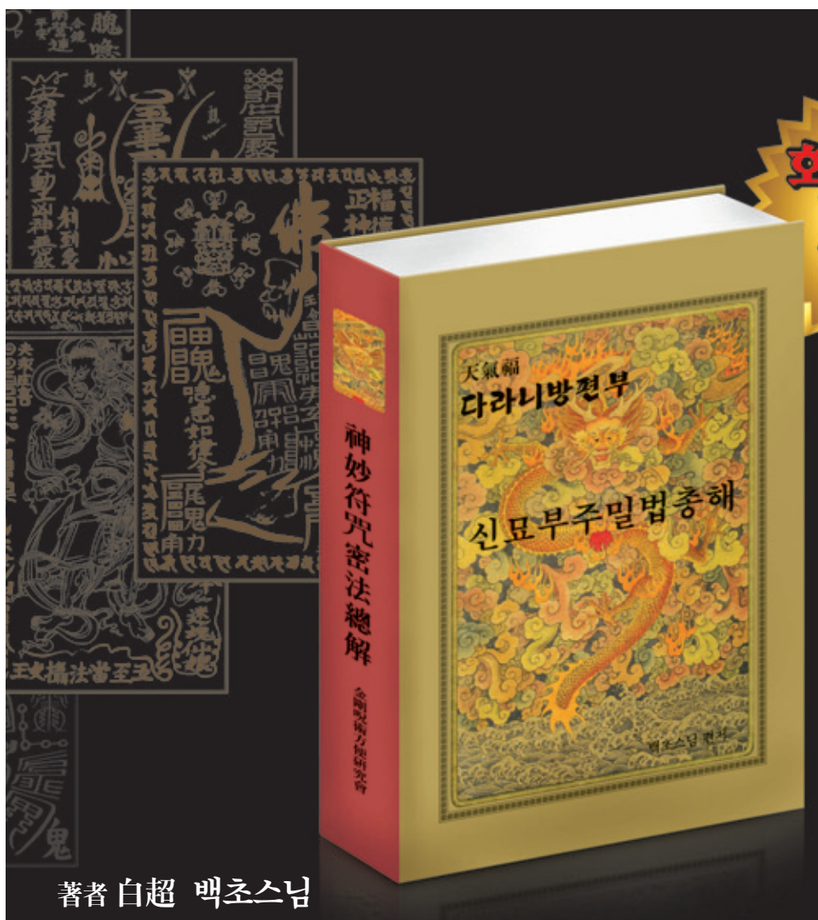
금산사 너른 마당을 걸어 나오는 부부의 모습에서 달콤한 봄 냄새가 나는듯했다.


금산사 대적광전은 5여래 6보살상을 모신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백제 여행은 마치 연애 같아요”

여행학교 ‘로드스꼴라’ 9명 학생들이 엮어낸, 백제 역사여행기



하룻밤의 지상낙원 보다, 더 깊고 진한 여운이 담긴 여행서적 ‘백제의 길, 백제의 향기’

여행서적은 여행서적인데, 여느 여행서적과는 좀 다르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 일탈을 꿈꾸며 여행서적을 뒤적거리는 독자라면 좀 놀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꾸는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와 산호초, 만년설에 비치는 호수, 넓은 평야에 뛰노는 얼룩말과 기린, 진기한 음식들, 화려한 풀 빌라 등은 책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목적으로



여행서적을 찾는 이들에겐 책은 기피대상 1순위다.

좀 놀랍겠지만 오히려 영어, 수학, 과학 등에는 능한데 국사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아이,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밤을 새며 게임만 하는 아이, 주입식 교육이 맞지 않는 아이, 꿈이 없는 아이들과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책은 여행 전문 작가나, 순례길을 떠난 순례자들이 쓴 여행서적이 아니다. 여행학교 ‘로드스꼴라’의 9명 학생들과 그들의 지도교사가 함께 쓴 여행 이야기다. 여행이 사람들에게 점차 일반적인 문화생활로 자리 잡아 가면서, 최근에는 한 테마를 설정해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도 한 테마를 정해 여행길에 오르는데, 그 테마는 바로 ‘백제’다.

학창시절 국사 교과서에서 잠깐 등장하는 백제를 주제로 여행을 떠난다니, 말만 들어도 고리타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책장을 넘기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어렵고 진부하게만 느껴졌던 역사 내용을 현대 아이들의 시각으로 상큼하고 발랄하면서 솔직하게 재현했다. 책은 역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쉽게 읽도록 구성돼 있다.

책에는 백제를 주제로 역사여행을 떠난다는 선생님들의 말에 학생들이 “차라리, 조선이면 조선이지, 백제는 또 뭐냐!”고 소리치는 모습 등, 정작 글을 쓰고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조차도 낯설어하던 백제의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 이들은 2009년 가을과 2010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백제의 길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찾아다닌 백제의 길은 한국의 서울 공주 부여 정읍 서산 익산부터 일본의 아스카 나라 오사카 교토로 이어진다. 학생들과 교사는 모두 열 군데에 이르는 도시를 저마다 한 곳씩 나눠 맡아 글을 썼다. 그들은 백제 여행길에 오르기 전 관련 도서 70여 권과 백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물들을 찾아보고,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백제의 숨결을 하나씩 더듬어 가며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직접 현장



을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긴 내용을 하나하나 글로 기록해 나가면서 백제의 길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며, 사방에 만연한 백제의 향기에 흠뻑 취한다.

“이상하게 백제를 바라보는데 내 모습이 비친다. 거울처럼. 백제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책을 뒤지고 배낭을 메고 길을 찾아 헤맸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찾은 건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사회와 시스템이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내 얘기다. 그래서 역사는 재밌다.”

학생들은 700년의 백제 흥망사를 말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오래도록 서성이면서 역사 기록이 빠뜨린 지점을 상상 속에서 메워보고, 아무 것도 없는 유적지에 홀로 앉아 백제의 숨결을 느끼며 숙소에서, 교실에서 삼삼오오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마치 연애 같았다고 말한다.

여행은 단순히 지상낙원에서의 즐거운 하룻밤이 아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창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심각한 문제들도 가득하다. 책은 ‘로드스꼴라’ 9명의 학생들이 백제의 길에서 얻은 지식과 감상을 바탕으로 성찰과 지혜, 비판적 시각을 함께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 값어치 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이 함께 그려져 더욱 신선하다.

백제의 길, 백제의 향기 | 로드스꼴라 학생과 선생 지음 | 호미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 30~4. 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천태소지관	천태 지자대사	운주사
3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7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8	입보리행론	산티데바	하얀연꽃
9	건널강이 어디있으랴	대행	한마음
10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천수를 친다’는 ‘천수경’과 달라

‘천수경’에 대한 잘못된 상식 깨기… ‘천수경, 의궤로 읽다’



〈천수경〉은 불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염송하는 경전이다. 또한 국내의 여러 의례에서 널리 쓰이는 의례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는 불자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천수경〉이 너무 오독이 많이 돼 있다고 주장하며, 의궤를 추적해 〈천수경〉 내용들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있다.

흔히 불교계에서 ‘천수를 친다’라는 표현은 〈천수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천수’라는 말은 현재 한국불교에서 널리 읽히는 ‘신묘장구다라니’를 지칭한다. 또한 가치를 구하는 ‘나무’와 수계와 서원이라는 ‘귀의’ 역시, 그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많은 본에서 ‘나무’를 ‘귀의’로 번역한다. 이처럼 저자는 “경전은 원전의 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문장에 쓰인 단어를 잘못 해석하거나 글의 문맥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오역하기 쉽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선 기존의 〈천수경〉 해설서들이 일반적으로 〈천수경〉은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입장을 취하는데 반해, 〈천수경〉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적층됐고, 의궤라는 시공간 속에서 형성됐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많은 〈천수경〉 판본과 해설서 들을 통해 그릇된 해석을 서로 비교하며 짚어보고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밖에도 〈천수경〉에 관한 문학적인 방법론을 통한 해석과 진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어떻게 표기 방식이 변화됐는지를 살피고, 현대에 맞는 진언 표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책은 불교의궤의 전모를 엿보게 한다.

천수경, 의궤로 읽다 | 이성운 지음 | 정우서적 | 1만원

이은정 기자

윤남진 특별기고 / ‘입보리 행론’, ‘중관의 열쇠’

“佛法 만나거든 사유통해 분석하라”



어느 날 초등학교 딸아이가 영어 평가대회에 나간다고 해, 시험장에 따라가게 됐다. 시험장에 아이를 입장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달랠 겸 인근의 절을 찾았다. 법당에 들려 참배를 하고 나오는 길에 현관에 법보시용으로 꽂혀 있던 월간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달라이라마의 신년법회 법문’이 실려 있었다. 우연찮게 지상법문을 접하게 된 나는 이후 산티데바가 지은 〈입보리행론〉과 달라이라마가 지은 〈중관의 열쇠〉를 연이어 구해 읽었다.

“불법은 이치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의 눈은 경전 바탕이 아닌 이치로서 키워야 합니다. 현대과학과 불교의 교차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틀림없이 올바른 것이라 믿었다.

“비구들과 혹은 현명한 이들은 녹이고, 자르고, 문지르는 금 같이 나의 말을 바르게 분석해라. 취할 바이지 존경해서는 아니다.”(중관의 열쇠 본문)

내가 이 법문을 접할 당시는 실업급여를 받는 처지였고, 번거로운 세상살이에 번뇌가 왕성할 시기였다. 법문은 나를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았다.

“불법을 대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해서 이치에 맞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아비달마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야 할 것이며, 가르침에 의지하지 말고 의미에 의지하며, 상대적인 의미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은 〈현관장엄론〉에서 말하는 의지처(依支處)를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법에 의지하고, 이것 또한 듣기 좋은 말 정도에 의지하지 말고 의미에 의지하며, 의미에도 불요의(不了義)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了義)에 의지하며, 이 요의(了義) 또한 식(識)에 의지하지 말고 무분별지에 의지하라’는 내용이다. 이어 달라이라마의 법문은 〈입보리행론〉으로 넘어간다.

“보리심은 모든 악업을 극복하는 명약입니다. 죽음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입보리행론〉으로서 보리심에 익숙해지십시오. 스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강렬한 보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보리행이 무엇이고, 보리행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제 곧바로 〈입보리행론〉이라는 경전을 사서 투철하게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입보리행론〉을 사서 읽는다면 산티데바가 말한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아마도 나처럼 너무나 부끄러워 몸 둘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은 것을 여기에 말한 것은 없으며 저에게는 능숙한 문장력도 없으니 따라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생각보다 단지 제 마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짓나이다.”(입보리행론 본문)

이치로 이해했으면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체험하고 터득해야 한다는 것, 죽기 직전까지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따스하고 행복한 봄날이다.

스님!
10년 후에도 우리 절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찰 경제의 안정은 도량을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 바탕입니다.
지금, 전국의 스님들께서 법륜대와 함께 사찰 경제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법륜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찰◈
법정사 부산
기룡사 경북
조주선관 강원
용운사 경북
육화사 경북
극락사 경기
성암사 경기
대원사 경기
무애사 부산
대관음사 대구
불암사 부산
성불사 서울
금선사 서울
미암사 충남
배과사 강남
봉화사 경북
무상사 경기
대원사 경남
용문사 경남
흥안사 경기
안심정사 충남
청암사 전남
보경사 경기
반야정사 진주
대승암 경남
광명사 경기
청용사 경기
무심사 경남
응공사 대구
동경사 울산
용관사 경남
길상사 충남
백봉사 경북
천지암 경남
용화사 부산
백연사 부산
현각사 경남
연송암 충북
극락사 경북
보광사 서울
여래사 서울
덕천사 남원
삼학사 경북
구룡암 서울
약사암 충남
지장암 서울
정암사 부산
상원사 서울
약사사 경기
법성사 부산
수곡사 부산
반야암 하동
도원사 경남
홍덕암 경기
견불사 서울
지장사 부산
문수사 부산
용화사 충북
불로정사 경북
해송사 부산
율림원 경기
건봉사 부산
법륜사 경기
고선사 정읍
심원사 광주
한승사 전남
화심사 경북
약수사 울산
관음사 부산
금성사 서울
도솔사 서울
독성암 서울
천궁사 서울
관음사 마산
연화사 서울
소원정사 부산
어울락 경남
명성암 경남
고선사 정읍
원당사 경기
미륵사 광주
부심사 경남
정각사 부산
보은정사 부산
용화사 경북
약수사 부산
보광암 경주
금강사 부산
성주암 부산
무아사 청주
문수암 부산
보광선원 부산
관음사 충북
지선사 울산
약수사 부산
태현사 광주
미륵사 광주
광산불원 서울
대법사 부산
황룡사 김해
복천사 부산
태광암 부산
묘법사 마산
대선사 경남
보문사 경남
비로사 경북
소우선원 경북
약수암 경남
약명사 부산
진영표교당 경남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신도들의 귀한 소망을 한데 모아 발원하는 법륜대입니다.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 품 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사월 초파일 전에는 기간 특성상 한정수량만이 보급 가능하오니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겠습니다.
055)941-1083 HP)010-4595-0017 덕유산 청다향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무심으로 찍은 사진… 전시회까지

사진동우회 '심상', '암자에 길을 묻다 I' 展 열통해 신심 뽐내


'심상' 회원인 원혜영 씨의 국사암.

국제선센터에서 4월 22~27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부천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진작가들이에요."

사진동우회 심상(心象)과의 만남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사진동우회라는 말에 여느 동우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취미생활로 모인 이들이 사진 좀 찍나 싶었는데, 이들이 벌써 사진 활동을 해 온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단다. 또, 작품 실력을 보아하니 웬만한 아마추어들이 아니었다. 심상에는 이미 사진작가협회에 소속될 만큼 실력이 뛰어난 작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평균적으로 준 프로급 이상들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 모두가 다 불자라는 사실이다. 심상의 회원들은 모두 부천 석왕사의 신도들로서, 1989년에 처음 창립된 이후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불교'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왔다.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불교포교에 힘써왔음에도 많은 불자들이 '심상'이라는 존재를 잘 알지 못한다.

"불자들은 잘 몰라도, 사찰에 스님들은 저희를 많이 알고 계세요.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의 사찰들을 돌아다닌 이유도 있지만, 매년 전시회를 열고 사진집을 전국사찰에 법보시 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심상은 부천에선 이미 유명 인사들이다. 14년 전부터 지역 내 복지회관과 결연해 가족사진, 칠순·팔순 잔치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장수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웬만한 축제에는 거의 참가해 지역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에는 심상이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

"매년 전시회를 열고 나름 사진으로 불교포교에 힘써왔지만, 회원 수가 적어 전시회 준비하는 것도 벅차, 매번 홍보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불자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심상에는 14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이 심상과 인연을 맺게 된 연유도 저마다 다양하다. 심상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향숙 씨는 다른 사진 동우회에서 활동을 해오다 자신이 다니는 사찰의 스님의 권유로 심상에 들어오게 됐으며, 손상훈 씨는 우연히 전시장을 찾았다가 신입회원 모집공고를 보고 심상과 인연을 맺게 됐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무료한 하루를 보내다 우연히 '사진으로 보는 문화교육' 강좌를 통해 심상에 들어온 이가 있는가 하면 마냥 사진이 좋아 심상에 들어온 이도 있었다.

강향숙 회장은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로 삶이 굴곡지게 되는데 사진은 그럴 때마다 나를 지탱해 줬다"며 "사진작업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수행과 같다"고 말했다.

심상 회원들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정기출사(출장사진)를 나간다. 차량 이동이 많은 주말을 피해 이들은 생업이 따로 있음에도 사진을 위해 일부러 평일에 시간을 낸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 까지 꼬박 24시간 동안 한 컷이라도 더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와 사투를 벌인다. 특히 전시회가 점점 가까워지면 좋은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찍기 위한 열정으로 뜨겁다.

"항상 전시회 때가 되면 아쉬워요. 더 좋은 작품을 찍고 싶은데 성에 차지 않으면 정말 속상하죠. 다른 회원들의 좋은 작품을 보면 마냥 부럽고요. 그래서 개별촬영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서로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하죠."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들이라면 불교 외에도 다른 소재로 작품을 남기고 싶기도 하겠건만, 이들은 "우리나라 문화재 80%가 불교 문화재이듯, 불교에는 작품 소재로 삼을 콘텐츠들이 무궁무진 하다"며 불교를 통해 사진촬영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좋은 작품을 하나라도 더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20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작품들이 그대로 쌓여만 가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이 재능을 더욱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아쉽습니다. 전시할 공간도, 사찰에 기부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시할 공간만 더욱 많이 주어진다면 많은 불자님들에게 저희 작품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귀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들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암자들을 찾아다녔다. 심상 회원들은 산사에 조용히 자리한 암자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살이에 쌓여만 가는 번뇌와 집착들을 씻겨 내려가게 한다.

저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기엔 아까운 추억들이 있다. 그런 소중한 찰나를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과거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잡이며,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소개시켜주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심상이 만들어낸 새로운 인연의 공간 '암자에 길을 묻다 I'전은 4월 22~27일 서울 국제선센터, 5월 9~10일 부천석왕사 전시실, 5월 13~18일 부천문예전시관에서 열린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④ 드라마 49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지금'



착하게만 살아오던 한 아가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예정에 없던 그녀의 죽음은 저승사자도 당혹케 만들었다. 저승사자는 그녀에게 "49일 안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세 사람의 눈물을 49일 안에 모아 오면 이승으로 회생시켜 주겠다"고 일러준다. 그녀는 확신한다. 진정한 사랑과 진실의 눈물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고. SBS 수목드라마 '49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궁금하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를 그리며 사랑의 눈물을 흘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어왔다. '진실'된 인연은 있었던가. 세상에 진실은 있었고, 사랑은 있었던가.

남규리(극중 · 신지현)의 영혼은 중유(中有)의 공간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간다. 뜻밖에도 그녀는 자신의 거짓된 삶과 만난다. 유복했던 집안은 대출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던 약혼자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허깨비 같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뜻밖의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었다.

>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 있나요?

그녀는 타인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는 떠도는 영혼이 돼서야 자신을 감쌌던 무명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에게는 진심을 헤아리고 실체를 보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뒤늦게 발견한 자신의 거짓된 삶을 바로 잡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전개 중이다.

부처님은 큰집을 증축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노인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게송이 있어 들려주고 싶다"고 청했다. 잠깐의 시간이면 됐었다. 그러나 노인은 "아,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뒷날 다시 오시면 그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라며 부처님의 설법을 미뤘다. 잠시 후, 노인은 떨어진 서까래를 맞고 죽었다. 그에게 '뒷날'은 오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다.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 진실된 인연도 알아보지 못하는 법인 듯하다.

"바쁩니다." "다음에요."

요즘 사람들 입에 달고 하는 말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독한 허깨비를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이다. 세상에 행복은 어디 있고, 진실은 어디 있는 것일까. 혼령이 됐을 때 과연 진실한 눈물을 구할 수 있을까. 진실한 인연은 맺을 수 있을까.

생사일여(生死一如),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말한다. 경계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저만치 먼 일 같다. 삶의 진면목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사랑하는 이는 '지금 내 앞'에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같고,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소중한 인연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는 일은 때늦은 발버둥이리라.

'49일'은 '49재(四十九齋)'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삶과 죽음, 진실과 허상, 인과를 보여준다.

49재는 망자를 위해 7일마다 올리는 천도재다. 사람이 죽은 후 중유에 머무는 기간은 49일로 매 7일마다 저승의 왕들에게 심판을 받고 업에 따라 새 몸을 받는다. 드라마 속 그녀는 49일의 심판을 저승의 왕들이 아니라 자신의 구도기와 같은 사랑 찾기로 대신하고 있다.

그녀가 머무르는 49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던지는 삶의 과제이고 화두다.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회생할 수 있기를 응원해 본다.

유필화 교수의 게송으로 읽는 '경영의 지혜'

경영의 진리

시장(市場)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
떠나라,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욕구를 찾아서
당신이 가는 길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당신의 목적지는 풍요로운 황무지
당신의 몸은 현장, 감습은 겸양, 머리는 상상력

지극한 정성으로 원가를 낮추어라
당신과 고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여러 겹을 겪어 일을 성취하라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한다

경영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보금자리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숨쉬게 하라
질서와 혼돈을 적절히 포옹하라

경영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보금자리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숨쉬게 하라
질서와 혼돈을 적절히 포용하라
거문고의 줄을 너무 늦추거나
조이지 말아야 하듯이.
질서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혼돈만 있으면 땅이 꺼져버린다.

이제는 섬기는 지도자의 시대
고객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섬겨라
시장은 당신의 회사를 사랑하고,
임직원들은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을 걸어 다니는 비전으로 볼 것이다
당신의 회사는 번창하는 행복한 공동체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학장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 선문염송 17권 〉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 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촉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新 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디자인 특허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야광용 양초 (호랑이 · 연봉)



등大



육 각 초



칠성초 (연화 · 호랑이 · 반야)



연화 (大 · 中 · 小)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에휴~ 발 냄새, 어떡하지?

땀나는 발 원인과 치료



김대신(가명) 씨는 오랜만에 찾은 법당에서 앞사람 발 냄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옮겨갈 자리도 마땅치 않았지만 남자가 유난 떤다는 핀잔을 들을까봐 그저 자신의 코가 냄새에 빨리 무뎌 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법당에서 발 냄새 때문에 고생 해본 기억, 한 번 쯤은 있을 것이다. 자신의 발에서 냄새가 날까봐 법당 맨 끝자리만 고집하는 사람. 앞사람 발 냄새 때문에 법회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하나 둘씩 보게 되는 모습이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봄날, 신발 속에서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발 냄새'라는 단어만 꺼내도 코를 잡고는 깔깔대며 웃는다. 우리에게는 발 냄새는 '방구' 만큼이나 친숙하고 재밌는 소재이다. 하지만 실로 일상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발에 땀이 많은 이들에게 발 냄새의 고충은 가벼이 웃어넘길만한 일이 아니다. 외국계 회사 비서로 일하던 K양은 그녀의 완벽한 외모와는 달리 발에는 땀이 많이 났다. 호텔에서 거래처와 미팅이 있던 날 다다미방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고는 황급히 화장실로 피신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세면대에 다리를 올려 발을 씻고서야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드라마 속 콩트 같지만 아이 둘을 낳고서야 웃으면서 말 할 수 있는 가슴 아픈 기억이다.

발 냄새는 질병이 아닌 개인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도 잘 찾지 않고 도움을 잘 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남에게는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다. 발 냄새. 어떻게 좀 해보자.

남들보다 땀 많이 난다면

다한증은 신경전달의 과민방응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이상현상이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나 약물 치료는 가능하다.

다한증(多汗症)은 질병에 의한 속발성 다한증과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원발성 다한증으로 나눌 수 있다. 속발성 다한증이란 결핵, 당뇨, 갑상선 항진증 등 질병의 이차적인 현상으로 전신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 결핵을 의심할 수 있고, 땀을 흘리고 난 뒤 속옷이 누렇게 변해있으면 간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원발성 대개는 심리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의 약 1%가 원발성 다한증을 호소한다.

래오이경제한의원 이경제원장은 "한방에서는 땀이 나는 원인을 어혈이 많으면 땀이 나는 것으로 보고, 어혈을 풀기위한 치료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발 냄새 "세균"이 문제

발바닥에서 나는 땀 자체에는 아무 냄새도 없다. 또한, 땀이 많다고 해서 냄새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땀이 많아지면 발의 각질층이 무르게 되면서 생긴 세균 증식이 발 냄새를 일으킨다. 각질층이 세균에 의해 분해될 때 생기는 '이소발레릭산'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냄새의 주범이다.

"세균이 문제다"라고 말하면 '나는 무좀은 없는데…' 하고 생각하거나 '그놈의 무좀이 또 말썽이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발 냄새는 세균에 의한 것이고, 무좀은 곰팡이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무좀과 발 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발 냄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발 냄새 퇴치법

가정에서…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청결이다. 43℃의 약간 뜨거운 물에 15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하거나 항균 비누로 꼼꼼히 마사지 해가며 씻어준다. 이경제 원장은 "식초나 레몬 한두 방울을 물에 희석해 행궈 주면 냄새제거와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 한때 무좀 치료의 한 방법으로 유행했던 100% 식초에 발을 담그는 것은 일종의 박피로 오히려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두는 두세 켤레 정도를 번갈아 신고 같은 구두를 신지 않는다. 신고난 뒤에는 마른걸레로 잘 닦아서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말려 준다. 부츠나 농구화같이 같이 통풍이 힘든 신발은 신문지를 넣어주면 습기를 제거해 도움이 된다. 향수나 방향제는 발 냄새와 섞여 더 역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삼가자.

직장에서…사무실에서는 슬리퍼를 신어주거나 여벌의 구두를 두고 바꿔 신는다. 땀 흡수에는 나일론 섬유인 스타킹보다는 면양말이 좋다. 발가락 양말을 신는 것도 효과적이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물티슈로 발을 닦은 뒤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 양말로 갈아 신으면 뽀송뽀송한 발을 유지 할 수 있다.

도움말 래오이경제한의원 이경제 원장
참고 서울대 병원 의학정보실, 〈몸이 유연해야 몸이 산다〉
천진영 기자

양방·한방 족(足) 다한증 치료법

양의학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한다면 다한증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흉강 내시경을 통해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이 수술은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큰 수술이므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효과는 영구적인 반면에 손발이 아닌 등이나 배에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부작용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보톡스 주사요법이 있다. 보톡스는 발달된 근육을 둔화시키는 미용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원리로 땀샘의 기능도 둔화시킨다. 시술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단기적이다.

한의학에서는…

다한(多汗)의 원인을 기(氣)가 허하거나 몸 안에 열이 지나치게 많은데서 찾는다. 체내 열이 맺힌 부분은 찾아내 혈을 풀어주고 기가 허한 부분은 기운을 보충해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다한증을 치료한다. 이 한의사는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땀이 많은 것은 고치기 힘들다. 어느 날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면 이것은 체질 아닌 질병으로 간주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족 다한증에 좋은 혈자리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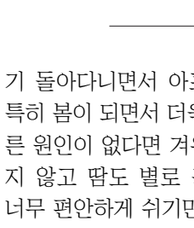
▶ 삼음교를 마사지 해주면 어혈을 풀어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다한의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다. 삼음교는 안쪽 복사뼈에서 3cm 위의 혈자리로 발로 연결되는 혈관들의 만남의 광장같은 장소이다.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 쌀알을 붙여 두기만 해도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축빈은 안쪽 복사뼈에서 5cm위쪽에서 다시 1cm정도 뒤쪽에 위치한다. 엄지로 세게 누르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주로 발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



건강칼럼

담 결림과 찜질방, 기의 소통



정지천 내과 교수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유머 '염라대왕 시리즈'에서 열탕지옥 입구가 붐비는 것은 한국여성들 때문이라고 한다. 워낙 찜질방을 좋아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시원하다'라나.

왜 찜질방에 오래 있는 것을 즐길까? 매일같이 가사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어깨나 허리, 혹은 옆구리가 결리고 쑤시고 아파서 견디기 힘들어 하다가도 땀을 푹 내고 나면 거짓말같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 보아도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몸이 무겁고 찌뿌듯하면서 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고 호소하고, 특히 봄이 되면서 더욱 많아진다. 별다른 원인이 없다면 겨우내 거의 운동하지 않고 땀도 별로 흘리지 않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쉬기만 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기(氣)가 안일(安逸)해 정체(停滯)되고 그래서 담(痰)을 생기게 했기 때문이다. 흔히 담이 결려서 아프다는 경우로서, 평소 비만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불어난 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한다.

담은 '담음(痰飮)'의 줄임말로서 몸속의 물기가 유통되지 못하고 엉켜서 가래처럼 끈적끈적하게 된 것이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조절되지 못하거나 기(氣), 혈(血) 및 수(水)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되면 생겨난다. 습기나 찬 기운, 혹은 열 기운을 많이 받거나 음식이나 물,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 생겨나기 쉽고, 신경을 많이 써서 기가 소통되지 못하고 맺히는 경우에도 생긴다. 담은 여기저기 쌓여서 오장의 활동과 기, 혈의 소통을 방해하는데, 특히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온갖 병증을 유발한다.

담을 없애려면 비위장을 건실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 주는 것이 기본이다. 담을 삭여주는 약재들은 몸을 가볍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에 대소변과 땀이 잘 나오고 체중이 줄게 된다.

몸이 냉한 체질에는 반하, 삽주뿌리, 귤껍질, 생강, 열성 체질에는 탱자열매, 패모, 메밀, 다시마, 칡뿌리 등이 쓰인다.

소변이 적게 나오고 몸이 잘 붓는다면 율무, 팥, 옥수수수염 등이 좋으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결명자, 동규자 등이 좋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한의서에는 '모든 병은 기에서 생겨난다'고 했다. 기는 허약해져도 문제지만 소통되지 못하면 더욱 큰 문제다. 기의 소통이 혈의 순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가 통해야 혈이 통하는 것이고, 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 혈도 통하지 못한다. 실제로 기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통증, 천식, 부종, 대소변 장애, 신경증 등은 물론이고 중풍, 당뇨병, 성기능장애 등의 중병들도 오게 된다.

찌뿌듯한 몸은 담(痰)이 원인
귤껍질 달인 물 담 제거 탁월

〈동의보감〉에 정체된 기를 치료하는 명 처방이 둘 있다. 중한 경우는 귤껍질 한 가지만을 달인 '귤피일물탕(橘皮一物湯)'을 마시면 된다. 귤껍질이 기를 순행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고 담과 습기를 제거하는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가벼운 경우는 운동으로 다스릴 수 있다. 2500년 전에 무려 73세까지 생존했던 공자(孔子)의 장수비결에도 쉴 새 없이 몸과 마음을 써서 노력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자는 마음이 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비로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천체의 운행이 쉼 없듯이 군자도 항 움직이고 활동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세상사 모두 막히고 맺혀서 되는 일이 없듯이 '기(氣)'도 막히거나(氣滯) 맺히면(氣結) 병증이 생긴다. 그러지 않으려면 꾸준히 움직이고 운동하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풀어줘야 한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신뢰 받고 있습니다"

저 '고복자 효사'가 지난 10년에 걸쳐 임상실기용으로 써낸 아래 '육임활용서' 및 '육임CD프로그램' 들은 매서운 그 '정확도'와 탁월한 그 '효과성'과 그 놀라운 '귀신·사숭·산소탈등의 적시'는 이미 검증 되어있습니다.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입하신 분이 원하시면 '효과성'을 위해 방문 드리겠습니다.

1.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아래 육임활용서 및 각종 오행술의 종합 장착품 - 인증기능을 없애고 여러곳에 장착 시키게끔 되어 있으며 방문자의 속사정들이 순서적으로 화면에 미리 떠 있습니다. **할인가격: 190만원**

2. 고귀명수
육임 법칙에 의한 내방자의 당면 핵심사는 물론 그의 일생사를 정형화시켜 구구한 해석 없이 즉시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도록 한면 한눈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할인가격: 130만원**

3. 효사육임산책
방문자의 당면사들을 고차원단계로 적시해 놓은 2011 개정 증보판 휴대용입니다. **할인가격: 90만원**

4. 효사오행제례의식집
방문자의 해당 재액별로 독자적 수법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매우 탁월한 수법서 입니다. **정가: 15만원**

5. 불가법요집
성직자 전용용으로써 감동적인 법회식순- 법회목적사에 부합되는 경전인용경구 - 각종 행사취지에 맞는 30여 항목의 신선한 기도문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정가: 5만원**

6. 위 외 다수의 육임 학습서, 활용서, CD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 대표전화 02)783 - 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식회사 www.taotemple.net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② 강남대 이 찬 수 교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대안연구공동체(대표 김종락)는 3월 21일부터 서울 서교동 서교빌딩에서 이찬수 교수의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를 개최하고 있다. 4월 4일 3번째 강좌는 불교의 열반과 기독교의 하느님나라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찬수 교수는 "열반과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세간적 질서가 아닌 초세간적 질서, 종말적 질서라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열반과 하느님 나라는 죽고 난 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here and now)'의 질적 전환을 통해 이뤄지는 영적 세계이며 영생 세계"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강의는 △보살과 예수 △불성과 하느님의 모상 △보신불과 그리스도의 몸 △〈대승기신론〉과 〈요한복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업 방식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강의 교재는 길희성 前 서강대 교수의 〈보살예수〉, 이찬수 교수의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인간은 신의 암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www.paideia21.org (02)777-0616

정리=이상언 기자



불교만큼이나 기독교도 '지금 여기서' 강조해왔다

#열반 vs 하느님나라

하느님나라가 기독교의 존재 이유이듯, 열반은 불교의 존재이유입니다. 무지와 탐욕, 경쟁과 다툼, 권력과 억압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초세간적 자비와 평화의 상태입니다. 열반과 하느님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반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상태, 욕망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nirvāṇa를 음역한 것입니다. nir는 '여의었다' vāṇa는 '속성' 입니다. 불이 꺼진 상태, 모든 속성이 여읜 고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유여의(有餘依)와 무여의(無餘依)열반으로 나뉩니다.

유여의열반은 현세에 몸을 가진 채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증득하는 것입니다. '여의(餘依)'는 과거 업의 결과로 남아 있는 몸을 뜻하는 것으로 몸을 갖고 체험하는 현생에서의 해탈입니다. 무여의열반은 현생 열반과 달리 과거 업의 결과인 몸이 소멸한 후에 주어지는 열반입니다.

하느님나라에서 '나라'는 바실레이아(basileiva) 즉 다스림, 주권이라는 뜻으로 공간이 아닌 상태입니다. 하느님나라의 개념은 예수의 핵심사상으로, 신이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느님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구름 너머의 특정 공간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후의 어떤 세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나라는 인간의 차별적 질서가 아니라 불평등, 불의, 억압, 소외, 차별, 갈증을 넘어선 초세간적 세상과 가깝습니다. 기독교적 언어를 쓰자면 종말적 질서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깨달은 자에게는 이미 온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긴장이 있는 말입니다. 종말은 시간적 종말보다는 역사의 악순환에서 완전히 극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어디론가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END'의 뜻이 끝이라는 뜻 외에 목적의 뜻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는 세계, 이상적 세상입니다.

이상 세계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이미 실현된 세계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는 현재의 질서가 이상적 질서로 나아가기 직전, 임박해 있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죠. 예수가 최초로 외친 메시지입니다. 미래의 일은 현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일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약속은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나라가 오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나라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미 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은총(Grace)의 뜻 속에서는 하느님나라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신의 자기 내어 줌 즉,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입니다. 신의 자기 전달, 무조건적인 자기 내어줌입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보다 communication의 단어 속에 'uni' 즉 일치된 세계입니다.

신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신에 의해 전적으로 신과 하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준 신에 기반해서 세상을 보는 이는 이미 하느님나라에 온 것과 다름없고, 모든 것이 성화된 세계입니다. 기독교에서 은총론은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는 말과 같이 신의 은총에 의해 신화돼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열반과 하느님나라는 죽고 난 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here and now)'의 질적 전환을 통해 이뤄지는 영적 세계이며 영생 세계입니다. 또한 세간적 질서가 아닌 초세간적 질서, 종말적 질서라는 측면에서 일치합니다.

열반은 경험을 떠나 말할 수 있는 실재가 아니며, 경험과 실재가 둘이 아닌 세계입니다. 열반은 경험하는 자에게는 '객관적' 실재이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객관적 실재가 아닙니다. 하느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 실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서〉에는 "하느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초월적 실재, 감추어져 있는 실재로서, 영적 눈이 있는 자만이 발견하고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열반이나 하느님나라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심리적 실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확실하고 영원한 실재입니다.

> 번뇌 망상 사라진 열반은 초월성 중시
> 초세간적 하늘나라는 공동체성 강해

#공동체성·사회적·정치적 함의

예수가 제시한 비전과 부처가 추구한 열반이 지닌 공동체성·사회적·정치적 함의는 좀 다릅니다. 하느님나라는 열반에 비해 공동체성과 사회성이 더 강하고, 열반은 하느님나라에 비해 초월성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열반에 사회적·정치적 함의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 대안적 행동을 함으로써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사회를 폭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함의가 있는 것이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게 된 것은 권력이나 모순된 구조가 그를 죽인 것인데, 부활을 선포하는 행위 등은 모순된, 차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과 같습니다.

열반도 현실세계 현상세계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사회 정치적 모순과 함께하려는 보살정신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같은 것이 중생과 더불어 살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자세라고 봤을 때, 넓은 의미의 사회정치적 모순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이와 함께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사회정치적 내용이 함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성보다는 온전한 일치 속에서 긴장 없는 도전입니다. 오랜 종교전통의 역사에서 보면 사회 참여적 발언과 행동은 기독교가 더 강했습니다.

열반은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초월한 영적 실재인데 반해, 하느님나라는 초역사적(종말적)질서이면서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위에서도 이뤄지는 세계로서 사회적·정치적 의의를 더 직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몇몇 기독교인은 하느님나라를 마음속으로만 실현되는 주관적 세계로, 사회정의나 세상의 정치질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거나, 아예 사후 세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사랑과 정의에 입각한 하느님나라라는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느님나라의 사랑, 정의 평화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나라는 결코 사회개혁이나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 세계는 아닙니다. 신의 기반에 의해서 이뤄지는 신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회개의 영적 전환 없이는 경험할 수 없고 실현될 수 없는 것이 하느님나라입니다. 회개도 신적인 행위이지 인간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통적으로 세계와 역사의 최종적 완성을 믿습니다. 최악의 갈등과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계, 이 역사가 완전히 변화돼 새로운 세계로 완성될 날이 온다고 기다리는 종말적 신앙입니다. 부활(resurrection)과 영생(eternal life)의 세계가 전개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느님이 타락한 창조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더 아름답고 찬란한 '새로운 창조'로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와 지금 이 세상 사이에 얼마나 연속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후 열반은 기독교 종말의 비전보다 더 초월적입니다. 기독교는 더 구체적이고 현세와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열반은 현재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인 반면, 사후 하느님나라에서의 영생의 세계는 지상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어떤 형태로든 보존되는 세계라고 기독교는 이해합니다.

부처는 사후 열반을 무언(無言)의 신비로 남겨 두었습니다. 무기(無記)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사후 열반의 세계를 여래가 있다, 없다고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지성과 언어로 노할 수 없기에 침묵을 지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나라는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으로 하느님을 대하며 하느님과 하나되는 자들의 세계일 것입니다. 빛과 빛이 어울리듯이 나와 너의 구별이 사라지고 지상에서의 모든 기억이 사라져 그곳에서의 행복과 불행의 경험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세계, 그야말로 무심(無心), 무념(無念), 무아(無我)의 세계일 것입니다.

열반과 하느님나라가 지향하는 것과 구조는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화는 인간화입니다. 기독교의 한계는 신화는 예수에 전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접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예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하느님 사랑의 극치는 죽음이라 합니다. 사랑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나는 없어지고 사랑의 주님만 남는 세계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품에 안겨 '나'라는 인식이 사라져야 완전한 구원, 진정한 내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하느님이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이 되는'이라고 하듯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불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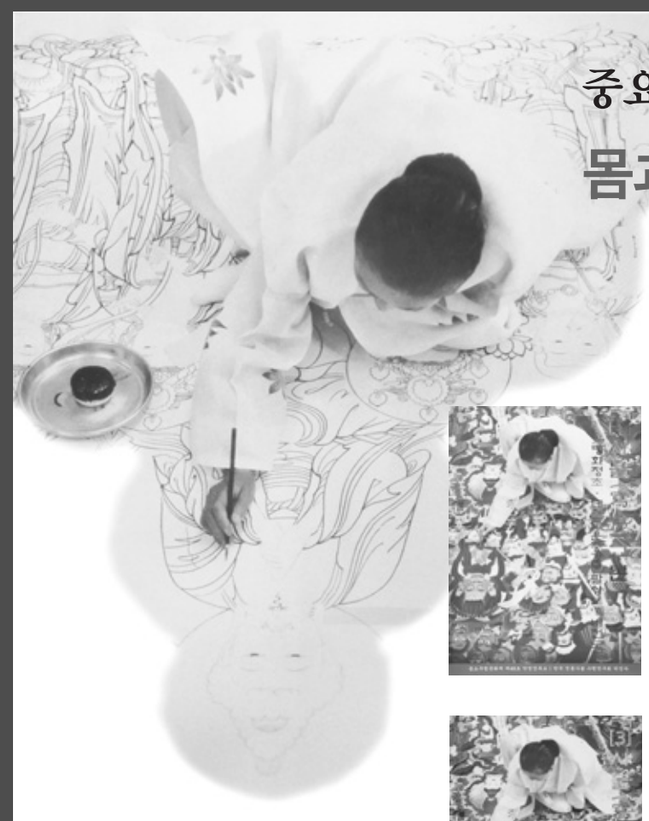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지난 19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金泥 부모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러나온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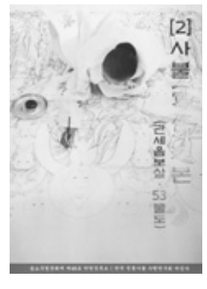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사불교본(1)
탱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5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투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연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간경화, 치매, 사업성취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영가 찾는 법 특강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법.
매주 수요일 오후 공개 강좌
백암역리원 (동작구청옆)
02)597-1101
011-9150-2284
초보반 별도모집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자녀교육 상담기도
가정방문 • 사업성공
상담 기도해 드림
능엄신주 가족들이 열심히 독송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변비
가족갈등, 결혼인연

승려 공부하시고 사주, 역학공부 하실 분 기초부터 책임지도 함
(인천 제물포)
010-2235-1717

조상영가천도와 축혼제(畜魂祭)
• 일시 : 2011년 4월 27일
부산국제신문사대강당
조상영가천도와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원혼을 해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강문홍.조갑연.강병국.강병철.진현주
010-3871-2398
후원 : 동양당한약방(경남 산청군)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대체의학 비법
악성 오십견, 병명없는
허리통증, 통풍, 대상포진
(1~3회 완치)
비 법 전 수
010-7703-3825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충남 태안
041)673-9874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사무실 직원, 공양주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서울 금호동
02)2234-3310
010-6260-3310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행자모집 3명, 공양주 1명 모집합니다
▷미암사
010-7262-2959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염 불 역 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716-3811

각종 불사 상담 (단청,탱화,개금,신축)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문화재청 화공 기능 보유자
011-9387-1518

호수가에 위치한 정말 경치 좋은 펜션입니다 관리하며 수양하실 40~50대 보살님을 원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 호수가 아름다운 집
017-297-397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주
011-396-586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010-8907-6378

비구니 스님, 공양주, 종무실 여보살 모십니다
(책임자 연령관계없음)
광 명 사
010-2660-40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출퇴근 가능하신 분
▷ 55세 이하
▷ 서울 상계역 근처
011-9002-8523

조금 여유있는 부전 자리를 찾습니다 사찰운영을 맡아도 좋습니다
▷50대 비구
010-8677-1277

大宗師 큰스님의 親筆 親見 示寂하신 大宗師 큰스님의 親筆額字를 求入所藏하실 분, 電話 주십시오
011-578-1413
* 토굴에서 불사한 '달마성취도'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기도비법
• 스님은 물론이고 부처님을 모신 사람도 배울수있습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복부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4대 항암약초 꾸지 뽕나무 (神이 내린 보약나무)
산뽕나무(꾸지뽕) 효능 (소변이 잘 나오고 변비치료에 탁월한 꾸지뽕)
고혈압,관절염,당뇨병,지혈,수족냉증,구갈,각기,수기,태기,산기,해열,
기관지염,이뇨,무좀,중풍,토혈,식은땀,해수기침,흰머리검어진다,
눈명,비증,팔다리 쑤시는 사지경련,각기,부종,사지마비,류마티스,관절염
054)383-8553 / 011-9585-4908 혜봉스님 직접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 농협 703088-51-013554 지장선원
스님들께는 3만원에 올리겠습니다 (1박스*50개)

법원 등기된 법인양도
불교여래 조계종
불교석가 조계종
불교승가 조계종
한국불교 법인종
불교 조계종, 실천불교 조계종
불교법인 단체종 연합회
전국불교 승가종 연합회
011-412-8040 (인현법광)

조계종 산내 암자인 고려지장보궁터에서 산승이 복원한 수행도량이산자수려한 곳 이러한 곳에서 평생 시봉하며 노승이 수행도량을 주지로써 관리 운영 할자를 찾고 있음. 그리고 40~50대 불심있고 평생을 인연터로 삼을 신심있고 조석으로 함께 특별한 기도하며 정진할 공양주 구함. 또한 스님될 여행자도 구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철곡, 구미, 포항, 서울 동대문, 미국뉴욕,
중국 칭다오 , 호주 시드니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 의 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의료개방과 통합의학 시대를 준비하는 전통침구학 연수세미나
* 의료개방 대비, 통합의학에 필요한 인재양성
* 해외 침구사 양성 및 한방병원 설립, 취업지원
* 중국 중의대학과 학술교류로 중국자격증 취득가능
* 가정생활상식, 자가진단을 위한 세미나
* 27년간 침구학을 전문으로 강의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안내
· 기본과정(4개월)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중급과정(6개월)
주요과목 : 침구치료학, 진단과치료, 자연식품과한방
·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중의학,경혈학,진단학,방약학,해부학 등
· 연구과정(3개월~1년, 과목별)
주요과목 : 사암오행, 동씨기혈, 활법운동처방, 명리학 등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강좌 일정
서울) 4월 6일(수) 14시
광주) 4월 9일(토) 14시
서울) 4월10일(일) 14시
제주) 4월14일(목) 19시
대구) 4월19일(화) 14시
부산) 4월21일(목) 14시

개강일정
대전15기) 4월 12일(화요반) 19시
서울212기) 4월 13일(수요반) 14시
광주22기) 4월 16일(토요반) 14시
제주19기) 4월 21일(목요반) 19시
대구25기) 4월 26일(화요반) 14시
부산35기) 4월 28일(목요반) 14시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서울본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경북 군위군 부계면 금륜사
051)524-9406 / 010-6569-1010 (법선)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2억 7천만원

010-7157-161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지하철100M이며 즉시법회 가능함

- 위치 : 서울
- 법당 : 18평
- 요사 : 80평
- 부지 : 700평(타인소유)
- 가액 : 5억 5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30평
- 부지 : 공유지분
- 가액 : 3억
  시내 APT단지 상가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금정산 대사찰(천년고찰)

- 총대지 : 약 5700평
- 법당 약80평, 요사채 및 기타 5동
- 부산 금정산 자락
- 가액: 18억

진주 아름다운 사찰(100년)

- 대지:600평
- 법당 20평, 요사 및 기타 5동
- 진주 인터체인지 5분거리
- 주차장 120평
- 총금액: 4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전국 사찰 부동산 전문

전국 사찰 암자 토굴 급히 구합니다
도량을 구하신다면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한 사찰 부동산 전문공인중개사 이박사에게 상담하세요
사찰 접수와 안내는(매도자, 매수자분)거리 관계로 약간의 경비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사찰 사진은 「다음까페」 이박사 공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 드림)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우포늪
- 대지 총 320평
- 법당. 조립식 24평
- 화실 24평(탱화제작)
- 요사,적벽돌기와2평,황토방4평,석탑1기
- 가액: 1억 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000만원

011-742-8458

영천토굴터

- 위치: 영천시 고경면
- 시내에서 10분이내
- 2차선에서 100M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금호
- 대지 108평, 건물 60평
- 법당 15평, 거실(大)1, 공양간(大)1 방3, 보일러실, 창고
- 식수: 지하수
- 주변여건: 뒤에는 작은 산, 앞에는 큰 저수지 위치
- 가액: 집기포함 9천만원

010-4504-1246

바닷가 기도처 안내

- 전망좋은 바다와 도로 접
- 위치 : 포항 북구 슬라브 집
- 대지 65평, 건평 23평
- 가액: 7500만원

010-6474-5903
011-825-3181

도심사찰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평수 : 총 120평
- 3층: 90평, 법당 45평 방5, 화장실4, 후원 및 첫 주방
- 4층: 30평 요사(대중살림가능)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현 법회중
- 삼존불, 후불, 인등 300등, 관음원불 108불, 삼성각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679-1080

한 국 불 사

- 위치 : 경기지역
- 가액 : 20억
-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10-3154-353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6천 7백만원

011-848-24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골
- 포교당, 별장, 사무실, 작업실, 전통찻집 갤러리샵으로 사용가능한집
- 3층건물
- 가액: 3억(절충가능)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오창에서 천안시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중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선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75-27(2층)
- 평수 : 38평
- 아미타불 삼존불
- 대통 왕 쑥찜질방 영업중
- 살림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1-859-5550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39사단, 부근
- 3층 대형상가내, 2층 45평
- 법당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1억 8천만원

010-8675-8636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과 구미 중간, 김천시 남면
- 평수 532평 • 시설완벽
- 요사채 20평, 법당 20평, 공양간 20평
- 가액: 1억 6천만원

016-540-3313/054)733-7881
011-540-0027/054)453-111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수정4동
- 대지 66평
- 사용평수 100평이상
- 뒤채소밭,산,바다보이고전망좋음
- 앞 도로접 주차가능
- 1층 요사채 37평, 2층 법당 20평
- 가액: 2억 8천만원

주인직 010-3133-0018

사 찰 안 내

- 위치 : 봉화시내 부근야산
- 법당 10평
- 산신각 1평반
- 전답 1,000평
- 요사채(2동)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5317-773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운문면
- 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
- 대지(전)1,012평
- 운문댐근교,주차시설용이
- 50여년된 작은 고찰
- 가액 1억5천만원

011-504-4321

명당고찰터안내

- 250년 사찰터
- 약수물 있음
- 뒷산넘어 분당산책길 있음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직동
- 부지 1267평(일부토지정리함)
- 가액: 25억

017-361-33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운문면
- 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
- 대지(전)1,012평
- 운문댐근교,주차시설용이
- 50여년된 작은 고찰
- 가액 1억5천만원

011-504-432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약 60평
- 4층건물 3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모든시설완벽, 주차장완비

010-2644-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최고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면소재지 독점
- 자기땅에 자기건물 20평 주차공간 넓음
- 삼존불,후불,신중,산신,탱화,원목불단
- 집기 몽땅 넘겨줌,몸만 오시면 법회함
- 가액 : 4000만원(융자 1200만원 별도)
- 전화 후 방문(절충가능)

055)582-3397
017-722-775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

010-3112-35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포교원안내

- 위치 : 남양주시 호평역 앞
- 평수 3.4층 각 70평
- 종무소, 법당, 창고, 주방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시주함
- 지방 불사 관계로 인해 안내함

011-516-55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최고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터,전원주택

- 위치: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
- 경관수려, 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확보 가능 (지방도 인접)
- 전2필지 720평 평당 30만원
- (절충가능)

031)531-1300
011-722-130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부천 자유시장에서 3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봉안(미타, 지장, 관음)
- 보증금 일천만원(월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0-6227-5965

사찰터,전원주택

- 위치:경기도포천시신북면갈월리
- 경관수려, 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확보 가능 (지방도 인접)
- 전2필지 720평 평당 30만원
- (절충가능)

031)531-1300
011-722-1305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임야 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절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3-0697
011-9901-3530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1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1억 7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어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최고시설
- 법당, 방1개 (친견실), 주방
- 평수: 40평(전세금:1,500만원, 월세 40십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결정 (꼭필요한분만전화주세요)

010-7533-43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명 당 터 안 내

- 위치: 지리산 청학동
- 대지 약 450㎡
- 본채, 사랑채 있음
- 기도처, 수양지, 양택, 기타
- 가액: 9000만원

010-2029-2932
박 처 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단양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 평수: 77평
- 삼존불,소불500불, 친견실, 공양간
- 시설A급. 신도확보
- 전세 3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7330-3902
010-9265-55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든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7천(조정안됨)

011-816-9104
010-3815-9104

포교원 및 선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2동(구남역3분거리)
- 대지 : 125평 건평 : 300평 지하 : 1층 지상: 4층
- 가액: 9억 (현재은행 : 3억3천6백 융자)
- 4층 : 포교당 (선원) 평수 : 55평
- 3층, 2층 : 노인병원,어린이집 가능
- 1층 : 기타업종 가능 (서울,경기,계신 분중 부산포교자리)

011-488-77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든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7천(조정안됨)

011-816-9104
010-3815-91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8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인연이 되면 스님이나 보살님께 양도가능

011-588-8238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 15분거리.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층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

010-3337-9736

분명 내가 뭔가를 놓친거야. 그게 뭘까?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6)

오두막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무니는 불을 찾아 켜기 위해 벽을 더듬거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찍 왔구나."

무니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 영감이야?"

"그래. 잠깐만 기다리려무나. 종이버터가 떨어져서 불이 다 꺼져버렸거든."

그리고 금방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오두막 안이 환해졌다. 이제 고작 하나의 램프에 불을 붙였을 뿐인데도 그랬다.

"어둠 속에서는 말이다. 하나의 작은 불빛만 나타나준다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니?"

밝아진 오두막이 새삼스럽다고 둘러보는 무니를 향해 유리 영감이 말했다.

"아니. 여기 있는 램프를 다 켠다고 해도 못 보는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뭘."

당연하다는 말투였다. 마지막 램프에 불을 붙이던 유리 영감이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무니를 쳐다봤다. 그러나 아이의 시선은 오두막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데 팔려있었다.

"거기 앉으려무나."

무니는 유리 영감이 가리키는 의자에 앉아 본격적으로 오두막 안을 둘러봤다. 아침에는 정신이 없어 미처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신기했다. 무엇보다 난다에게 이야기 들었던 대로 책이 무척 많았다. 마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손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이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이 지역에는 유리 영감뿐일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끈건 여닫이문이 달려있는 책장이었다. 손잡이도 아주 특이했다.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어서 문까지 달아 두었을까. 무니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유리 영감이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말이다. 이제부터 문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란다."

무니의 인상이 금방 구겨졌다. '도대체 왜?'라는 표정이었다.

"당장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있단다. 하지만 지식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여기에다 꾸준히 쌓아놔야 하는 거란다."

그는 무니를 바라보며 자신의 옆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그래도 무니는 여전히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았다. 이제 난다처럼 숙제 걱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그랬다. 그러자 유리영감은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자꾸나. 어제 너희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무척 고생 해야 했던 일과 엄마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한 벌 정도로 말이야. 아! 게다가 칸타카는 너희를 옮기느라 아직도 탈진 상태란다."

"아. 칸타카!"

무니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조랑말을 확인해보러 가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금은 쉬고 있으니 괜히 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데리고 가도록 하렴."

유리 영감이 그런 무니를 말리며 말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난다가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두 손에는 자두가 가득 담겨있었다.

"늦었구나."

"미안해요, 할아버지. 집에서 나오려는데 쎄라가 자두를 들고 병문안을 왔더라구요. 이제 하나도 안 아픈데, 히히. 엄마가 할아버지랑 무니랑도 나눠먹으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난다는 가지고 온 자두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 쎄라가 아무래도 절 좋아하는 게 확실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말에 유리 영감이 소리 내어 웃자, 무니도 웃고 말았다.

"어. 다들 왜 웃어요? 여기서 도대체 뭐가 웃긴데!"

난다의 얼굴이 발개질수록, 두 사람의 웃음소리도 커져갔다.

또 겨울이 찾아왔다. 무니가 태어나고 나서 맞는 두 번째 겨울이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그날도 언제나처럼 아이들은 유리 영감네 집에 모여앉아 그가 읽어주는 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니와 난다만이 이미 읽은 책이라 별 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고 화롯가 가장 멀리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진짜? 쎄라가 그랬어?"

난다의 시선이 쎄라의 옆모습을 향했다.

"응. 이번 네 생일에 자기가 떠준 목도리를 주겠다고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와서 배우고 갔다니까."

"그런데 왜 진작 이야기 안 했어!"

"걔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뭐, 며칠 후면 금방 생일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어때, 기분 좋아?"

난다가 얼굴을 붉혔다. 무니는 그런 친구의 옆구리를 툭 치더니 킥킥 거렸다. "흠, 흠!" 유리 영감이 헛기침을 하며 무니와 난다에게 주의를 줬다.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 틈에서 두 아이만 딴청을 피우고 있어서 유독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는 무니와 난다에게 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왔다. 할아버지의 경고에 무니와 난다는 얼른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또 다시 소리 내어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유리 영감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완전히 푹 빠져 그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유리 영감이 난다에게 말했다.

"밥 먹고 오두막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버님, 난다 아빠 말이 길이 많이 얼었대요. 어쩐지 눈도 또 많이 내릴 거 같구요. 게다가 내일은 새해 첫날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유리 영감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래도, 길이 이렇게 어두운데. 작년에도 한번 눈에 갇히신 적 있지 않습니까."

소남도 아내의 말을 거들었다.

"글쎄. 괜찮대도 그러는구나. 오늘은 달이 밝아 하늘을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야. 이런 날을 놓치면 아깝거든."

"아버님, 오늘은 그믐인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며느리를 본 유리 영감이 껄껄 웃었다.

"또,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셨군요."

결국 부부는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다. 어리둥절한 난다는 할아버지가 어쩐 일로 고집을 피우시는 것일까, 궁금해졌다.

같은 시간, 무니는 칸타카를 집 안에 들여놓고 있었다. 아무래도 바깥 날씨가 맘에 걸렸기 때문이다. 마야는 그런 무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칸타카를 묶어놓을 곳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탁자 위에 앉아 쎄라가 마무리를 부탁한 목도리를 손보기 시작했다.

"아! 난다한테 목도리 이야기 했는데, 무척 좋아하던걸."

마야는 비밀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입술에 손가락을 갔다댔다.

"어차피 겨우 며칠 후인데, 뭐. 근데 난다는 정말 쎄라가 우리 마을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데 말이야."

마야가 웃으며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여자애들은 아무튼 재미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난다는 여자애들이랑도 잘 어울린단 말이야. 나이가 많든 적든."

순간, 엄마의 표정을 확인한 무니의 얼굴이 발개졌다.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여자애들은 정말 재미없다니까!"

마야는 아들의 반응에 손에 든 목도리까지 놓으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다 또 시작된 두통 때문에 미간을 찌푸렸다. 언제나처럼 어떤 영상들이 두서없이 번쩍번쩍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 보는 장면들이었다. 무니가 걱정스레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유리 영감한테 약 얻어올까?"

무니의 말에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보인 마야는 방금 떠오른 영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장면이었고, 사람이었다. 문득 오늘이 그믐이라는 게 떠올랐다.



삽화 · 김홍인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촌장은 집 앞에 나와 아무 것도 없는 깜깜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믐, 십여 년 전 겨울 약초를 구한다며 나갔던 마야가 실종됐던 밤도 오늘처럼 칠흑 같았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누프르산 여기저기를 뒤지는 내내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가만, 누프르산이라고?' 순간 촌장의 생각이 거기서 멈췄다. 지난 초여름에 무니와 난다가 실종됐을 때도 물론 떠올랐던 사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날의 사건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유리 영감은 분명 풀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다. 그 때문에 쓰러져버린 아이들을 칸타카가 힘겹게 데려온 것이라고 말이다. 분명 그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풀케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식물이다. 그런 것에 중독된 아이들이 바로 다음 날 회복되었다는 것이나, 칸타카처럼 작은 망아지가 아이들을 두 명씩이나 운반해 왔다는 것도 이제와 따져보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분명 내가 뭔가를 놓친 거야. 그게 뭘까?' 촌장의 머릿속에 다시 의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831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재역에서 2분거리(지하철3호선)
- 3층 건물중 2층 (약 15평)
- 보증금 9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강남에 이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 현재 포교원 및 철학

010-2090-4490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공업탑부근
- 3층 평수 89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3, 공양간 화장실2,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4554-5984
010-9753-1953

암자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3분거리
- 깊은 산 계곡 끝자락 상류
- 계곡물 흐르고 있음
- 전답 550평
- 가액: 평당 10만원

010-4130-0606(주인직)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 고속도로 IC 근접, 교통편리
- 평수 23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3억 5천만원

011-687-6276
031)672-1150

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시내 중심가
- 대지 95평, 건평 100평
- 법당 35평, 방4, 거실, 화장실
- 미륵부처님 1분, 삼층석탑 1 삼존불, 108후불
- 산신각, 산업용전기보일러
- 가액: 2억 8천만원 (절충가)
- 현재운영중

010-8121-3334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임야 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절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3-0697
011-9901-3530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울진
- 대지 800평(주차장완비)
- 대웅전 20평, 산신각 4평, 요사채 18평
- 가액: 2억 8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❷**

의상대(義湘臺) 현판의 비밀



의상대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동해안에 있는 정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 제48호이다. 사진은 의상대 현판으로 김돈희 선생이 쓴 것으로 추측된다.

의상대(義湘臺)는 의상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서 돌아와 낙산사를 지을 때 산세를 살핀 곳으로 의상 스님의 좌선 수행처로 알려져 있다. 낙산사가 있는 오봉산을 등지고 섰을 때 의상대는 왼쪽에, 망월대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1925년 당시 낙산사 주지였던 김만옹(金晩翁) 스님이 현재 의상대가 있는 곳에 정자를 새로 지었다. 정자를 지을 당시인 6월, 들보로 쓸 굵은 나무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대 위에 있던 소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고, 스님은 그 소나무로 들보를 만들어 육각형의 정자를 완성했다. 이러한 의상대는 주위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예로부터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꼽히면서 시인 묵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낙산사 의상대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으리라 본다. 처음 낙산사에 가서 의상대 현판의 웅혼하고 남성미 넘치는 예서(隸書)를 보니 신심이 절로 났다.

그런데 현판을 자세히 보니, 글을 쓴 작가의 관지(款識)가 훼손돼 누가 쓴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스케일이 크고, 당당하고 시원한 스타일의 황정견(黃庭堅) 서체를 닮은 현판의 예서는 당대 명필이었던 염재(念齋) 송태회(宋泰會: 1872~1941) 선생과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 1871~1937)선생이 가장 많이 쓰던 서체와 비슷했다.

송태회 선생은 의상대가 세워진 1925년 당시 순천 송광사 현판, 광주 원각사 극락전 현판을 쓴 인물로, 호남화단의 마지막 시(詩)·서(書)·화(畵) 삼절(三絶)로 불렸다.

김돈희 선생은 강릉 선교장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실(茶室)인 활래정(活來亭)의 현판을 쓴 명필이었다.

두 명필 중 누가 쓴 것인지를 궁금해 하던 중 다른 사찰현판 자료를 보다가 낙산사 의상대 현판을 쓴 인물은 성당 김돈희 선생이라는 자료를 접하게 됐다. 그 후 의상대를 보수할 때 떼어놓은 현판을 꼼꼼히 살펴보니, 김돈희 선생의 호(號)가 음각으로 약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낙산사 보타전의 현판을 쓴 여초(如初) 김응현(金膺顯: 1927~2007)선생은 김돈희 선생이 일제시대 중추원의 촉탁을 지내면서 행한 친일활동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후세의 누군가가 의상대의 관지를 훼손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 궁금했던 한 가지는 현판에 쓰인 의상대(義湘臺)라는 한자이다. 그 한자는 우측에서 좌로 내쉬는 숨을 뜻하는 희(羲)자와, 강 이름을 뜻하는 상(湘), 높고 평평한 장소를 뜻하는 대(臺)로 적혀있다.

옛 한문자를 살펴보면, 의상 대사의 의상(義湘)대신에 희상(羲湘)을 쓴 것이 나와 두 글자가 병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돈희 선생은 왜 구태여 희(羲)자를 썼을까? 그 의도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파자(破字, 한자의 자획을 풀어 나누는 것)하는 방식을 이용해 의상대 세 글자를 살펴봤다.

웅혼하고 남성미 넘치는 예서체

최초의 다실 현판쓴 김돈희 作

만 약 에 상(湘)의 눈 목자를 희(羲)자에 붙이면, 희자는 저절로 태양을 뜻하는 희(曦)자의 형태가 돼, 의상대의 의미는 '태양이 물 위에 비친 모습을 보는 곳'이라는 의미로 바뀐다. 김돈희 선생의 탁월한 조형감각과 학문의 깊이를 다시금 볼 수 있게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산사 의상대 현판은 공민왕이 친필로 썼다고 전하는 '임영관(臨瀛館)'이라는 판액(板額)을 제외하고, 강원도 최고의 현판글씨라고 본다.

성당 김돈희 선생의 글씨는 북송(北宋)대의 시인·서예가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황정견이 쓴 '지주명(砥柱銘)'이라는 작품은 2010년 북경의 한 옥션에서 중국 고미술품 역사상 최고 가격인 770억 원에 팔렸다.

지주(砥柱)란 황하의 억센 물길을 꿋꿋이 버티고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부디 의상대 현판이 세월과 풍파를 이기고 천년 만년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동행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의지하고 격려하며 걷는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봅니다.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행자는 없는지.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⑦ 조선 보우 스님의 '산거잡영(山居雜詠)'**

내가 곧 산이요 산이 곧 나다

山非有意容貧道(산비유의용빈도)
貧道無心假碧山(빈도무심가벽산)
我即是山山即我(아즉시산산즉아)
不知相對白雲間(부지상대백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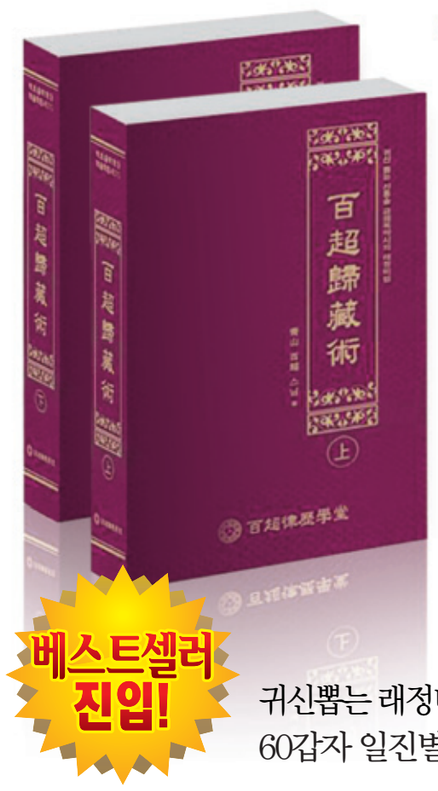
산이 뜻 있어 나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요
나도 생각 없이 푸른 산 빌려 살고 있네.
내가 곧 산이요, 산이 곧 나여서
흰 구름 사이에서 마주 대하는 줄 모르노라.

허응보우(虛應普雨: 15(?)~1565) 스님의 산에 살며 읊은 열다섯 수(首)가운데 제 8수이다. 자연은 수행자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며 스님들의 삶 또한 자연 그것이다. 자연은 누굴 위해 무엇을 베풀어 놓는 것이 아니요, 그 속에 사는 사람 또한 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 내가 곧 산이요, 산이 곧 나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다소 관념적일 수 있다. 스님은 이런 추상적인 경지를 마지막 구에서 구체화 시키고 있다. 자연과 내가 서로 마주 대하고 있지만 서로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지,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는 경지, 뜻 없이 받아들이고 무심히 머무는 경지, 그것이 곧 내가 산이요, 산이 나인 실체이다. 법과 비유를 통해 선의 묘미를 그대로 노출시킨 선시의 정형이라 할 수 있다.

스님은 "관(觀)은 소견이 멀리까지 통달하는 것이며 원(圓)은 소견이 치우치지도 국한되지도 아니하여 널리 두루 찬 것이다. 지혜로써 비추는 것을 원관(圓觀)"이라고 했다. 망상으로 분별하면 '산이다·나다, 혹은 산이 아니다·내가 아니다'라는 현상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도리로 보면 나라고 하는 육근(六根)과 산이라고 하는 육진(六塵)이 동일한 바탕임을 알게 된다. 즉 자연 그대로가 이미 불법 그 자체로 천지는 나와 한가지인 것이다.

노란 생강나무 향기가 가사에 방울지고 도량 가득 매운 개구리 소리가 봄밤을 깨우는 운문에도 매화비가 내렸다. '방안에 누워 매체를 통해 봄[春]을 감상[臥遊]'하지만 말고 봄길을 나서 내안에 숨어 있는 봄, 봄 속에 깃든 나를 느껴보자. 불법은 그저 이것에 다름 아니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쉼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깨고 혼침 졸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 대상(누구나) : 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 수행일정(예약신청)
8차 : 4/ 2 ~ 4/ 3 11차 : 5/14 ~ 5/15
9차 : 4/16 ~ 4/17 12차 : 6/11 ~ 6/12
10차 : 5/ 7 ~ 5/ 8 13차 : 6/18 ~ 6/19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대행 스님

근본자리에서만이 전체가 통할 수 있습니다

(죽비 소리가 난 후 4분 가량 그대로 계시다가) 왜 죽비 소리가 안 나니? (대중 웃음) 그 웃기는 일이다. 물론 죽비 소리가 안 나도, 말을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으니까요. (대중 스님에게) 죽비 쳤니? 응? 그것 참, 내가 못 들었나?

옛날에 어떤 어른이 "쓰레기통이 돼 봐야 쓰레기의 이치를 아느니라. 금은보화 담은 창고가 되지 말고 쓰레기통이 돼라." 하셨는데, 예전 일입니다만 왜 그런 소릴 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쓰레기통에는 별의별 게 다 담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라는 건 고귀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아주 그냥 팽개쳐져 있죠. 그 쓰레기통 노릇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쓰레기 같은 것은 자기가 갖고 좋은 것은 자식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은 부처님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죽는 것마저도 그렇죠. 자세히 말을 하자면 부모의 마음은 죽는 것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돼 있죠. 사는 것도 그저 고생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의 소망이 작고 클 뿐이지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생자부(四生慈父)로서, 알로 낳고 태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화(化)해서 낳고 하는 그 사생들이 전부, 자기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아픔 아님이 없고, 한도량에 있지 않음이 하나도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자기 아니 됨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고로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 생각하는 것과 부처님이 사생자부로서 생각하는 바가 크고 작을 뿐입니다. 우물물과 바닷물이 크기만 다를 뿐 물은 같듯이.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주인공, 나의 불성 뿌리에다가 모든 거를 놓으라고 하죠. 좋은 것은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거는 '언짢지 않게 하는 것도 너'라고 놓고, 그렇게 오신통을 잘 굴리라고 했습니다. 오신통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또 내가 어디서 나온 걸 아는 거 말입니다. 또 상대성을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문제를 볼 때에 거기서 나오는 모두를 거기다 놓되,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구정물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맑은 물로 대치할 수가 있다는 믿음으로 놓으라는 얘기죠.



그림 · 최주현

나는 이렇게 곧바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만 수많은 조사들이나 수많은 스님네들은 "탐진치(貪瞋癡)에 구르면 삼독(三毒)에 빠진다. 삼독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그것을 넘어선 얘깁니다. 고(苦)·집(集)·멸(滅)·도(道), 이런다면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고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감사하게 놓고, 굴려서 놓고, 다 놓는다면 '멸'이 됩니다, '멸!' 일체, 일거수일투족이 다 '멸'이 됩니다. 그래서 삥삥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놓게 되면 '멸'이 되는 이치에서 자꾸 멸해 들어가면은 '도'다 이겁니다. '멸, 도' 아닙니까? '멸' 하면 '도'다 이거예요.

이 '멸'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감사하게 놓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거기다 놓을 때에 바로 멸함이 생기면 도가 있고, 도심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넓게 볼 줄 알게 되고, 넓게 들을 줄 알게 되고, 넓게 말하게 되고, 지혜롭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나온다는 얘기죠. 둥글게 나오고, 그 둥글게 나오는 반면에 우리는 '아, 이거 둘이 아닌 까닭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굴릴 수 있게끔 될 때에 비로소 웃물이나 바닷물이나 똥물이나 핏물이나 흙물이나 어디에든 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젖는 거, 이 물 저 물 따지지 않고 젖는 거, 젖는 이치! 어디든지 다 젖는다. 어떠한 물에도, 똥물에도 젖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이 방편의 말을 안 하면 그 이치를 모르겠기에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젖는 이치만 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의 그 뿌리에 모든 것을 놓는다면 하나에 젖을 뿐이지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없다. 가리는 게 없는 반면에 젖는 걸 알고, 젖는 걸 아는 반면에 그 젖는 거마저도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최상승의 얘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해 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득이 없다면 할 것도 없지요. 할 것도 없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이득이 충분하고 남과 나에게 다 이득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할 것이 없다'는 때까지….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끝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거를 아신다면 젖는 도리마저도 공했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천차만별의 굴림이 있겠지만 단 한 군데서만이 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단 한 군데서만이 전체가 통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군데서만이 상대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한 군데서만 나투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산 사람의 영혼이든 찰나찰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살았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고 죽었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되는 것도, 어떠한 거든지 막론해 놓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로 가고, 물로 가고, 또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그렇게 정리를 잘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 조립을 해서 내놓을 때 쓸모 있는 기계로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이죠. 그런데 재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뭐냐 하면 끝없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화돼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또 진화돼서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과정이 끝이 없으니까요. 다함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다함 없는 그 속에서, 끝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사는 걸 원하듯이, 또 죽음마저도 자기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어 줄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갖다 주더라도 갖다 주는 사이 없이 갖다 줘라.' 이러는 것은 과보의 빚을 갚게끔 해 드리려는 거지요. 여러분이 수없는 나날을,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남의 빚을 진 거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빚을 진 거, 죽고 죽이고 먹고 뺏고 하면서 살아온 그 과보를 말입니다. 그거를 제거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 드리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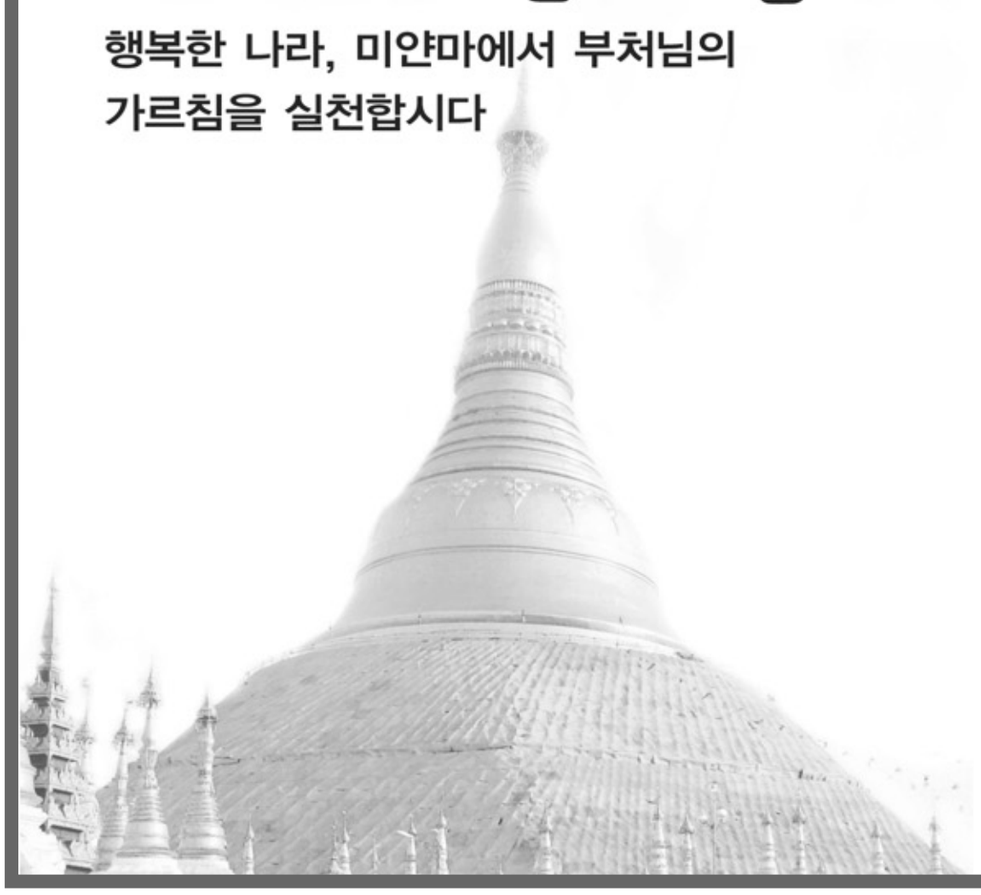
법정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재판을 해서 보석금이라도 내야 나오게 되는 거와 같이, 될 수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보석금이라도 내서 빼내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거죠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자체가 스스로 해서 그 빚을 갚고, 보석금이라고 방편으로 말을 하지만 그 과보의 빚을 갚고 바로 자신이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을 스스로 추수해 들일 수 있게끔 해 드리는 역할입니다.

☞ 3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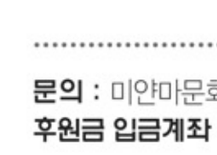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마음의 선장을 진짜로 불들고 믿어보세요

☞ 29면에서 계속

한 번 추수를 해 들이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조상도 한 염주에 꿴 거와 같으니까. 무우씨면 무우씨대로 한 염주에 꿰여 있고, 수박씨는 수박씨대로 한 염주에 꿰여 있고, 천차만별로 한 염주에 꿰여 있으니 그 꿰여 있는 차원은 천차만별의 차원이다 이겁니다. 그 차원에 따라서 크고 작게끔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오늘에 또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만큼 그것을 어머니가 자식한테 되돌려 주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돈도 없는데도 주워 모아서 가져왔을 때, 내 가슴이 찡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다면 내 마음 편안하자고 얼마를 떼어 놓곤 도로 줍니다. 왜 그것을 도로 주느냐 하면 내 마음 편안하자고요. 그러고도 그 사람은 그만큼 했다는 얘기죠. 그 값어치를 충분하게 했다는 얘기죠. 돈 있는 사람 몇천만 원을 한 것보다 더, 그 사람은 이미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거를 다 모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깨칠 수도 없고 타인이 말을 한 것 가지고 깨칠 수도 없고, 또 발견할 수도 없어요. 항상 내가 말하듯이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똥 눠 줄 수 없고 잠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죠. 내 마음이 파도가 일 듯 하면 물이 잔잔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이루지 못하니까 파도가 일면 이는 대로 (가슴을 짚으시며) 거기다 놓고 태연하게 '인생은 이런 것이지, 뭐. 인생에 파도가 없으면 죽고 사는 것도, 생사윤회도 없을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은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또 넘고 또 넘고 이러더라도 조금도 이탈이 없이 갑니다, 마음 편안하게. 파도친다고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도치면 치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럭하다 보면 보이는 세상에서 파도는 치나 마음은 파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상 세계에서 닥쳐오는 것이 잔잔해진단 얘깁니다. 자기 마음에 파도가 안 일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도 그만 스러져 버린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그 마음 하나 내버리면 다 편안해지죠. 산다 죽는다, 욕심이다, 벌어야겠다 이러는데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벌되 '욕심 너무 내지 마라. 정도껏 살자. 너무 욕심내다 보면 걸려서 쓰러진다. 너무 욕심내다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널 때 중간에 빠진다.' 이런 소리죠. 욕심부리지 않고 산다면, 자기 분수에 맞게 산다면 누가 뭐랍니까? 돈을 번들 누가 뭐랍니까? 돈을 가지고 살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분수를 알고 살아라 이 소립니다. 돈이 기름인데 어찌 돈 없이 살라 합니까? 하지만 돈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또 분수를 알고 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쓸 수 있고,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온다 이 얘기죠.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에게 이날까지, 직접적으로 항상 말해 오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한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말도 잘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전부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엉뚱나가게 내 분수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이럭하겠다. 이렇게 한다. 너는 뭐 어떻다.' 이러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진짜 업이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필연적으로 이 공부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종교를 믿고 다니면서 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를 압니까, 세상을 압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주처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짚으시며) 자부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가끔 이 소리 하죠.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불성이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게 하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것 그랬다더라.' 하고 그냥 날려 버리고 마는데 이 도리만 알아도 날려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죠. '뿌리 없는 싹을 봤느냐?' 싹은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거고,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다 놓고 굴림으로써 공덕이 있는 거지, 싹이 다른 싹을 쳐다보고, 형상을 쳐다보고, 이름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그래 봤던들 이쪽 나무로 도움이 안 오고 통신도 안 됩니다. 뿌리끼리만이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구니짓과 같고 도깨비짓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도깨비짓과 같으니라.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이러는 게 모두 네 그림자를 믿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으니라. 네가 현실 그대로 지금 걸어다니고 말하고 움죽거리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어떤 것이 부처님 법입니까?" 하니까, "너, 이리 오너라. 내 가르쳐 줄게." 해서 앞에 턱 오니까 그냥 멱살을 쥐고 따귀를 얼마나 붙였던지 "어이구!" 하니까, "어이구 하는 놈이 누구냐?"고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할 거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보다도 진실한 자비를 베풀어라. 베풀기 이전에 네 모습과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라.' 그럴 때에 부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인연으로 인해서 모두 한데 모여 한 개체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동차와 같다면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인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인도 모르면서 난데없이 와 가지곤 그렇게 하니 그게 낫겠어요? 그 주인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관(觀)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가서 보고 스스로 그걸 믿고 그렇게 실천하면 스스로 낫는 거지, 뭘.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모두 모릅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래요. 지금 50%, 50%라고 그랬는데, 50%가 아니라 100%예요. 자기 뿌리가 100%, 잎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을 다 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싹이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싹이 '간다 안 간다, 50%다 100%다.' 이렇게 아무리 난설을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뿌리의 차원대로 당신은 살 수 있는 거니까. 운전수에 따라서, 운전수도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끌고 다니는 차가 마구 쓰는 차냐, 곱게 쓰는 차냐, 세단차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나도 운전수가 고치죠? 차를 부딪쳐도 운전수가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빼내죠? 바로 당신 영혼의 근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을 믿지 않고, 근본이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50%, 50%지.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영혼의 근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운전수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그 주인공은, 단계가 있는데 뭐냐?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도 나오고 화도 나게 하고 잘못되게도 하고 길을 잘못 들게도 하고 잘 들게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중생들을 다스리는 선장이 있으니 그 선장한테다 다 맡겨 놓으면 그 선장이 다 알아서 다스려 준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내 몸뚱이 속에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맺어진 인연들, 원수가 된 인연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이고 내는 데도, 즉 말하자면 간장공장이나 위공장이나 방광공장이나 척수공장, 콩팥공장 같은, 각 부서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는 그런 인연들도 있거든요. 그래 문지기 노릇을 하다가, 여기서 뇌물을 먹으면 이리로 가고, 저기서 뇌물을 먹으면 저리로 가고 이러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외려 깡패를 들여놓는단 말입니다. 깡패를 들여놓는 날이면 그 회사는 시끄럽고 말이 많고 그냥 한쪽 귀퉁이가 부서지고 이렇게 되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평등하게, 차별을 두지 말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건 일체히 다 그냥 주인공이 다스리게 맡겨 놔라 이 소립니다. 이것 저것 따지고, 여기저기 부서의 파수꾼들을 다 세워도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거기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에다 다 맡기는 거죠. 진짜 자기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고, 자기만이 고쳐서 끌고 갈 수 있고, 자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불성인 선장한테다가 그 의식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생각들 깊이 하셔서, (가슴을 짚으시며)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실천을 하신다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선장이라는 놈을 진짜로 붙들고처 님께서는 '너희들 모두가 사생자부가 돼라.' 하신 거거든요. '사생자부가 돼라.' 이런 것은 너희들도 미생물에서부터 거치면서 알로 낳고 태로 낳아 보기도 하고 화해서 낳아 보기도 하고 질척한 데서 모습을 가져 보기도 했고, 수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 나왔으니 어찌 사생이 네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생명, 네 마음, 네 몸, 네 공용, 네 공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 진짜로 이름만 사랑이 아니라 자비를 가져라, 자비! 더불어 자비다. 개개인의 자비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자비다. 거기에 뒤따라서 할 말은 많지만 질문받기로 하죠. 난 여러분을 웃기지도 못하는 바보예요. (대중 웃음) 아이, 도대체 웃기지를 못 하는 사람이라구요. 허허허….

> 진짜 자기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 자기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고
> 자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불성인 선장한테다가
> 그 의식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질문자1(남): 95년에 선원에 인연이 되어 한마음 법을 알고부터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 제가 올해 나이가 서른넷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작년까지는 결혼에 대해 생각도 없었고 근심 걱정을 안 했는데 올해 들어서니까 '결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출가를 해야 될까?' 마음 속에는 항상 50%대 50%, '출가를 해야지.' 하다가 한 번 실패를 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가서 또 실패하고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답답하고….

큰스님: 사람의 삶이 말이에요, 긴 여행이 아니라 짧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나 산 영혼이나 똑같아요. 50%가 산 영혼이라면 50%가 죽은 영혼이죠. 보이지 않는 영혼.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평등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억겁을 살아나온 그 과정의 모습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아시게끔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 믿어 봐요. 당신 몸뚱이를 당신이라고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7년 4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733-5665, 011-229-6061

불자 세상보기

구제역 종식, 매몰지 관리 시작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

구제역(口蹄疫: foot-and-mouth disease(FMD))이란 소· 돼지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전염병을 말한다.

작년 말부터 발생된 구제역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무계획적인 사태전개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답답하기만 하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된 수백만 마리의 동물 사체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도 너무 반문명적이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히 침출수 등 추가적인 오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고만 하고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동물의 사체들을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책없이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것은 적절한 처리방법이 아니다.

환경학적으로 볼 때, 2차적인 환경오염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오염행위이고, 그것들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전국적인 오염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구제역사태 또한 4대강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추후 수많은 사후관리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구제역 발생초기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회를 놓쳤다는 정부가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구제역예방에만 집중하다보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동안에도 체계적인 사후대책이 제대로 수립된 못한 상황에서 매몰처리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인하여 심각한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 2차 오염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와 수계에 미치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악취 등은 단기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동안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매몰지처리는 사전에 토양과 지질조사, 그리고 인근의 지하수와 하천 등의 수계조사를 수반한 이후에 매몰지역의 일정공간을 잘 굴착한 후, 충분한 차폐시설과 폐공을 확보하여 침출수와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냥 마구 버리듯이 땅만 파고, 그냥 덮어버린 수십년전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과 같이 처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수천곳의 매몰지 대부분이 과학적 사전조사 및 사후대책없이 처리되었기에 앞으로도 매몰지주변의 지하수와 하천 등 수질오염과 토양오염문제가 계속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부터라도 매몰지의 2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매몰지의 침출수 차집 및 처리 등 사후 보강작업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제는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라, 상식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사전에 적절한 관리대책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아무데나 묻어버린다는 것은 국격(國格)을 논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것은 4대강처럼 적어도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일들을 단기간에 해치우는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다.

어찌 보면 4대강 사업과 구제역사태는 모두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간중심의 욕심과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채식위주의 식생활개선과 생명존중의 불교적 생활양식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이고, 물질문명위주의 현 삶에 대한 근원적인 전환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사부대중 칼럼

삶을 간절히 엮어가고파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나는 늘 기도한다.

절기에 맞춰 기도하고, 특별한 기일을 정해 기도하고, 기도를 권선한다.

기도를 하다보면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있다. 기도에 임하는 사람들 그 누군들 간절하지 않고, 기도의 소원 또한 간절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병고로 인한 기도가 가장 간절한 것 같다.

병고는 가장 죽음과 밀접한 일이기에 그토록 간절하지 않을까 싶다.

언제인가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화두 일념을 통해 도를 이루겠다며 참선할 때였다.

어느 날부터 죽음이 자꾸만 만만하게 생각되었다. 그러한 생각이 쉼없이 이어졌다. 나는 잡고있던 화두를 잠시 접어두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한없이 사유를 밀착하고 밀착했다. 죽음을 투철하게 고민해 그 막장을 투관해 볼 냥으로 내 사유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정말 상상에만 머물며 주위를 맴돌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온 몸에 투과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나와 죽음은 일치했다. 그토록 담담했던 죽음이 온몸으로 밀착되어오자 짧은 순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이 목전에 닿았다는 생각이 들자말자 그동안 그토록 당당했던 나의 기세는 한순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등골이 한없이 오싹해오더니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식은 땀이 흐른 것은 등줄기뿐만이 아니었다. 이마에도 땀이 줄줄 흘렀다. 잠시 잠깐이었으나 그 순간적 체험이후 죽음은 결코 내게 사유적 유희가 아니게 되었다. 그토록 호기 만만하던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후로도 늘 얼마간의 두려움과 항상 함께 했다.

죽음에 대한 용기를 잃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이 꼭 부정적인 견해만 동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운 체험은 삶의 곳곳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를 수반해 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자에 대한 진정어린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대원력인 구고구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간절한 열망을 더욱 자신의 일 같이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나는 호기에 찬 젊은 삶을 살아온 탓에 타인의 어려움을 다정히 잘 위로하지 못했다.

병문안 가서 기껏 하는 얘기란 게 "어때요? 의사가 나을 수 있다고 합디까?"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쉽게 "잘 됐네요. 휴가 온 셈 치고 푹 쉬세요!" 이 말이 전부였다.

내 원력의 인연 탓일까. 약사도량인 제주 약천사의 주지가 되었다. 약사도량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아픈 이들이 많다. 도량 밖으로 눈을 돌려도 주위를 돌아보니 참으로 병고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나는 아직 오랜 습관으로 인해 그들의 아픔을 다정히 위로하는 기교적 언변은 갖추지 못했다. 비록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면 앞에서 비록 어눌하게 위로할 뿐이지만 오래토록 그들의 고통이 뇌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불보살님의 존상 앞에 무릎 꿇으면 항상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간절한 나의 삶의 주제어가 되었다.

아름다운 봄꽃을 노래하다가도 그 쓸쓸한 낙화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어느덧 탄생에서의 날보다 죽음의 날이 더 가까운가 보다. 찬찬히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애절해온다.

죽음의 두려움은 아픈 이웃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웃에 대한 한없는 애정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나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엮어주는 것 같다.

죽음에서 삶의 간절함을 찾게 된 일이 언제나 신기할 뿐이다. 그러고 보면 일찍이 성현들도 죽음을 직시하는 명상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았고,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사문유관상을 통해 해탈의 길을 망설임 없이 출발하셨나보다.

얼마 전 절친했던 도반을 화장해 떠나보내야 했다. 도반의 혼이 꽃으로 피어올랐는지 올 들어 봄꽃이 더욱 애절하다. 오래토록 살고 싶다.

이 봄, 다정히 정을 나눈 이웃들과 조금이라도 오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그들과 죽음의 공포에서 먼 희망의 삶을 정말 간절하게 엮어가고 싶다.

社說

이만하면 됐다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신행 목적의 방문은 허용한다."

조계종이 이 같은 봉축지침을 발표했다. 이쯤 되면 조계종은 불편한 관계를 청산코자 정부·여당에 확실한 러브콜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 인식의 변화가 감지돼 내려진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브랜드위원회 회의에서 "사찰 등 전통문화 가치 발굴과 확산하는 일은 한국의 이미지 신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불교문화를 한껏 추켜세웠다. 장로대통령답지 않던 발언이 있은 자리에서는 전통사찰의 문화콘텐츠화와 관광상품 개발 등이 결정됐다.

액면대로라면 불교계로서는 삭감된 템플스테이 예산에 대한 보전에 덧붙여 대통령의 립서비스까지 정신적 위자료로 받은 셈이다.

하지만 6일, 자승 스님의 검찰 소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총무원은 진위 파악에 주력했다. 상하 보고체계가 확실한데다 상부의 수사지휘가 엄연히 존재하는 검찰 조직에서 검사 단독의 판단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거물의 재수사를 결정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관행을 깨고 1심 기관에 내린 재기수사 명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일련의 상황에 어떤 정치적 복선이 깔렸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확실한 것은 불교계와 정부, 두 고래의 팽팽한 기싸움에 불자도, 국민도 지쳤다는 사실이다. 이만하면 됐다.

땅만 겨우 팠을 뿐인데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불사금이 모이지 않는단다. 불교계의 전폭적인 관심 속에 삽을 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는 이제 겨우 법당이 들어설 땅만 판 단계인데 돈 걱정부터 해야 할 판이다. "군포교에 불교의 미래가 달렸다"던 사부대중의 그 큰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오죽하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호소했을까. 이쯤 되면 또 다시 불교계의 뒷심과 역량을 의심해봐야 할지도 모른다.

자광 스님은 "공사비 105억원 가운데 55억원만이 약정됐다"고 밝혔다. 반드시 있어야 할 금액에서 절반가량이 부족하다. 그나마 55억원도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적지 않게 노력해 겨우 모인 금액이었다. 사찰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 기억원까지 뜻과 마음을 모은 금액이다. 50억원이라는 부족한 액수보다 더 눈앞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은 불자들의 무관심이다. 무엇보다 불교계가 미래를 담보해 진력을 다한 액수가 55억원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내봐야 헛일이라고 포기할 수 없다. 수행과 정진의 땀방울로 수건을 적셔보자.

그 시작은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불사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장정들에게 부처님의 씨앗을 심는 숭고한 포교활동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자광 스님의 발언에 절실히 공감하는데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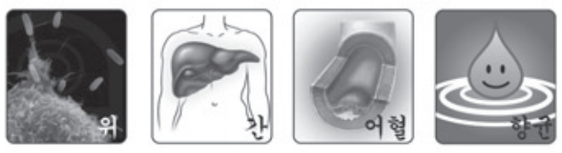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고승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귀사찰, 암자 기도원에서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를 수거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수거품 : 폐초, 파불상,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복지 기금마련을 위하여 양초 판매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불교고승연합회 / 농협 1124-01-138620
= 자 비 실 천 =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택배업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복지단에서 부담합니다)
■ 보내실곳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227번지 고승복지단(앞) 전화 031)764-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 한 불 교 고 승 연 합 회 복 지 지 원 단
단장 경 천 배 상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 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명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봄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건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워시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인가족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점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후 아침에 숙변이 엄청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할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차갑던 공장이 서서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귀찮 수면제도 먹지 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인가족 음식을 아무대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허리도 확 좋아져서 옻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너무좋은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감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으나 더 이상은 정상이 없어 돌아왔 후 그주아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이 없었습니다. B 방송 TV 방송을 보고 제주씨가 선물을 해준지만 형수소자 상회하지 않았지만 설물해 숨 붙은 생의로 변경하게 시작했지 (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주아다 가진 병원을 3개월에 1병으로는 아주 들에 대었으며 혈액의 간수치는 85/L 로 돌아왔으며 혈당도 4에서 3.5 로 수치됨.
더욱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지로 복가능 했던 바톨유증이 완치 되었으며 면역력이 약해짐에도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경원에서 아침이 같은 표진대로 옻게 치료받은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아게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대장염증사로와 나면전. 1년정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금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을 아침에 복용이 사라지게 없어 또고 사지가 아저린 저리고 아래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아졌습니다.
지금 정상이 아이 조금 절뚝이 타서 나았고 신체모이 스무게 없어 대체는데 10일 정도 복용하셔서 거의 다 나아졌습니다.
좋은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건강한 모든이에 건강 행복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40-70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